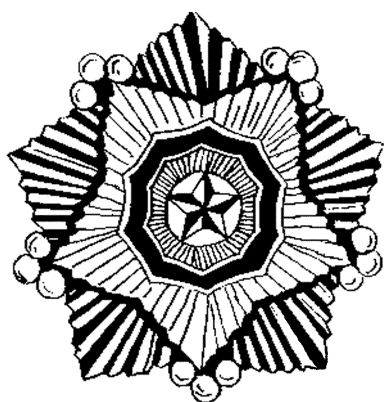


5

주제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5호

(루계 제811호)

차 례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원수 (시 묶음)	백 하(3)
나는 백두산을 안고산다(시초)	문 동 식(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보통강 사탕의 강이여(시)	리 경 체(8)
원수님의 밝은 미소(가사)	리 명 근(8)
나의 붓(시)	변 홍 영(9)
주체문학의 대강	(23)
우리 공장의 5.1절	김 철 웅(23)
☆ 우리의 집은 당의 품(시초)	전용남, 김명익, 함영주, 오정로, 박성일, 육영철, 김정곤, 박현철, 리히진(24)
☆ 고향의 자황이구려	리 득 하(28)
그 언제일가(가사)	류 영 국(28)
태양의 빛발아래 영원한 별들의 세계(평도자와 작가)	정 향 옥(29)
수필 변하지 않는것	배 경 휘(70)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 공동구호에서 —



해빛눈부신 창문들 김 경 일(10)

장 풍 덕 김 명 진(31)



월 홍 남 수(46)

작은 뜨락 리 명 호(59)

들메나무(단막희곡) 리 명 선(72)

값높고 아름다운 삶은 고상한 미관을 지닌

인간의 생활이다(평론) 박 춘 택(54)

。 시 。

목금소리 울러라 기 경 호(30)

병사들아 《혜첫》 김 광 호(45)

조국은 탄부들을 사랑하네(가사) 홍 민 식(58)

청춘의 이름(가사) 류 명 호(58)

사랑과 작별에 대한 시(시초) 최 남 순(68)

상 식 (53), (58), (80)

병사들아 《헤쳐》

김 광 호

런속행군의 길
산넘어 강을 건너가는 길
털맞춰 행군하던 병사들은 보았네
물길에 빠진 농장의 트랙토르

시간은 행군길 재촉해도
인민을 위한 일 어이 스쳐지나라
저 트랙토르 어서 건져주고 가자고
모두의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인가
지휘관의 구령소리 크게도 울리네
병사들아 《헤쳐》

오, 지휘관의 이런 구령
행군의 먼길에 벌써 몇번째더냐
불어난 개울가에선
학교가는 아이들을 위해
길가의 밭이랑에 돋은 잡풀을 볼 때면
휴식점 저 풀을 뽑아주고 가자고...

인민을 도와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워가는 길이어서
훨훨 나래가 돋치였는가
트랙토르 건져주고
병사들은 털을 지어 다시 떠나네

헌데 마주오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앞장에 선 저 청년은 트랙토르운전수
달려오는 아이들은 물건네준 학생들
병사들의 흠뻑은 손 뜨겁게 잡아주던 그 농장
원들

자, 병사들아 또다시 《헤쳐》
지휘관의 구령소리 들에 정답게 울리네
어서 인민들과 포옹하자
대렬은 비록 헤쳐저도
군민의 정은 더욱 두터워지고
군민의 단결은 더 굳세지는데야!

어린이들의 그 웃음소리를 멈추려고
얼마나 악착한 봉쇄를 좁혀왔던가

허나
멈추지 못했다 그 웃음소리
달리던 렬차가 멎어섰어도
콩우유차는 순간도 멎지 않았으니
얼마나 마음 후련히 울리었던가

교정마다 들어서는
콩우유차를 향해 달려오며
터치던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온 교실에 즐거이 쏜던 웃음소리

눈부신 은빛을 뿌리며 흐르는
콩우유통행렬앞에
걸음 멈추신 경애하는 원수님
숙연히 선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여라

—미제야수들은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지 못하게 하려
독을 품고 미쳐날뛰고있소
만난시련이 앞을 막아도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오

몰아친다 온 구내에 불같은 열풍이
기대마다 세찬 동음을 터치며
콩우유가 쏟아진다
해빛따사론 거리론
변함없이 콩우유차들 달린다

강성부흥으로 내닫는 이 땅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더 밝게 울려퍼지리니
살인마 미제의 정수리를 누르고
그 웃음소리 더 높이 울리리라

오,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원수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미제의 최후멸망을 당겨오신다

미 래

그 누가 상상인들 해봤으랴
탁상에서 보아주신 수천장의 형성안
하늘에서 검토하시려 구름우에 오르셨다
원수님 살살이 굽어보시여라
비행기의 시창으로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미래과학자거리 골조의 바다

너무도 소중한 거리여서
군인건설사단을 새로 무어 보내시고
착공의 첫삽을 박아 긴긴 여섯달
그 얼마나 정을 쏟고 심혈을 바쳤으면
구름넘어 하늘길에 오르셨으랴

하늘에 원을 그으시며
내려다보시고 또 보신 원수님
당에서 보아준 형성안대로 일떠세우니
건축물들이 정말 보기 좋다고
온 비행기안을 환한 웃음으로 채우시네

대동강기슭을 따라
새로 뻗는 강안제방을 축으로
2계단공사의 규모도 정해주시고
당창건 70돐까지 완공하자고 격려도 해주신 원수님
다시 건설장을 밟으시네

고층주택 넓은 방에도 들러보시고
아파트 높은 계단도 밟아보시며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흡족하던 거리
땅우에 내려서보니 더 웅장하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네
원수님 너무도 기쁘시여

말씀하시네 회열에 넘치시여
여기서 인재의 숲이 자라야 한다고
여기에 미래의 만년기초를 앉혀야 한다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조국의 보석바다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솟구쳐라 대동강 푸른 물아
이 기쁨 이 환호를 하늘가득 터치여라
건설력사가 흘러 수천년
비행기를 타시고 하늘길에서
건설장을 밟으시며 땅우에서
대건설을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
그 언제 있었던가 이 행성우에

오, 미래
강성국가의 대번영기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탁월한 령도로 역사를 당겨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천년미래를 안아오시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남호두회의 이후시기부터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조직을 위한 활동으로 집중되었다. 하나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고 그 산하에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틈틈히 묶어세우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내외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자주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라는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온 사상이었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기시기부터 견지해온 가장 중요한 리념의 하나였다.》

《1936년 5월 백두산북쪽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역사적사변으로 되었다.》

시 조

나는 백두산을 안고산다

문 동 식

삼지연

백두의 미풍에 잔물결 설레이며
기슭에 무늬짓는 수려한 삼지연
못가에서 바라보는 푸른 호수는
수정처럼 맑은 세 거울인가

내 숨엄히 호수가를 거닐면
우리 수령님들 발자욱 모래불에 빛나고
하얀 조약돌 그 하나하나에도
수령님들의 온기가 뜨겁게 흐르는 곳

구슬같이 맑은 물 한웅큼 떠드시고
조국의 정기로 마음속에 안으시던
이 물처럼 티없이 순결한 량심으로
나라찾는 혁명전에
신념의 최강자로 싸워야 한다시던

그날의 수령님들 그리워 찾아오신
우리 원수님 여기서 말씀하시였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여진다고...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그 뜻 다 담기엔
하나의 호수로도 너무도 모자라
그래서 내 나라 5천년력사가

여기에 펼쳐놓은 세 거울 아니냐

이 거울에
투사들은 걸음걸음 신념을 비쳐보며
이 땅위에 해방의 해돋이를 안아왔고
오늘은 내 또한 선렬들처럼
이 물에 나의 정신을 가다듬고

저 하늘의 해와 달 별무리도
이 물에 얼굴씻고 밝은 빛을 뿌리는가
내 사는 조국은 백두산대국으로
높이 솟아 온 누리에 찬란히 빛나거니

오, 삼지연 삼지연
내 한생 이 거울 품고살리
광풍이 불고 격랑이 밀려와도
이 호수에 내 넋을 실어놓고
나는 달려가리라 선군의 한길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받들고
그분들께 충정을 다하는 아들로
이 물처럼 깨끗하게
이 물처럼 푸르게
이 물처럼 영원히

봄날의 백두산

삼지연
여기서 내 바라보는
백두의 령봉우엔 흰눈
흰눈만이 하얗게 덮여있고

허나
천고의 밀림속을 조용히 걷는
내 머리우엔
5월의 봄비 보슬보슬 내리고

문득
가슴치는 뜨거운 생각
1939년 5월 력사의 그 봄날
조국으로 진군하신

우리 수령님 안고오신 그 봄빛
이 봄에는 여기에 봄비되어 내리는듯

진정
오늘도 우리 수령님
저 백두에서
폭설과 설한풍을 다 막아주시며
은혜로운 봄비만을 우리에게 주시거니

오, 이 봄날
백두산은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친다
비범출중한 우리 수령님의 산
백두산이 높이높이 솟아있어
조선은 영원히 꽃피는 봄이라고

밀림속의 이깔나무

백두의 한겨울 눈보라속에
휘지도 꺾이지도 않고
총대처럼 억세게
새봄을 맞이한 푸른 이깔나무여

바위도 얼어뼉던 설한풍속에서도
자욱자욱 불길속을 헤치며
조국으로 진군하던 투사들의 그 모습
네가 고이 품고 살아
청청푸른 기둥으로
저 하늘 태양을 떠받들고 솟은거나

삼지연 맑은 물로
신념과 의지의 장검 닦고 또 닦던
혁명선렬들의 그 넋 그 정신을
이깔나무여
네가 지녀 그리도 정결한거나

볼수록 숭엄한 뜻
내 가슴에 새겨주는
백두밀림속의 푸른 이깔나무여
너는 살아도 죽어도 굴할줄 몰랐던
태양결사옹위투사들의 그 모습

오, 이깔나무
력사의 증견자여
나도 살리라
너처럼 한생 변함이 없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 받들어
백두산을 안고산 투사들처럼
나도 우리 태양
김정은원수님만 받들고 따르며
언제나 한모습 너처럼 살리라!

녀투사의 눈물

삼지연못가 투사들의 군상
진달래꽃나무 그리안은
녀투사의 두눈엔
오늘도 그냥 눈물이 맺혀있다

이역만리 눈보라속에서
목타게 그리웁던 어머니도 아니고
보고싶은 애뜻한 동생도 아니고
말을 해도 대답없는 진달래꽃이건만

마치 어머니인듯
마치 동생의 얼굴인듯
녀투사는 진달래꽃 정답게 그리안고
북받치는 격정에 눈물짓거니

녀투사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진달래꽃송이
그것은 투사가 목숨바쳐 찾고야말
사랑하는 고향 그리운 혈육들

그 조국산천
그 혈육들을 한품에 그리안고
녀투사는 오늘도
상봉의 감격속에 눈물짓고있거니

오, 녀투사의 눈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저 눈물은
조국과 나를 하나의 살붙이로 맺어주는
애국의 불타는 불덩이여라

백두산의 칼바람

태고의 밀림속에서
나는 듣고있다
백두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소리를
그러면 바람의 갈피갈피에서
내 귀전에 들려온다

로혹산의 깊은 골짜기에
보천보의 불길속에
간삼봉의 천길 죽음의 나락에
강도 일제원쑤 쏟아넣던
그날의 총성 멸적의 불벼락이

철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
백만대적을 락엽처럼 휩쓸던
그날의 거세찬 열풍이
그대로 실려있는 백두산의 칼바람

가볍게 날아왔다
흔적없이 사라지는 바람이 아니다
우리 수령님의 산악같은 기상
그이를 결사옹위하던
열혈투사들의 서슬푸른 총창들
그것이 간직되어 빛을 내뿜는

무겁고도 뜨거운 백두의 칼바람이여

이 바람이
우리가 늘쌍 호흡하는 공기
우리의 뜨거운 숨결이며
우리 심장의 억세인 박동

그래서 오늘도 이 땅우엔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승리의 공격전에 비호처럼 내닫던
30년대 투사들의 혈맥을 이어가는
무적의 선군대오
백전백승 철의 대군이
대하의 격랑처럼 굽이치고있거니

오, 백두산의 칼바람
이 바람 차넘치는 밀림속에서
나는 오늘
영원한 승리의 상상봉에 오른듯
불타는 이 가슴에 뜨겁게 안아본다

백두의 푸른 하늘처럼 끝없이 열리는
내 조국의 맑고 푸른 창창한 미래를

선군의 나팔소리

—삼지연대기념비 《진격의 나팔수》 군상앞에서—

나팔소리 높이 울린다
조종의 산 백두산이 굽어보는
여기 삼지연 푸른 못가에

총창을 비껴들고
결전으로 노도치는 투사들의 철의 대오
그 진두에서 나팔을 높이 들고
진격으로 부르는 사령부의 나팔수

하늘땅을 진감한다
우렁찬 나팔소리 멸적의 우뢰소리
총이 없어 왜적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이 나라 격노한 아들딸들이
무장을 틀어잡고 결전으로 노도친다

총대로 다시 찾은 조국은
원수님의 해빛속에 강국으로 빛나건만
그래도 오늘도 그날의 나팔소리는
총대의 귀중함을 깨우쳐주나니

총대가 약하여 망국노가 되었던
피어린 수난의 역사를

걸음걸음 순간도 잊지 말라
내 가슴 울려주는 선군의 나팔소리

총대로 찾은 인민의 정권은
총대로만 철벽으로 지킬수 있음을
총대로 부강하는 나라의 행복은
총대로 가꾸어야 영원한것임을
나팔수는 내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거니

내 오늘 여기 삼지연기슭에서
유격대의 나팔수
돌격으로 부르는 나팔소리따라
더 힘찬 진군의 발걸음 떼노라

백두의 혈통을 이어 선군혁명대오를
더 눈부신 승리에로 이끄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영광의 한길로
투사들의 심장에 박동을 맞추노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서—

보통강 사랑의 강이어

리 경 체

그림같이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
거울같은 물면우에 비껴안고
유유히도 흐르누나
락원의 강 보통강

휘늘어진 버드나무가지아래
청춘남녀들 사랑을 속삭이고
은물결 출렁이는 하얀 뱃트우엔
호함진 웃음꽃 피어나는데

흘러가는 물결처럼
생각은 깊어만 가네
이 행복 펼치여준 뜻깊은 력사의 날
못 잊을 그날의 그 기슭에로

해방의 환희로 들끓는 조국땅에
국토건설의 새 력사 펼치시려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던
그날의 어버이수령님

백두밀영숙영지 우등불가에서도
피어린 항일혈전의 눈보라속에서도
사랑하는 고향 만경대와 함께
어느 한순간도 잊은적 있으셨으랴

하기에
수령님 드신 첫삽과 함께

김정숙어머님과 어리신 장군님
만년제방의 석축을 쌓으며
바쳐가신 애국의 후더운 땀방울
그날의 그 사연 전하는 강반

그때부터 그때부터
눈물의 강 원한의 강 재난의 강은 영영 흘러가고
보통강 보통강 사랑의 강은
기쁨의 강 행복의 강 락원의 강으로 흘렀거니

그날의 그 자옥우에
나날이 더 젊어지는 우리의 평양
원수님의 은정 사랑의 전설로 꽃피나는
황홀한 내 조국의 모습 강물우에 비껴흐르거니

아, 그날의 우리 수령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대대로 흐르던 설음을 떠었고
대대로 흘러올 행복을 떠안은
풍치수려한 락원의 보통강반
금수강산 내 조국의 오늘을 떠올리셨으랴

오, 보통강 사랑의 강이어
커가는 인민의 기쁨 대하되여
흐르라 원수님품에 부강할 내 조국과 더불어
사랑의 그 전설을 자자손손 전하며...

가 사

원수님의 밝은 미소

리 명 근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원수님 밝은 그 미소
우리 가슴에 기쁨을 주며 따스히 안겨옵니다
한마음 우러르면 이 심장 뜨겁게 하는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원수님 밝은 그 미소

빛발입니다 빛발입니다 원수님 밝은 그 미소
검은구름도 밀어버리어 강산이 환해집니다

언제나 승리떨칠 신심이 넘치여나는
군민이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원수님 밝은 그 미소

안고삽니다 안고삽니다 원수님 밝은 그 미소
떨어져 못살 해빛과 같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이를 일편단심 끝까지 따르는 길에
영원히 천만심장 불태웁니다 원수님 밝은 그 미소

나의 붓

변 홍 영

내 언제나
가볍게 들수 없구나
붓이여
걸어온 생활의 먼길에
가지가지 체험을 함께 한
나의 붓이여

내 오늘 다시 너와 함께
심장속 진정을 터치고싶나니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친근한 우리의 스승이신 **김정일**동지
그이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우고
시가의 참다운 세계를 깨우친 전사

뜻도 생사도 같이해온 천만리
언제나 우리들을 자신의 곁에
시대의 선도자로 세워주신 그 사랑 그 믿음
붓이여 그 길에서 나는 알았다
내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정녕 너를 가볍게는 들수 없음을

오늘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한한 인간애와 숭고한 덕망으로
우리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시나니

내가 틀어진 이 붓에
얼마나 크나큰 무게가 실려있느냐
너와 함께 가는 혁명의 험난한 길에
얼마나 뜨거운 기대가 따라서느냐

오, 우리 당마크에 빛나는 나의 붓이여
불세출의 선군령장
위대한 태양을 우리러 불타는
내 심장의 열정을 그대로 안고
애국과 충정의 불로 타올라다오
정의와 진리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시대의 거창한 화불로 솟구쳐다오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들고 나아가시는
백두의 붉은기

더 세차게 필력이게 할
그런 노래를 내 짓지 못한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그이의 존함으로 빛나는
선군시대의 자랑스런 사변들과
무수히 태어나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들
세상에 한껏 노래하지 못한다면
내 무슨 붓을 든 혁명의 전사라 자부할수 있으랴

불타자 나의 붓이여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로 날을 세운
번뜩이는 나의 사상의 무기여
이 세상 풍파를 다 헤쳐간대도
오직 그이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갈
천만군민의 결사의 각오와 맹세가
우렁찬 진군가로 이 시대를 뒤흔들게 하라!

내 사색의 한줄기 불빛이
선군혁명을 향도하시는
그이의 예지의 빛발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온몸을 초불처럼 다 태워도 좋다

나의 열정 나의 창조가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백두의 대업에
자그마한 고임돌로라도 놓여진다면
내 한생이 섬광처럼 사라진대도 아쉽지 않으리라

아아, 위대한 령도자의 믿음으로 무겁고
수천만인민의 기대로 뜨겁고
필승불패의 당의 전사된 자각으로 불타는
나의 붓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을 신념없인 쥘수 없으랴
흐려진 량심과 지성으로는 들수 없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만을 따라서 세월끝까지
그이만을 받들어 세상끝까지
내 한생 놓지 않을 붓이여 운명의 무기여
세월의 눈서리에 녹솔지 않을 혁명의 창검이여!



해빛은부신 창문들

김 경 일

1

철이른 봄장마가 질모양 밤새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 랑랑하게 기상나팔이 울리자 비젖은 어둠속에 잠자던 기숙사가 삽시에 고요를 깨쳤다.

층마다 아이들의 재갈거림과 명랑한 웨침소리,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새날의 청신한 활력을 한껏 자아낸다. 중등학교의 첫 일과가 시작된 것이다.

2층복도를 달음치던 한 사내애가 아래계단이 시작된 굽이를 휩 돌다가 누군가와 왈칵 부딪쳤다. 언덕밑에 뿌려진 밤송이모양 메뚜기떼를 곤두박질하였을 아이의 어깨를 잡은것은 과외생활지도교원인 효심이였다.

처녀가 놀라 내려다보니 자기가 과외생활을 맡은 초급반 2학년의 말쑥꾸러기 태흥이가 아닌가. 머리는 총명한테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상성격에 가깝게 의심증이 많은 아이, 이름자가 그래서인지 찍하면 흥, 흥! 코웃음치기 좋아하는 아이.

그래도 복도를 뛰다 덜미잡혔으니 의례 자라목일 줄 알았는데 웬걸, 바로 생활선생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이라도 달려온듯 메밀눈을 깜박대며 갈리게 부르짖는다.

《선생님! 여자호실에서 채순이가 막 읍니다! 자기 새 비옷 없어졌답니다!》

제또래보다 훨씬 감때사납고 능청스러워보이는 총각애의 눈을 잠자코 들여다보던 효심은 그 까만 눈동자에 피곳 어렸다 꺼지는 불만의 빛을 띠어보았다. 어느 순간에 벌써 효심의 불신을 감촉한것이다. 그 눈빛을 본 효심의 뇌리에 문득 이 애의 말이 거짓이 아닐수도 있다는 뜻밖의 생각이 떠올랐다.

거푸시시 엉클린 그의 머리를 비다듬어준 효심은 초급반 2학년 여자호실로 갔다.

올해 설명절과 광명성절, 태양절을 맞으며 원아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넘친 새 교복과

체육복, 신발, 갖가지 당과류에 귀한 산꿀까지 아낌없이 받아안았는데 어제는 비옷과 장화를 가득 실은 차가 학원운동장에 들어섰다.

한시바삐 새 비옷을 입어보고싶은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듯 저녁부터 자오록이 비발이 드리워 애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 비옷을 아침일과때부터 입히려고 학급 네개 호실 벽장옷걸이에 이름표대로 걸어주었는데 없어지다니?...

홀로 방에 남아 쿨썩거리던 처녀애가 효심을 보자 왕 울음을 터쳤다.

얼른 벽장안을 살펴본 효심은 안도의 숨을 쉬며 채순의 오동통한 볼을 가볍게 튕겼다. 아직 산뜻한 하늘색비옷 하나가 걸려있었던것이다.

《아닙니다, 내 비옷은 빨간색... 아니, 분홍색...》
효심은 그의 볼에 맺힌 눈물자국을 살뜰히 닦아주었다.

《누가 헛갈렸지 뭐. 당장은 이걸 입어. 다 들어오면 네 비옷 나지지 않으리.》

채순이와 복도에 나오니 뜻밖에도 태흥이가 잔뜩 골살을 찜그린채 흥흥 코웃음을 내뿜며 서있었다. 효심은 잠전에 편견과 타성으로 태흥이를 영글한 애라고 단정했던 일이 미안해서 발깃한 흥조로 뺨을 물들였다. 살뜰한 손길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짹짹이로 채워진 아이의 비옷단추를 하나하나 바로 채워주었다.

《태흥인 아직 여기서 뭘 해요? 누가 집체일과에 제멋대로 빠지랬어요?》

고개를 외로 꼬아제끼고 찌뿌둥해있던 태흥이가 이새로 내뿜었다.

《흥! 난 안 그랬습니다. 채순이 비옷 누가 그랬는지 난 진짜 모릅니다!》

잠시 갈피를 잃었던 효심은 아연한 미소를 떠올렸다. 사내라 채순이 비옷과 아무 련관도 없거니와 고운 색깔에 혹하기엔 이 애 성미가 지내 터실

터실한것이다.

그래도 제깬에 뒤져려 안달아하는걸 보면 애들을 휘둥해 시내로 새나가고 처녀애들을 올리고 다른 학교 애들한테 시비를 거는 등 온갖 말썽거리의 주인공이 대체로 자기였다는 사실에 다소 수치감을 느끼는것은 아닌지...

효심은 용케 폭소를 누르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금시 속매듭이 풀린 애가 손등으로 뺨 코밑을 문대며 채순이를 시가슬렀다.

《흥! 넌 몸만 똥똥했지 천치바보야. 엉엉 울면 누가 잘두 불쌍해하겠다.》

《태흥이! 어디 함부로 제 동물 모욕해요? 그것도 처녀애를. 사내대장부가!》

태흥이는 울롱하게 메밀눈을 치뜨며 사뭇 분개한 말투로 뇌까렸다.

《난 사내대장부 맞는데 이 앤 내 동무 아님니다. 계집애하구 어떻게...》

《뭐, 뭐예요? 공부 같이하고 한가마밥 먹는 사인데 동무가 아네요? 어쩔...》

비웃듯이 벼죽 입귀를 쳐뜨린 애가 흥! 하고는 마뜩지 않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효심은 기가 막혔다.

몇달전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모교에 과외생활지도교원으로 자진해와서 첫 학급을 맡은 효심에겐 이 태흥이가 제일 숨가쁜 애였다.

본래부터 이런 애였을가? 이제 앞날엔 얼마나 더 비뚤어져나갈가?...

한편 채순의 분홍색비웃은 아침일파가 다 지나도록 나지않았다.

문득 사내처럼 씩씩한 철옥이가 눈에 걸렸다. 누구보다 효심을 따르는 애가 여느때없이 먼산 보는 흉내로 아닌보살하는 모양에 효심은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꼬치꼬치 캐물어 어린 마음에 무안을 주기가 싫었다. 요행 채순이도 하늘색비웃을 입고나서는 더 소란을 피우지 않아 다행이었다.

식당앞에서 남먼저 출근하는 미현선생을 만난 효심이 고개숙여 인사했다.

미현은 효심의 학원시절 수학과목담임이었고 지금은 그가 맡은 학급의 주간담임교원이다. 문득 바뀌어진 채순의 비웃이 생각나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기처럼 심상히 스칠줄 알았던 미현이 뜻밖에도 미간을 찌프렸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 참... 부모얼굴도 모르고 자란 애들이 행복에 겨워 이젠 색깔타발까지... 찾아내서 꼭 버릇을 떼야겠어요.》

내심 혀를 깨물었던 효심은 망설이다가 조심조심 내비쳤다.

《저, 미현선생님, 혹시 물욕보다는... 그저 색에 대한 애착때문에 장난삼아...》

채 애리를 벗지 못한 효심을 피끗 일별하고나서 미현이 산산하게 말했다.

《선생이 철부지들을 지내 어루만지는것 같애. 유년기가정교육도 못 받아본 애들이 태반인데 방심하면 되겠어요? 색깔고운 비웃 슬쩍해봤더니 별탈없더라 하는 배짱이 생길거예요. 후날을 상상하기도 무서워요. 속담에도 바늘도적이...》

효심의 낯빛이 질렸다. 학원출신인 효심이 듣기에 참으로 거북한 표현이었다.

자기가 원아들한테 지내 무르다는 충고 역시 마음에 녹눅한 그들을 던졌다.

(정말 철옥일까?... 하두 담찬 애니 그런것쯤 쉽게 결심했을가?..)

학원에서 과외생활지도교원의 임무는 담임교원들, 과목담당교원들이 맡은 수업시간을 제외한 원아들의 일체 과외생활을 돌보는것이였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가 활기치는 반면에 기숙사엔 아늑한 고요가 깃든다.

덤벼치며 나간 애들의 뒤겨두매를 하던 과외생활학과장 진숙이가 효심을 보자 정찬 미소를 보였다. 효심이 학원에서 자란 6년세월 엄마처럼 따르던녀인이였다.

그에게 수심을 엿보이기 싫어 애써 명랑한 티를 내던 효심은 이내 맥을 놓았다.

그전에 자기의 이런 엇비슷한 시도가 거의나 성공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던것이다.

아닐세라 가늠해보듯 효심의 얼굴을 더듬던 진숙이 담담하게 물었다.

《선생 기분이 좀 언짢아보이는데? 또 태흥이때문에?...》

학과장의 말은 태흥이가 취침시간후에 감쪽같이 사라져 복닥소동이 났던 얼마전의 일을 녀두에 둔 것이였다. 효심도 그날 태흥이를 영영 잃을가봐 까맣게 속을 태웠다. 요행 정문직일근무를 서던 상급생원아들한테 걸려 소동이 멎었다.

태흥이는 학원구내를 벗어나 어디에 가려냈는지 끝내 토설하지 않았다...

효심은 살때살때 도리머리를 하고나서 오늘아침 첫 일파때의 일을 말했다.

《...학과장선생님, 우리 학급에 정말 손버릇 나쁜 애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제가 번번히 못해 미처 가려보지 못하는건 아닐까요?》

효심을 바라보는 진숙의 얼굴에 의혹과 실망의 그늘이 스치듯 엇갈렸다.

《...옛날엔 그랬대, 부모없는 고아는 꼭 손버릇을 꺾힌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고망년적 말에게... 그런 억측이 우리 애들 마음에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될지 생각해봐요. 나처럼 효심선생도 이 학원에서 뼈를 군힌 몸인데 그걸 몰라요?》

이 질책이 효심에겐 가물에 단비였다. 마음에 드리웠던 추가 한결 가벼워졌다.

원아들에겐 뼈가 저린 불신보다는 믿음과 정으로 종아리치는 회초리가 훨씬 아프지 않은줄을 그가 어찌 모르랴!...

퍽 기분이 떠오른 효심은 저도 몰래 아이때처럼

어리광스럽게 몸을 흔들었다.

《정말 속상해요. 꼭 선생님처럼 되려고 맘만 애써야 어디 닮아지나요?》

《쯔쯔, 그저 닮는다는 타령… 날 본다면 내 그림자밖에 더 되겠어?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서 사랑을 찾구 정을 여물구구 모성애도 가꿔내야지. 그래야 애들한테 진짜 우리 생활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될거라구봐.》

효심은 안타까운 한숨을 호— 내쉬고나서 저으기 지친 어조로 뇌었다.

《학과장선생님… 아무래도 나한테 천성적으로 아이들 키울 능력이 없나봐요.… 나 차라리 생활지도 교원 그만두고 학원에서 다른 일감 찾아볼가요?》

진숙은 못마땅한듯 미간을 찌프리며 아래입술을 깨물어보였다.

《누구보다 선생이 더 문제인것 같애. 원아시절 늘 외우던 희망이랑 맹세랑은 어쩌구 벌써 〈차라리 그만두고말가.〉 예요? 내가 제일 믿던 선생이 어쩌면!…》

친팔처럼 아껴주던 그의 질책이 선풍 가슴을 도리며 지나쳐갔다. 고개를 떨구고 발끝을 허비던 효심은 주저앉아 팔꿈에 얼굴을 묻었다.

《잘—해요, 잘해. 그 모양 봐서야 누가 믿겠어? 몇개 학급 도맡아안구두 팔팔 기운이 넘치는 그 멋진 생활선생인줄 말이에요. 썩 그쳐요, 누가 보기 전에!》

효심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선생님! 전 정말 힘들어요! 그동안 제가 몇번이나 몰래 울었는지 아세요?…》

불현듯 누군가 아귀세게 거머쥔 몽둥이로 머리를 후려친것만 같았다.

어마나! 내가 어쩌면! 10년세월 온넛을 다해 원아들 시중해온 선생님앞에서…

진숙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뜰히 효심의 불을 훑쳐주었다.

《효심선생, 하고픈 일 하는 사람은 고된줄 몰라. 나도 그랬지만 선생도 지금껏 부모가 없지만 배고프고 새웃 그리운적 있었어? 안할 말로 친부모래도 우릴 더 잘 키웠을가? 오늘처럼 키워주고 내 세워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 우리 원수님사랑에 보답할 마음은 우리 둘이 꼭갈을거라고 믿어. 그렇지, 효심선생?》

효심은 진숙의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에 젖은 뺨을 묻었다....

수업이 끝나자 다시 학급을 인계받은 효심은 원아들의 점심식사를 보살폈다.

식당에서 효심은 철옥이의 얼굴에 더 짙은 그늘이 진것을 띠어보았다. 지어는 철옥이와 친한 학급동무인 혜연이의 낮에도 어떤 말 못할 근심이 서려돌았다.

알고보니 미현이 종내 참지 못한것이다.

《더 따지진 않겠지만 누군지 취침전에 생활선생한테 죄다 실토하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용서하

겠어요. 철옥이! 선생님 말하는데 어디 창문 내다 봐요?…》

효심은 그럴 제제가 아니건만 잠시 웃음집이 흔들렸다. 만약 미현선생이 팔걸어붙이고 나선다면 제아무리 도담하고 야무진 철옥이래도 얼마나 뻔쳐냈을가?

더 이상한 애는 철옥의 그림자나 같은 혜연이다. 시샘날만큼 친한 이 애들은 교실에서도 한책상에 붙어있고 잠자리도 나란히 했으나 성격과 기질은 판판 달랐다.

철옥은 깔깔 웃기도 잘하는데 독서를 즐기는 혜연인 어쩌다 웃어도 꽃잎처럼 소리없이 웃는다. 철옥이는 잠도 네활개펴고 코숨을 내뿜며 자는데 혜연이는 잠결에 생긋 꿈웃음을 짓다가도 누가 제 꿈속을 엿볼가 겁내듯 요자락에 얼굴을 가리는 애다.

어떤 때 효심이 누군가의 그윽하고 찬찬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면 매번 혜연이었다.

이처럼 내성적인 혜연에겐 철옥이의 고민이 제일만큼 심각한 모양이었다.

잠시간까지도 철옥이 찾아와 눈물코물 뿌리며 실토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원아들은 창밖에 비소리가 소연해도 깊이 단잠에 들었다. 오늘 밤 기숙사근무에 나온 교원이 아픈 기색이어서 효심은 그의 등을 떠밀어 침실에 들여보냈다.

긴 량통식복도를 오가며 가끔 방안에 들어가 잠버릇 세찬 총각애들이 차던진 요자락도 여며주고 까투리처럼 구겨박은 머리에 베개도 다시 베워주었다.

효심이 담당학급인 채순이네 호실에 들어섰다. 잠등의 은은한 불빛에 산뜻이 잠옷을 입고 자는 열두살 처녀애들 모양이 하나같이 귀엽고 복스러웠다. 바로 여기서 흘러간 자기의 소녀시절이 새록새록 눈앞에 밝혀와 금시 마음이 아릿해진다.

졸업후 2년간 헤어져 살 때에도 효심은 휴식날엔 꼭꼭 모교를 보러 왔었다.

선생님들을 만나면 참아온 그리움의 눈물이 터질것만 같아 그냥 담장밖에 서서 자기 체취가 스며있는 체육기재들과 휴식터의 의자들, 잎푸른 감나무들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 가슴에선 심장이 들뛰었다.

아! 그런 날들에 정든 교사며 기숙사의 맑고 투명한 창문들은 눈부신 해별이 칠색무지개빛으로 아롱져 얼마나 유정하게 반짝였던가!...

행복한 시절이었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여매고 시련을 헤치던 나날, 어머니들이 귀여운 자식들에게 거친 음식밖에 먹일수 없어 가슴타던 고난의 나날에도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들엔 흰쌀과 콩기름, 당과류와 피복류가 늘 공급되고 사과, 복숭아를 비롯한 첫물과일들이 원아들에게 향기가득 안겨지곤 했다.

그 천금같은 자양분으로 날마다 뼈를 굳히고 키를 솟군 아이들, 생명의 젖줄기마냥 넘치는 그 다심한 자애와 은정으로 호홉하며 희망을 자래워 만

리대공을 향해 억세게 깃을 쳐간 소년, 소녀들은 그 얼마일까!...

점도록 담장곶에 서있던 그런 때 호심에겐 학원 창문들에 비껴 쏟아져내리는 가다가락 눈부신 빛발들이 그리는 선배들과 후배원아들의 명량한 웃음발 같았고 《호심아! 어서 돌아와!—》하고 부르는 그들의 정다운 손짓갈기도 했다.

저 창문들중에 그때의 내 얼굴, 내 미소, 내 열정이 물들여진 창문도 있으리라!

꿈결같이 흐른 소녀시절과도 작별한 창가, 사춘기의 청신한 열정과 리상이 불꽃처럼 타올라 밤을 새워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조국의 소중함을 뼈와 넋에 새길 때 별빛이 내려 반짝이던 창가!

학원은 감상적인 소녀의 애잔했던 추억만이 아니었다. 때어낼수 없게 운명으로 얽혀진 삶의 뿌리이자 쉽없이 갈망해온 새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리도 불가사의한 정과 친화력에 끌려 호심은 그후 더 좋은 배치지를 끝내 사양하고 모교로 자진했다.

사실 원아들의 과외생활지도가 험치 않은줄 그가 왜 모르랴!

호심은 일찌기 부모없는 자기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행복속에 키워주시고 마음껏 공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몸과 넋을 다 바쳐 보답하고싶었다.

또 지금껏 많은 선생들이 기울여준 육친의 정은 얼마나 자심하고 지극했던가!

언제부터였던지는 딱히 알수 없어도 자기가 받아온 사랑과 정성을 꼭 후배원아들에게 되돌려주고싶은 열망이 깊은 호수마냥 출렁이며 호심의 마음기슭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 나날 호심이 희망과 공상속에 늘 그려보던 앞날의 자기 모습이 바로 진숙이처럼 다심다정하고 세련된 과외생활지도교원이었던것이다.

2

밤깊어 다시 철옥이네 호실에 들어선 호심은 잔잔한 숨결들이 어우러진 방안의 고요속에 실낱같이 떠도는 어떤 불협화음을 감촉했다.

좀더 다가서자 괴롭게 몸을 꼬부린 혜연이가 눈에 젖었다.

급히 주저앉아 학창때 진숙이 늘 그랬듯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부터 대보았다.

아닐세라! 체온이 39도아래는 아닐것이다. 손맥도 어지럽게 뛰었다.

늘 넣고 다니는 체온기를 애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다급히 생활교원실에 달려가 구급약함을 가져왔다. 애를 안아서 바로눌히는데 온몸을 떨고있다.

《혜연아, 잠들지 못한줄 아니까 눈떠보렴, 응?》

캄파를 놓고 해열제를 먹였다. 이런 때엔 양성소 시절 밤새워 피나게 독학한 약학지식이 은을 낸다. 물론 학원에 원아들의 건강을 지켜 밤에도 직일의 사가 자리를 뜨지 않는 진료소가 있지만 때로 구급

처치가 꼭 필요한 정황도 없지 않았다.

전문의사를 방불케 하는 솜씨로 자기들을 치료해주던 진숙의 모습을 늘 보아온 호심은 생활교원의 구급처치능력이 얼마나 요긴한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다시 체온기를 쫓던 호심은 문득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참! 혜연이한테 이런 일이 있을줄 내가 왜 예견하지 못했담?...)

오전수업후에 기숙사창가에 다가선 호심은 건너편 교사앞에서 운동장을 살피던 한 애가 갑자기 장화를 벗어드는것을 보았다.

《어마, 저 애가...》하는 새에 분홍색비옷을 입은 애는 비물을 찰박찰박 차뿌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온다. 황급히 달려나가보니 뜻밖에도 혜연이었다.

《너 정신있니? 왜 맨발이야? 새 장화가 새길 하니, 어찌니? 당장 신지 못해?》

황황히 장화를 신으려던 애가 손바닥으로 어지러워진 발을 문대기 시작했다.

호심은 손수건을 꺼내 그의 발을 훑쳐 장화에 밀어넣어주었다.

혜연이의 손을 잡고 기숙사계단을 오르며 호심은 조용히 물었다.

《장화가 꼭 맞지? 그럼 왜 그랬니?... 혜연이 새 장화 처음 신어보지 않지? 아버지장군님께서도 우리 원수님께서도 해마다 보내주셨지? 네가 오늘 맨발로 비내리는 길을 걸은걸 아시면 원수님께서 제일 가슴아파하셔. 알았니?...》

이윽히 호심을 울려다보던 혜연이의 눈가에 불현듯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호심은 이름 못할 충동에 겨워 아이를 따듯이 품에 싸안았다.

그런데 그때 이미 혜연의 몸에 독감기운이 스며든것이 분명했다.

열은 인츰 떨어질줄 몰랐다. 꼭 안아주면 눈을 떴다가도 맥없이 감아버린다.

가쁜 숨결속에 간간이 잠꼬대같은 헛소리도 새어나온다.

차도가 없는게 아닐가? 이제라도 업고 진료소에 뛰어갈가?

만약 당에서 것처럼 소중히 아끼고 보살펴주는 원아들중에 사소한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호심은 맑은 하늘을 향해 머리쳐들 자격을 잃게 될것이다.

요행 잠시후 품에 안은 아이의 숨결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다. 이제야 약기운이 올랐는지 체온기의 눈금도 떨어지고있었다. 호심은 안도의 숨을 후내쉬었다.

혜연이가 말없이 호심을 울려다보다가 가늘게 속삭였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만 더 안겨있어두지요?... 야— 좋아, 선생님항기!... 우리 엄마항기도 꼭 이랬을것 같아요...》

효심은 짜릿한 마음의 파동을 감추며 짐짓 어이 없는 표정을 지어보았다.

《아이고— 된감기에 코가 짝 메가지구두 향기는 무슨… 열 좀 보자.》

아이를 편하게 눕히고 다시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목에 내뿜 땀을 닦아주었다.

《시원하지?... 선생님 밤새 옆에 앉아 땀 씻어줄게. 이제 잠들어봐.》

혜연은 호심처럼 맑고도 깊은 눈매로 효심을 쳐다보다가 속삭였다.

《제가 낮에랑 선생님 얼마나 만나고싶었는지 압니까?...》

《왜?! 그때부터 아팠니? 아유— 맹꽁이! 선생님한테 빨리 말했어야지!》

불현듯 혜연이가 핑 샘솟는 눈물빛을 팔굽으로 가리며 숨차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채순동무 비웃... 제가, 제가 입었습니다!...》

효심은 아연실색했다. 온통 갈피끈을 놓치고 망연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깊은 밤, 물목이 터진듯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애를 다독여 잠재운지도 이속했다.

어이가 없었다. 어제 밤 분홍색비웃이 탐나 몰래 등이 단 애가 이 혜연일줄은!...

잠자리에서 혜연이가 꼭 분홍색비웃을 입고싶다고 고백하자 철옥이는 제가 술선 비웃을 바꾸어주려고 벽장에 다가가었다.

그런데 덤비다나니 제 비웃대신 옆에 걸린 채순이의 비웃을 벗겼던 것이다.

아침에 생각없이 비웃을 떨쳐입고 밖에 나와서야 애들은 비명을 삼켰다. 자기들의 두 비웃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분홍색비웃이 아닌가!

뒤따라 나온 채순이한테서 사연을 들은 혜연이 비웃을 벗기 시작했다. 아무리 입고싶어도 미리 약속되지 않은 동무의 비웃을 그냥 입을수가 없었다.

이때 채순이가 오히려 싫다고 도리질해 처녀애들은 즐겁게 깔깔 웃어버렸다...

효심도 가슴이 후련했다. 이제는 미현선생도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둘 것이다.

뜻밖에도 혜연이는 말할줄 모르는 애가 아니었다. 그가 풍부한 표현력으로 도란도란 씩없이 속삭일 때 효심은 한순간 세월이 뒤로 되돌아가는 듯 싶었다.

애육원이나 학원시절의 자기처럼 연분홍진달래빛을 좋아한다는 아이!...

하지만 혜연이는 자기가 왜 분홍색을 제일 좋아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혹시 나처럼 추억속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창가에 다가선 효심은 비물이 흐르는 차가운 유리에 꼭 이마를 댔다. 산뜻한 기운이 짜르르 뒤덜미로 뻗쳐간다, 오래전 애육원시절의 그 봄날 아침처럼...

해마다 봄계절에 나라에서 애육원 처녀애들에게 꽃리본, 꽃빈침을 보내주었다.

생활교양원이 거울앞에서 효심의 머리를 곱게 빗아주고 진달래빈침을 이쁘게 꽂아주고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효심은 찬 유리에 이마를 댔을 때처럼 가슴이 쫄 올랐다. 너무도 뜻밖에 거울속에서 감감 잊고있던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이다.

대체 몇살때였을까?... 안경끈 아버지가 그를 꼭 껴안고 랑볼에 입맞추어주더니 새 머리빈침을 꺼냈다. 효심은 깜찍한 꽃무늬빈침을 보자 야!— 손벽을 쳤다.

아버지는 웃으며 그 빈침을 효심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그제야 효심은 그때의 머리빈침이 방금 선생님이 꽂아준 빈침처럼 분홍색이였음을 알았다. 그후 이 머리빈침은 효심이 제일 좋아하는 애용품이 되었다...

누군가의 잠꼬대소리에 효심은 사연깊은 추억에서 깨어났다. 혜연이한테 다가가 다시 이마에 입을술을 대보니 열이 다 내려 기분 좋게 산들했다.

효심은 분결같은 뺨에 귀엽게 볼우물이 패인 혜연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단 하루사이에 성큼 다가온 아이!... 그러나 효심은 이슬진 꽃잎처럼 청초하고 영민한 이 애가 자기 가슴에 얼마나 더 깊이 스며들어올지 알지 못했다...

돌도 큰다는 5월장마가 걷히자 운동장의 자연잔디도 한결 파르스름해졌다. 건듯 들린 아침하늘엔 하얀 명주필이 풀려난듯 띠구름 몇자락이 고요히 떠흐른다.

효심은 담요들을 건조대에 내다닐다가 진숙이와 아침인사를 나누었다.

진숙이도 일찌기 급병으로 량부모를 다 잃고 애육원과 학원들에서 자랐다.

하지만 효심보다도 아득히 선배였고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다년간의 교육실천속에서 알차게 능력과 자질을 다져온 오랜 교육자였다.

《참, 보도 들었지? 우리 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 찾으신 소식.》

《네, 듣지 않구요. 선생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님들의 녀원이 짓든 야영소를 세계적인 아이들 궁전으로 개건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셨다지요?...》

《그래요.》

《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선생님, 우리 고향엔 참 자랑도 많지요?》

하지만 이 순간 진숙이도 효심도 그 송도원국제 소년단야영소에서 어떤 눈부신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게 될지 천분의 일조차 상상할수 없었다...

낮잠시간에 애들의 잠자리를 보살핀 효심은 과의 교양편집물때문에 원격교육실선생을 만나러 교사로 갔다. 원격교육실이 있는 2층에서 효심은 복도 반대편의 어느 문가에 바투 붙어 안의 동정을 살피는 사내애의 뒤모습을 띠어보았다.

그 모양에 무심히 시선을 준채 다가서던 효심은 흠칫 놀라 멈춰섰다.

(설마! 아니, 어쩌면!... 아닐거야. 방금전에 태홍이가 제 잠자리에 의젓하게 누워 가랑가랑 코까지 고는 모양을 이 눈으로 한참이나 지켜보다 나왔는데 뭐.)

고양이 반찬단지 노리듯 아이가 온 신경을 빼앗긴 방은 정보기술학습실이었다.

효심이 숨소리마저 죽이고 다가가는데 의외로 감각이 예민한 애가 번개같이 획 고개를 돌리는 서슬에 효심은 제가 먼저 와뜰 놀랐다.

그리고 다음순간엔 처음보다 더 놀라 《어마나!》하고 외마디비명을 질렀다.

《아니, 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설마 우리 태홍이랑 쌍둥인 아니겠지?》

애도 어마지무 놀랐으련만 오히려 효심보다는 몇배나 재빨리 수습한 모양 늘쑹 즐기는 꼬마랑갸티로 코살을 찡그러뜨리며 되알지게 시까스르기까지 했다.

《흥!... 내가 쌍둥이면 선생님두 우리 생활선생님하구 쌍둥이나요?》

효심은 가시도치갈다가도 재롱둥이 남동생갈기도 한 이 애와 은근히 싱갱이를 벌릴 때마다 눈물도 폭소도 용케 이겨냈으나 더 참지 못하고 호호 웃어버렸다.

《그런데 왜 몰래 잠자리를 빠져나와 여기 왔어요? 선생님까지 속이면서, 응?》

태홍이는 외국말을 듣는듯 짐짓 어리둥절한 표정을 띠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지금이 무슨 시간이에요? 어서 호실에 돌아가요.》

여느때엔 말끝이 여물기도 전에 마른땅에 이슬비 찾아들듯 홀연 사라졌을 애가 웬일인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멀어져갔다.

저 애가 여기 왜 왔겠을까?... 이 방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설까?

효심은 서글피 미소하며 고개를 저었다. 요전번 미현이 해준 충고가 떠오른다.

《손에 짝 옥여줘두 새는게 미꾸라지지. 그뎨 손바닥에 깔깔한 모래 잔뜩 발라야 돼. 그럼 미꾸라지 아니라 미꾸라지원종같은 태홍이래두 어딜 빠져. 좀 되게 다뤄봐요. 생활교원손탁이 매끈하고 나긋해선 저런 애 줘에 건어워지 못해.》

효심은 여전히 쓸쓸한 미소를 띠며 하얗고 말큰한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다음날 점심이 갓 지난 참에 효심은 진숙을 찾아갔다.

《학생도서관에 새 아동소설집이 나왔답니다. 제가 혜연이 데리구 잠깐...》

진숙은 글을 쓰던 원주필을 내려놓으며 길게 허리를 폈다.

《우리 혜연인 정말, 아마 학원도서관엔 그 애가

못 본 책이 거의 없을거야.》

효심은 제가 칭찬을 받은듯 기쁨의 흥조를 떠올렸다. 혜연이가 준비하고 나올 동안 효심은 초급반 1학년 처녀애들이 깔깔대며 공놀이하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한 애의 머리빈침이 정오의 해빛에 유난히 반짝거렸다. 그러자 문득 애육원시절의 잊지 못할 그 꽃무늬머리빈침이 또다시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그때 애육원을 찾는 사람마다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원아들모습에 눈물을 머금었다. 효심이 귀엽게 나풀나풀 춤추면 누구나 똥똥 안아주었다.

효심은 늘 진달래빈침을 꽃고 어른들앞에 나섰다. 그는 똑같은 빈침을 사주었던 아빠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언제든 안경끈 사람이 분홍색빈침을 보면 《효심아!》하며 안아 입맞춰줄 날이 오리라고 얼마나 즐겁게 상상하곤 했던가!...

《선생님!-》하고 찾는 청량한 웨침소리에 뒤돌아본 효심은 놀랐다.

향기처럼 웃음을 뿌리며 달려오는 아이!...

《네가 뛰어오는걸 참엔 철옥인줄 알았구나. 학과장선생님이 널 칭찬하셨어, 이젠 못 읽은 책이 없다고. 우리 혜연이가 칭찬받으니 선생님도 정말 기뻐.》

혜연이는 깊숙이 고개를 수그러 쑥스럽고도 행복에 겨운 미소를 감춘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혜연이가 살짝 효심을 돌아보았다.

《선생님, 도서관에 가면 컴퓨터상식같은 책두 빌렸으면 좋겠습시다.》

효심이 《너 컴퓨터도 좋아하니?》하고 묻자 혜연이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저, 선생님, 철옥이가 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지 압니까?... 날씬한 몸매랑 이쁜 얼굴이랑... 어릴 때 본 엄마같답니다.》

철옥이가 유치원에서 애육원에 편입한줄은 알았어도 그런 사연은 뜻밖이었다.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걷던 효심은 또다시 혜연이의 그윽한 시선을 느꼈다.

《앤, 앞을 보고 걸어야지 그러다 넘어지겠어. 무슨 말 하고싶어서?》

빨개진 얼굴을 숙였던 아이가 호- 한숨을 내구더니 끝내 마음을 터놓았다.

《전 얼굴 몰라서 꿈에서두 엄마를 한번도 보지 못했었는데... 왜 그런지 선생님만 보면 철옥이처럼 가슴이 막... 전 우리 엄마도 선생님같았으면 하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처음 엄마를 찾았는데... 그때야야 전 엄마가 선생님하구 똑같은 걸 알구선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효심은 뜻하지 않은 고백에 후두둑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였구나! 엄마의 얼굴과 비슷하다고 애써 믿으며 남몰래 나를 바라보던 아이, 매번 무심한

내 눈길에 부딪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종내 꿈에서나마 엄마얼굴을 찾은 아이!...

아, 입밖의 웨침보다 더 뚜렷한 그 눈빛의 속삭임마저 가려들지 못한 내가 무슨 원아들의 파괴생활과 가정적인 저녁생활을 돌보는 어머니란 말인가!

효심은 새삼스럽게 혜연이를 내려다보았다. 요즘에야 그는 철옥이가 엉뚱하고 기발한 표현들을 거의나 혜연이한테서 배운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니 혜연이는 깊이 묻힌 자기 개성의 빛과 향기를 남몰래 철옥이와 나누어온것이다.

아동소설집과 컴퓨터참고서를 빌려가지고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효심은 혜연이의 또 다른 실토정에 다시한번 크게 놀랐다. 제 엄마가 생전에 입혀준 분홍애기저고리를 본 기억을 가슴에 묻고사는 혜연이!

그가 육아원을 떠나던 날 그를 키워준 보육원이 낡은 애기옷을 보이며 뜻밖의 사연을 말했다. 그때 너무 어려 혜연은 크게 감동을 몰랐으나 한번 뇌리에 새겨진 그 옷과 어머니가 사랑했다는 분홍색이 좀체로 잊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묘한 일치인가! 추억의 뚝배기는 또다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른다...

효심은 부모있는 애들의 치레거리가 부러울세라 나라에서 보내준 리봉과 빈침중에서 아버지가 사준 것과 같은 진달래머리빈침을 몹시 아꼈는데 여름날 송도원모래밭에서 뛰어놀다가 그만 떨어어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효심은 여름철에 해변가의 모래밭을 걸을 때면 그 작은 빈침이 반짝뜨일것만 같아 자꾸만 발밑에 눈이 갔다...

효심은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가물가물 서러오르는 상념들을 애써 쫓으며 혜연의 손목을 꼭 잡아쥐었다. 가까이 보이는 학원의 교사와 기숙사의 창문들에 초여름의 해별이 담백 어려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창문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효심의 얼굴에도 샘솟는 기쁨과 행복의 노을빛미소가 붉게 어렸다.

3

효심은 말미를 얻어 혜연이의 옛 보육원을 찾아 육아원으로 갔다.

보육원이 해준 이야기에서 혜연의 기억에 남은것은 《네 엄마만 좋은분이였대.》하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보육원이 작아지고 남아 더 입지 못할 애기옷을 그때까지 간수했던걸 보면 필경 그 《좋은 엄마》에 대해 더 알고있는것이 분명했다.

효심은 바로 그 사연을 알고싶어 떠난 걸음이었다.

역시 시내중심에 있는 육아원에 인차 도착한 효심은 그 보육원을 쉽게 만났다.

《우리 혜연이 생활선생이에요? 너무 애꿎어보이더라니... 폴라봐서 미안해요. 다시 보니까 얼마전에 먼발치서 얼핏 봤던 기억이 나는군요.》

《저를요? 혜연일 보러 오셨겠습니까? 그럼 제가 왜 몰랐겠을까요?》

《아니예요. 불일이 있어 들렀던 길에... 그래도 매해 몇번씩 찾아가 춤추고 노는 모양이랑 보곤 했는데 올핸 얼마나 바쁜지 겨우 한번밖에 못 가봤어요.》

《이젠 오시게 되면 저를 꼭 먼저 찾아주세요. 네?》

웬일인지 보육원은 어설픈 미소를 지어보였다.

《애가 탈없이 크면 그만이에요. 내 얼굴 기억이나 할까? 벌써 8년세월이...》

《어마나! 그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셨습니다까? 아니, 어쩔...》

《내가 매번 얼굴을 보였다면 혜연인 애육원이나 학원들에서 새 선생님들께 인차 마음을 붙이지 못했을거예요. 헤어질 때 아이가 무척 괴로워했거든요...》

《네... 혜연이가 정이 깊은 앤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에야 겨우... 며칠전에도 저에게 육아원선생님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어리겠지요 뭐.》

보육원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말없이 눈굽을 찍고나서 조용히 말했다.

《혜연이가 왔을 때 난 보육원학교를 갓 나온 애송이였어요. 어째선지 혜연인 엄마란 말을 모르더군요. 원래 몰랐는지, 잊었는지... 힘들게 엄마란 말을 배워주었는데 그 어런게 글썽 내게서 눈길을 떼질 못해요. 그냥 지켜보다가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엄마! 하군 그냥 기다리다 또 엄마!... 종일 열번, 스무번 찾는데 매번 내 시선을 붙잡자니 얼마나 애간장이 말랐을까요...》

효심은 것처럼 자기를 애타게 바라보던 혜연의 사연많은 눈빛이 떠올라 전률과도 같은것이 짜르르 가슴벽을 훑어내렸다.

《한동안 그제 재미나 웃었지만 나중엔 짜증이 났어요. 참다못해 그만두지 못해! 내가 언제 네 엄마야? 하고 소릴 쳤군요. 그래도 그 앤 또 엄마!... 그때 난 그 눈에 비친 실망과 슬픔에 필쩍 정신이 들었어요. 난 애한테 미안해서, 부모들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아이를 불안고 울었어요. 후엔 아무리 귀애했어도 아이 눈에 비졌던 그 실망, 그 서러움다 가셔주었을까요?...》

눈물은 효심의 볼을 타고도 흘렀다. 그는 괴로와하는 녀인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누군들 후회가 없겠습니까. 첫걸음엔 저한테도 벌써... 그래도 선생님은 애한테 친어머니를 남겨주셨지요. 엄마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색갈두요.》

이윽히 말이 없던 보육원이 얇게 포갠 보자기를 효심의 무릎에 올려놓아주었다.

보자기를 풀던 효심은 저도 몰래 《어마나! 이견...》하고 탄성을 뿜었다.

며칠전 혜연이에게서 들은 그 애기옷을 현실로 보면서도 차마 믿기 어려웠다.

육아원을 나선 효심의 귀전에 그 보육원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렸다.

《혜연이가 여기 온 날 분홍저고릴 입은 모양이 얼마나 귀엽던지. 처음엔 몰랐는데 후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어요.》

처녀시절부터 방직공장의 혁신자였던 혜연의 어머니는 치명적인 병진단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픔을 숨기고 하루도 일터를 떠나지 않은 그 여인은 1년분 천생산과제를 몇달이나 앞당겨 수행하고서야 기대열에 쓰러졌다고 한다.

눈을 감기 전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애기저고리를 지어 이제 엄마를 영영 잃는것도 모르고 캐득거리는 세살짜이 딸에게 그 옷을 입혀주었다....

《난 그 옷을 혜연이한테 꼭 남겨주고싶었어요. 부끄럽지 않게 한생을 살다가 간 훌륭한 어머니의 마지막체취가 스민 옷이거든요.》

효심은 물날은 분홍옷을 보물처럼 품어안고 정든 삶의 보금자리인 학원구내에 들어섰다. 아침햇빛에 반짝이는 눈부신 창문들, 미풍에 가볍게 실레이는 휴식터의 감나무잎새들, 울타리를 따라 뿔기뿔기 피어난 갖가지 꽃송이들의 청초한 자태며 운동장의 새파란 잔디, 창문이 활짝 열린 교실들에서 랑랑히 울리는 글소리와 명랑한 노래소리, 열띤 축구경기를 벌리는 고급반 원아들의 씩씩한 모습...

눈에 비쳐드는 모든 풍경이 이날따라 더욱 풍만하고 유정해보였다.

우리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는 땅, 그들이 희망과 소원의 열매를 무르익혀기를 펼치고 날아오를 고마운 조국의 푸른 하늘!...

효심은 혜연이를 교원실에 데려와 그 옷을 말없이 보여주었다.

놀랍게 옷을 쓸어보던 혜연이가 끝내 눈물을 머금었다. 친엄마의 꿈과 소원이 스민 옷, 어머니의 마지막사랑이고 축복인 옷을 다시 보게 될줄은 몰랐으리라!

하지만 효심은 그 눈물속에 또 다른 의미도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나날들이 흘러 까막까치도 머리를 뎀다는 처서 무렵이었다.

땡벌이 내리찍는 한낮때 효심은 에스키모 두바께 찌를 타들고 기숙사에 왔다.

학급 네개 호실에 시원하고 향긋한 과일향에스키모를 끌고루 나누어주었다.

온 여름 나라에서 원아들에게 보내주는 얼음보송이며 에스키모를 매일같이 먹어도 여전히 맛나게 먹는 애들 모양을 즐겁게 지켜보던 효심의 낮빛이 서서히 질렸다. 어느 방에서도 태흥이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떠오른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총총히 호실에 다그쳐가 물으니 누구도 행방을 몰랐다.

사색이 되어 온 기숙사와 교내를 다 찾아봐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요즘 들어 마음을 안착하고 지곳은 장난질과도 거의 인연을 끊은 태흥이었다.

비록 무성한 풀숲에 가냘프게 뻗어간 오솔길같아도 효심과 태흥이사이에 마음의 길이 트이여 조심조심 맥이 흐르기 시작했었다.

간혹 굴우물같이 깊직한 태흥의 마음속 비밀들이 장마철 구름자락 들춰지듯 잠깐씩 엿보일 때면 효심은 너무도 반가와 남몰래 기쁨에 찬 미소를 짓곤 했다.

태흥이가 달라지기 시작한것이 언제부터일가?...

효심은 몰랐다. 봄비 내리던 아침 덤벼치며 짹짹이로 채운 비웃단추를 자기가 하나하나 바로 채워줄 때 선생님의 그 향긋한 체취며 나긋하고 부드러운 손길에서 태흥이 불현듯 살뜰하고 다심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는것을....

진숙이나 미현에게도 태흥이가 점점 몰라보게 달라져간다고 기쁨에 넘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번에도 구내를 빠져나갈건가?...

효심의 마음에 싹터나던 그에 대한 믿음이 찬서리를 맞아 시들어졌다.

억이 막히고 맥이 풀린 효심이 까맣게 질려 어쩔바를 모르자 퇴근도 못하고 함께 태흥이를 찾아헤매던 미현이 효심에게 호된 질책을 려발했다.

《재미난 꼴에 범났지, 범났어. 범이 새끼치기 좋게 애머리에 가득 풀뒀볼 키워준게 누구예요? 요새 뭐나 다 잘한다고 어자어자 엉치틀 두드려주더니 종시 그 엉치에 타래뿔이 돋쳤지요? 내 오늘 열밤을 패서라도 꼭 찾아내 정신 번쩍 들게 닥달할테니 선생은 애초에 얼굴 보이지 말고 멀찍이 물러나있으라요.》

땡칫 서버린 효심은 물끄러미 미현을 쳐다보았다. 그의 기질이 얼마나 도담스럽고 땡짹지 잘 아는 효심은 제가 먼저 속이 후둑거렸다.

《저... 미현선생님, 설마 애한테 매까지는 아니겠지요?...》

《이봐요 선생, 회초리밑에 효자난됐어요. 친부 모래두 귀한 자식일수록 매없이 키우진 못해요. 이런 땡 강한 물리적자극이 명약인줄 몰라요? 선생처럼 그런 애들까지 밤낮 어루쓸다간 어느 웅이에서 또 못된 가지가 빠져날지 알겠어요?》

효심은 차마 항변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부르짖었다.

(선생님! 이제까지 안하던것을 왜요? 매가 약이 되는 애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태흥인 아니예요. 아시지만 저도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들에서 뽀 한대 맞은적 없이 행복하게, 똑바르게만 자랐어요. 제가 말은 애들도 그렇게 키우고싶어요!...)

효심은 깊은 숨을 쉬고나서 안타까움과 노염이 얼크러진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태흥이한테 완력이 통하지 않을겁니다. 그런 애한테 회초리가 어린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생 상처가 아물지 않을...

다 제가 똑바로 돌보지 못해 생긴 일이에요. 다시 한번 믿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저으기 놀란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던 미현이 얼마간 타협조로 말했다.

《이 선생 원아때처럼 성질이 그냥 명주고름인줄 알았더니… 글썽 아픈 때로 키우지 않은 애가 후담에 무슨 사람구실 하겠는지… 하여튼 찾고보지요. 대체 어딜 갔을가? 옥박아대든 선생이 좋은 말로 타이르든 찾아야 어찌지 않아.》

한결 누그러진 미현의 태도에 저으기 놀랐던 효심은 뜻밖에도 이름할수 없는 충동에 겨워 탄력이 느껴지는 옛 선생님의 어깨에 스프르 뺨을 묻었다.

《고마워요, 미현선생님!…》

기숙사에 들어온 효심은 태홍이네 방이 있는 2층 복도끝에서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며 서있는 혜연이와 철옥이를 띠여보았다. 애들이 당황해하는 모양이 이상스러웠다. 두 아이의 눈가엔 어떤 불안감과 죄스러움이 비껴있었다.

문득 효심은 뜻밖의 예감에 마음이 죄여들었다. 얼마전 혜연이와 함께 가서 빌린 컴퓨터상식책을 태홍의 베개밑에서 발견하고 놀랐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혜연이만 데리고 교원실에 들어온 효심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혜연아, 난 네가 솔직한 앤줄 믿어. 말해주렴. 난 태홍이가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알고있지? 만약 모른다면 선생님은 내가 정말 모른다고 믿을게, 응?…》

황황히 도리질하거나 혹은 자책감에 고개를 숙일줄로 어렵짐작했는데 혜연이는 그 연하고 선명한 눈길로 이윽히 효심을 바라보더니 문득 나직이 속삭였다.

《압니다, 선생님. 태홍이가 어데 갔는지…》

효심은 불시에 매시시 다리땀이 풀려 비칠거렸다.

혜연이와 함께 거리에 나섰다. 해안광장쪽으로 휘어진 길에 접어들었다.

혜연이가 효심을 이끌어난 곳은 뜻밖에도 불야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해안유희장이었다. 바로 이 유희장의 전자오락장에 태홍이가 있다는 것이다.

효심은 인차 태홍이를 찾아냈다. 비슷한 또래들이 소꿉친구들마냥 어깨를 비비대며 붙어앉아 활극영화를 런상케 하는 전투오락에 빠져 연방 소리를 질러댄다.

대체 무슨 애들일가?… 불시에 깨도가 되었다. 이전에 태홍이 밖에서 티각거리던 다른 학교 애들 일 것이다. 아이들 특유의 재빠른 관찰력으로 서로 사내다운 기질을 발견하자 곧 친해져서 지금껏 못내나는 우정의 노끈에 매달려왔으리라.

이들이 하는 오락은 서로 국부망으로 연결된 컴퓨터로 벌리는 지능오락프로그램이었다. 태홍이가 다른 애들과 크게 차이없이 마우스와 건반을 다루

는 솜씨에 효심은 까무라칠듯 놀랐다. 태홍이는 분명 이곳의 생동이가 아니었다.

매번 다른 애들한테 업혀 이런 오락을 하자니 땀 뺀 자존심에 굴욕감인들 오죽했으랴! 송도원에 수영수업가는 날 넣어준 용돈마저 돌아와선 그대로 자기 손에 슬며시 쥐여주던 아이. 효심이 언짢아나 무람하면 《바다물에서 노느라고 에스키모 사먹을 새도 없었는데요 뭐, 선생님.》하며 씩 웃던 아이가 얼마나 고심겹게 그 순간들을 겪었을지 효심은 가슴저리게 알아차렸다.

효심은 태홍이가 뒤돌아보기 전에 혜연이의 손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왔다.

보슬비 내리는 마당의 의자에 앉아 오래오래 묵묵히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오락장의 봉사가 끝나서야 밖에 나온 태홍이 흠칫 놀라 굳어졌다. 젖은 의자에 앉아 있는 생활선생님과 혜연이를 본 것이다. 혜연이는 얼마나 지치고 곤했던지 선생님의 한쪽어깨에 맥없이 머리를 기댄채 쪽잠에 들어있었다.

태홍이 달음쳐왔다. 효심앞에 주저앉아 푹 젖은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선생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선생님!…》

효심은 눈매가 땀짜고도 별빛같이 초롱초롱한 애의 머리를 정깊이 쓰다듬었다.

《우리 태홍이 그런 컴퓨터애호간줄 몰랐구나. 선생님 태홍이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좀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건데… 하지만 너무 컴퓨터오락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될가?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손해나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보렴, 귀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선생님들이랑 동무들이랑 고생시키고… 그동안 좋은 애가 되려고 애쓴 보람도 다 엉망이 됐지?… 이제부터라도 실속있게 컴퓨터를 배우자. 그래서 앞으로 꼭 프로그래밍수가 돼야지?…》

이튿날 효심은 원격교육실을 책임진 교원을 만나 태홍이를 컴퓨터소조에 받아들여 키워줄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마침내 태홍이가 소조에 가는 날 컴퓨터소조에들이 부럽다는 눈치를 한번도 엿보이지 않던 애가 얼마나 기뻐 날뛰던지!

행복에 겨운 효심의 고운 눈가에도 가랑가랑 눈물이 맺혔다.

한해가 지났다. 2014년 새 학년도가 갓 시작된 4월 어느 일요일이었다.

원아들이 텔레비존도 보고 뛰놀기도 하는 초저녁시간에 효심은 혜연이네 방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아직 세찬 장난기를 다 못 버린 태홍이가 갈껌질하다 짜먹은 바지가랭이를 꿰매고나서 채순의 옷을 손질했다. 채순이는 자꾸 허리가 굽어져 지난 가을 새로 타이은 교복치마며 운동복 허리단을 또

늘려주어야 했다.

고개를 드니 언제 목욕을 끝냈는지 머리결에 윤채가 흘러 더 생신해진 혜연이가 구석쪽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있다.

갑자기 복도가 소란해지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뺨이 여름파리보다 더 빨갛게 익은 철옥이가 새처럼 날아들었다.

《선생님! 우리 목욕탕 최곱니다. 전 목욕하고나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옐, 언젠 통닭구이 먹을 때가 제일 좋다구 하구선. 또 요전날엔 뭐랬더라?》

혜연이가 슬쩍 덧장단을 쳤다.

《선생님, 철옥인 외국어시간 말고는 아무때나 기분이 제일입니다.》

효심은 웃었다. 잠시후 철옥이 혜연이곁에 앉아 손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혜연아, 요즘 내 얼굴 달라지는것 같지 않니? 매끼 물고기반찬 먹으면서부터 말이야. ... 너도 얼굴 좀 봐.》

미심쩍게 손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던 혜연이가 놀라게 부르짖었다.

《어마나!— 내 살결두 뽀아졌어!》

효심이 잠시 애들을 지켜보다가 조용조용 말했다.

《왜 살결이 맑아지지 않겠니. 너희들도 봐줬지? 비바람이 세찬 날 어로공아저씨들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 영상... 원수님께선 부모사랑 모르고 자라는 우리 원아들에게 매끼 물고기를 먹여야 마음이 좀 풀리겠다고 하셨대. 아마 너희들 이젠 맛좋은 물고기란 물고기 다 먹어봤을거야. ...》

고마움에 젖은 아이들의 눈시울이 발깃해졌다.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동안을 두었던 효심은 슬쩍 철옥이를 스쳐보곤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공부랑 더 잘해야지 뭐. 그런데 철옥인 어제 외국어시험 3점이 뭐니? 그런 점수 맞고도 잠이 오던? 전에 혜연이가 단어 하나때문에 5점 못맞은게 분해 밤새 공부한걸 알지? 아버지원수님께선 너희들 성적중에 강성조선의 앞날이 그러진다구 것처럼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철옥이는 대번에 얼굴이 빨개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시간이 흘러 효심이 바느질을 마감짓는데 문득 철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혜연아, 너한테 무슨 애기웃이 다 있니?》

혜연이 문결의 벽장에 가서 정돈하는 사품함을 철옥이가 기웃해본 모양이다.

《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혜연이가 속삭였다.

《어마나, 난 너한테 하나두 숨기는게 없는데 넌 비밀이 있었구나?... 됐어, 이젠 알고프지 않아. 네가 나한테 이럴줄은!...》

《미안해. 이건 우리 엄마가 살았을 때 만들어준 옷이야. 마지막으로 내게 입혀주었어. ... 엄만 분홍

색 제일 좋아했대. 근데 이걸 봐. 색깔이 다 연해졌어. 이 옷만 보면 가슴이 아파. 엄마향기두 이 분홍색처럼 영영 사라지는것만 같애. ...》

불현듯 혜연이가 두손바닥에 얼굴을 묻는다.

《혜연아, 난 그것두 모르구...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두 눈물나지 않니, 응?》

효심은 때아닌 충격에 가슴이 몽클하여 소리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 지난해 봄 저 낡은 애기웃을 불안고 혜연이가 흐느껴울 때 그 눈물속엔 그런 말 못할 아쉬움과 아릿한 아픔도 있었던것이다.

효심은 휴식터의 감나무밑을 감도는 시원한 바람결에 얼굴을 식히며 속삭였다.

《혜연아! 옷이 낡아지고 색이 바래는건 자연의 조화니 어쩌면 좋겠니?...》

슬깃슬깃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홀로 갈피없는 상념에 잠겨있던 효심이 다시 기숙사에 들어오니 호실들에서 숙제도 하고 책도 보며 휴식하던 애들이 자연스럽게 텔레비존시청실에 모여앉아 문화생활을 즐기고있었다.

보도가 시작될무렵 혜연이와 태흥이사이애 앉았던 철옥이가 뒤편에서 키득거리며 싸부랑대는 다른 학급의 몇몇 장난군들에게 쏘아붙였다.

《보도 좀 듣게 그만 조잘대려마! 참새고기 볶아 먹었니? 음— 무슨 남자들이, 쯔쯔...》

대뜸 뺨이 꼰 사내애들이 으르렁거리며 주먹이라도 둘러멜 기미를 보이자 태흥이 넌지시 돌아보며 쪼프린 메밀눈에 시뵈한 비웃음을 띄운다.

눈에 불을 켜고 고양이마냥 어깨를 살구며 으르대던 애들이 즉시 노염을 삭이는 모양애 효심은 어이없으면서도 제 학급 처녀애들 뒤벽이 되어주는 태흥이가 대견스럽게도 했다.

텔레비존에서 완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소식이 보도되었다. 멋들어진 건축물들과 아영시설들이 소개될 때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감탄을 질렀다.

철옥이가 량옆의 혜연이와 태흥이를 번갈아보며 흥분한 목청으로 부르짖었다.

《화면에서 저렇게 기막힌데 진짜루 보면 더 멋지겠지?》

혜연이 역시 두눈에 불꽃을 반짝이며 타는듯이 속삭였다.

《야!— 저 야영소에서 며칠만 야영생활 해봤으면!...》

《어마나— 넌 욕심두, 며칠이 뭐니? 난 딱 하루만 살아봐도 원이 없겠다야.》

잠자코 있던 태흥이가 요새 즈름했던 코바람을 다시 터치며 시까슬렀다.

《흥! 철딱서니들 없구나. 가고프면 가니? 순서가 있지. 부모가 있는 애들이 다 가본 답애야 우리 차례가 올거야. 그동안이면 너랑나랑 어른이 되고말아.》

태흥이 늘 저들을 편들어준것도 깜박 잊은 철옥

이가 눈을 흘겼다.

《즐겁게 상상도 못하겠니? 넌 정말 좋은 기분
개는덴 선수야, 선수!》

혜연이가 딱하게 웃으며 철옥이를 말렸다.

《태홍일 너무 몰아대지 마. 그래두 그전하군 싹
달라졌지 않니.》

취침시간이 되어 나란히 누워서도 철옥이는 여전히
속살거렸다.

《혜연아, 태홍이 말처럼 우리 야영도 못 가보고
어른되지 않을까?》

《하긴 공부랑 잘하구 좋은 일 많이 해서 나라에
보탬준 애들이 얼마나 많겠니.》

어느덧 졸음에 취한 철옥이가 스르르 고개를 떨
군것도 모르고 혜연이는 손바닥에 뺨을 고인채 깊
이 생각에 잠겨있다가 호 한숨을 내그었다.

《야영은 못 가두 난 더 열심히 공부할래. ... 좋은
일하기두 ... 더 많이 찾아...》

그도 역시 졸음에 못이겨 채 말끝을 여물구지 못
한채 스르르 잠들어버렸다. ...

학원원아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새날은 너무도
조용히 밝아왔다.

오후 첫시간 갑자기 소집된 교직원모임에 참가
했던 효심은 자기가 어떻게 기숙사까지 달려왔는
지 몰랐다. 2층에서 잠시간이란것도 잊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애들아! 우리 원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셨
어! 새 야영소 1기야영에 ... 온 나라 원아들을 불러
주셨단다!》

한순간 질은 고요가 고막을 울리더니 급기야 아
이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왔다.

《혜연아, 혜연아! 들었니? 들었지? 어떻게 어제
밤 우리가 공상하던 일이! ...》

문득 혜연이 고개를 쳐들더니 열차게 속삭였다.

《철옥아! 난 들었어! 너랑나랑 우리모두 야영소
에 불러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음성! 꿈속에서두 꿈인
걸 알구 올었는데 진짜였어! ...》

다음날 효심이 맡은 학급을 모체로 야영생명단이
발표되었다. 대오책임자는 소년단책임지도원이, 파
외생활지도교원으로는 효심이 선발되었다.

마침내 야영소로 떠날 시각이 왔다. 빠스는 경쾌
히 해변가를 달렸다. 흰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 축
복의 물보라를 뿌려주는것만 같았다.

효심은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모르는 아이들과 함
께 청다해 노래를 불렀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

하지만 효심은 짐작하지 못했다. 얼마나 황홀한
별천지가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지, 얼마나 벅찬
놀라움과 환희가 모두의 삶을 흔들어놓을지! ...

혜연이며 철옥이와 함께 야영소 처녀교원의 뒤
를 따라 야영각생활실에 들어서던 효심은 불현듯
정 가슴벽이 울려 깜짝 놀라 문가에 굳어졌다. 어
찌면! ...

마치 환상속의 꽃동산인듯 온 방안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연분홍진달래빛! ...

아이들은 생활실내부의 우아함과 황홀함에 완전
히 넋을 빼앗겼다. 온 세상 새무리를 다 모아놓은
듯 저저마다 방안이 떠나가게 재깔거렸다.

《여기 좀 봐! 이 꽃침대! 꽃이불! 꽃베개! ...
야— 포근해. ...》

효심의 경탄도 아이들과 짝지지 않았다. 문득 혜
연이에게 생각이 미쳤다.

자기처럼 분홍빛을 그 어느 색깔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 ...

아닐세라 혜연이가 꿈을 꾸는듯 한 눈빛으로 그
에게 물었다.

《선생님 ... 정말 여기 색깔들이 다 분홍색입니
까? ...》

《그래, 혜연아! 다 분홍색이란다. 침대두 이불
두 가구두 몽땅! ...》

불현듯 혜연이가 효심에게 매여달리며 새되게 부
르짖었다.

《선생님! 내 마음 다 알아맞춘것 같습니
다! ...》

야영각생활교원이 《이 애가 어디 아픈게 아니예
요?》 하고 다급히 물었다.

효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샘솟았다. 그는 행
복에 겨워 속삭였다.

《아니예요, 선생님 ... 이 앤 너무 기뻐서 ... 이
분홍색들이랑 너무 좋아서 ...》

처녀선생은 한해도 못되는 사이 야영소가 새롭게
일떠선 사연을 펼쳐보였다.

아이들은 숨소리마저 삼가며 그 뜻깊은 사연들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올해 2월에 이어 4월 어느날 또다시 야영소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
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 생활실에 들어서신 원수님께서는 침대가 얼마
나 폭신한가 앉아도 보시고 새털이불과 베개도 만
져보시였다.

《여기 분홍색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골라
주신 색깔이랍니다. ...》

원수님께서는 생활실들의 색조화를 다시 해주자
고, 남자애들 방의 색깔은 푸른색으로 하고 처녀애
들 방은 분홍색으로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
아할것이라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다짐다정히 이르
시며 해님같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 순간 효심의 가슴에 세찬 격량이 사뭇쳐흘
렀다.

아! 원수님께서 내 가슴에 아버지 추억으로 새겨진 분홍빈침사연도 아시는듯...

혜연이가 어머니의 향기로 간직한 그 애기옷색같이 바래져가는 사연도 다 아시는듯 어쩌면 이리도 눈부신 분홍빛을 방안에 짝 채워주셨을가!...

매일매일 놀라움과 환희속에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이 흘러갔다.

사흘째의 야영일정을 마친 저녁이었다. 분단별 하루야영활동총화가 끝나자 혜연이며 철옥이네들은 생활실의 침대에 앉아 일기책들을 펼쳐놓았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쓰던 일기글인데다 여기서 보고듣는 모든것이 너무도 새롭고 가슴설레여 누구나 막힘없이 일기를 썼는데 역시 책을 많이 읽은 혜연의 글솜씨가 제일 이채로웠다. 하루의 벅찬 일들을 더듬으며 글줄을 찾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혜연이가 문득 눈빛을 반짝이며 효심을 돌아보았다.

《선생님! 이자 방금 일기제목을 찾아냈습니다. 〈분홍빛요람〉...》

《〈분홍빛요람〉... 정말 제목이 좋구나. 참,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물어볼까? 아버지원수님께서 이방에 분홍빛을 가득 채워주신 깊은 뜻이 무엇일까?...》

역시 씩씩한 철옥이가 제일먼저 손을 쳐들었다.

《선생님! 원수님께서 혜연이랑 나랑 분홍색 제일 고와하는줄 다 아시고...》

그만 확신을 잃은듯 갑자르는 철옥이를 지켜보다가 효심은 다시 물었다.

《그럼 너자애들은 왜 분홍색을 제일 좋아할까?》

이윽고 고개를 소곳하고있던 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꽃들중에 분홍꽃이 많아서... 아니,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효심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확 피어올랐다.

《선생님도 혜연이와 똑같은 생각이야. 꽃들중에 빨간 꽃, 분홍꽃이 제일 곱지 뭐. 자, 이젠 고운 분홍꽃들을 다 잡아보렴.》

신이 나서 저마다 웨치는 꽃이름들을 다 듣고난 효심이 나직이 말했다.

《웁아, 진달래와 철쭉이 제일이지. 남먼저 새봄을 알려주는 진달래, 칠명길에 활짝 퍼서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린 철쭉꽃...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원수님께서 너희들이 찬바람도 이겨내고 활짝 피는 진달래와 철쭉처럼 조국의 장한 딸로 꽃같이 피어나기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방에 분홍빛을 골라주시지 않으셨을가 하고...》

이 순간 효심은 아버지원수님께서 남자애들 방을 푸른색으로 해주신 절절한 뜻도 알것만 같았다. 한겨울에도 그 청신한 푸른빛과 불굴의 기상을 잃지 않는 소나무며 열정과 기백으로 장쾌한 동해의 푸른 물결이 금시 눈앞에 사무쳐왔다.

야영생들이 고운 꿈을 꾸게 될 생활실의 색깔 하나에도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다함없는 축복을 아로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홍분된 심정으로 일기를 쓰던 혜연이가 문득 고개를 쳐들고 엉뚱하게 말했다.

《선생님! 전 매일 자고깨나면 이 옷이랑 몸에 분홍색이 물드는것 같습니다.》

효심은 놀란 미소를 띠운채 잠시 혜연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뇌였다.

《그보단 혜연아,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분홍빛이 물들고있을거야. 진달래와 철쭉빛이 물든 우리 마음에선 영영 그 고운 색이 바래지 않을거야.》

큰숨을 내쉬 혜연이가 환희에 넘쳐 속삭였다.

《야!— 진달래와 철쭉빛 내 마음!...》

깊은 밤이었다. 창가엔 은은히 별빛이 흐르고 분홍빛과 천정의 다섯개 엄마벌이 오리오리 짜낸 신비의 너울인듯 방안엔 고요하고 투명한 빛이 흐르고있다.

하지만 효심은 이밤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침대에 누운 혜연이도 그랬다.

효심이 살며시 손을 더듬어잡자 아이는 기다린듯 그의 품안에 푹 안겨들었다.

그리고는 소리없이 웃으며 뜻밖의 말을 속삭였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엔 우리가 넘어져서 올때 태홍인 어쨌는지 압니까? 〈홍! 누가 일으켜줄가 해서 울지? 천치 더하기 바보! 엄마두 없는데 누가 안아주겠대? 봐, 난 암만 세게 넘어져두 혼자 제격 일어나거든. 피가 나와두 울지 않아. 부모가 없으면 눈물도 없어야 돼. 세상 머저리들만 엄마야 하면서 울어!〉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야영소에 도착한 날 밤에 태홍인 물래 올었습니다.》

역시 태홍이가 우는 모양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효심은 깜짝 놀랐다.

《아니, 뭐?... 그 애가 하필 이 좋은 야영소에 와서 왜 운단 말이야?》

혜연이는 그날 우연히 복도홀에 나왔다가 태홍이가 남물래 흐느껴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 저녁에 태홍이는 눈물의 사연을 혜연이에게만 터놓았던 것이다.

첫날 야영각에 들어선 순간 불현듯 태홍이의 눈뿌리를 뽐은것은 홀과 매 층마다 줄줄이 놓여진 콤퓨터들이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야영생들이 여가시간마다 자유롭게 마음껏 재미나는 영화도 보고 전자동화책도 볼수 있게 야영각 곳곳에 놓아주신 그 사랑의 콤퓨터!... 야영각뿐이 아니었다. 국제친선소년회관의 매 홀과 층층의 고운 탁마다 기다린듯 콤퓨터들이 맞아주었고 전자오락실의 말타기며 차운전, 사격을 비롯한 첨단기능오락들도 아이들의 넋을 뽑았다.

처음 전자오락실에 들어섰던 날 효심의 뇌리에도 태홍이가 학원규률을 어기고 유희장의 전자오락장에서 밤늦게 오락을 하던 모습이며 자기와 혜연

이가 오랜 시간 밖에서 보슬비에 옷을 적시던 일이 떠올랐다.

첫날밤 잠자리에 누운 태홍의 눈앞에는 기쁨속에 저녁내내 다루어본 그 멋진 컴퓨터들이 여전히 삼삼했다. 끝내 방에서 나온 태홍이는 것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컴퓨터들을 하염없이 어루쓸어만지며 저도 몰래 울음을 터쳤던 것이다...

태홍이가 컴퓨터에 얼마나 큰 애착을 품고있는지 잘 아는 효심의 마음도 어느새 축축히 젖어들었다. 누구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고 눈물조차 흘릴 줄 모르는 이상한 소년의 추억속에 맺혀있는 응어리를 효심은 바로 야영소로 떠나오기 전날에야 알았다. 태홍이의 실토정을 들으며 효심은 소리없이 울었다.

일찌기 아버지가 물길굴전투장에서 동무들을 구원하고 희생된지 몇해 지나 뜻하지 않게 어머니마저 난치의 병을 만났다.

갓 유치원에 입학한 태홍이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곁에서 좀체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철없는 마음도 엄마마저 잃을것 같은 본능적인 위구심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런 아들을 어머니는 아침마다 웃으며 유치원에 떠밀어보내곤 했다.

그날도 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떼쓰는 아들의 머리를 살뜰히 쓸어주며 속삭였다.

《우리 태홍이 유치원에 잘 다녀야 이담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지요?》

《싫어! 내가 유치원 간 담에 엄마 죽을가봐 그래!》

어머니가 전혀 당치않다는듯 애써 눈을 크게 떠보았다.

《넌 왕청같이 엄마가 죽진. 우리 아들 너무 귀해서두 오래오래 살고싶는데... 유치원 가서 고운 노래랑 배워다 불러주렴. 그럼 엄마 병이 인차 나을거야.》

《진-짜?... 엄마 약속하지?》

《그럼, 손가락 걸구 약속하자. 엄마가 꼭 기다리게.》

어쩐지 미심쩍으면서도 차마 그 명량한 미소와 정찬 목소리를 믿지 않을수가 없어 입원실을 나서며 자꾸 뒤돌아본것이 그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모습을 영영 찾을 길없는 빈침대앞에서 태홍이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눈물도 없이 세차게 울부짖었다.

《엄마 미워! 엄마 나빠!... 노래 불러주면 병이 낫는다구 했지 않나! 기다리겠다구 약속했지 않나! 이젠 엄마 말 하나두 안 믿어!... 누구 말두 안 믿어!...》

한생의 가장 큰 슬픔과 함께 돌아난 뼈저린 불신으로 하여 웅석과 어리광의 상징인 유년시절의 행복한 눈물마저 말라버린 아이! 그래서 누구도 건잡을수 없이 이지러지고 었나가던 아이! 바로 그 아이의 차디찬 눈에서 불현듯 마음속의 얼음조각들을

녹이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것이다.

분분초초 아이들의 환희에 찬 웃음이 태어나는 즐거움과 행복의 요람이여, 한 소년이 나이에 넘치는 아픔에 질려 영영 잃을번 한 육친적인 사랑과 인정의 뜨거운 눈물마저 다시 찾아주신 우리 원수님의 고마운 품이여!...

이제는 오래지 않아 태홍이도 엄마가 어째서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약속마저 어기면서 자기를 배움의 창가으로 떠밀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애정이였고 간절한 부탁이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즐겁고 뜻깊은 날들이 흘러 어느덧 야영의 마지막날이 밝아왔다.

아침일과로 교양마당에서 체조를 마친 애들과 함께 야영각으로 돌아오던 효심은 불현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저 눈부신 창문들!... 금시 하늘로 솟아오를듯 우뚝 나래편 야영각들과 실내체육관, 국제친선소년회관의 해빛어린 창문들이 새삼스레 가슴을 뒤흔들었다.

찬연한 아침해살이 비껴흐르는 그 창문들의 광채가 결코 이곳 야영소에서 처음 눈에 새긴것이 아니라는 뜻밖의 발견에 가슴이 설레었다.

언제부터 저 눈부신 창문들이 이 가슴에 정답게 새겨지기 시작한것일까. 아득히 흘러간 유년시절 육아원과 애육원의 창문들에서부터가 아니였을까? 그 빛이 초등학교를 거쳐 중등학교 교사며 기숙사의 정든 창가으로 이어진것이 아닐까?

바로 효심이 해빛밝은 그 창가에서 어린 꿈을 싹틔웠고 별빛이 명롱한 창가에 밤깊도록 앉아 천가닥만가닥의 희망과 공상으로 앞날의 청춘 그 아름답고 순결한 넋을 엮고 또 엮었던것이다.

무모없는 아이들이 배우며 뛰노는 집마저도 세상천하 제일궁전으로 일떠세워주는 나라, 어린이들이 고운 나래 자래우고 희망을 꽃피우는 창문들이 제일로 눈부시게 빛을 뿌리는 나라!

그 창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사랑을 자양분으로 삶의 뿌리를 살지우고 푸른 잎새를 가꾸는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왜 참되고 복되지 않으랴!

이 시각에도 쉽없이 창공을 향해 키쫓음하는 새라새로운 아이들의 집!... 평양에 새로 솟아난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들에 이어 이곳 동해기슭의 도시에도 오래지 않아 명당자리를 골라 원아들을 위한 궁궐같은 새집들이 일떠선다고 한다.

그때면 새 중등학교 교사와 기숙사의 황홀하게 번쩍이는 창문들을 보며 효심은 또다시 흐느껴울게 되리라, 그 눈부신 광채가 우리 사랑동이, 애국동이들의 행복에 겨운 얼굴빛같아,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아이들의 순결한 마음에서 활활 타오르는 보답과 맹세의 영원한 불길만 같아...

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요람 행복의 궁전들이여, 해빛넋친 창문들이여!...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이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자면 마땅히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이란 말은 어느 한 작품을 놓고 쓸수도 있고 어느 한 세부나 대사 하나를 놓고 〈철학적인 세부〉, 〈철학적인 대사〉라는 식으로 쓸수도 있다. 작품전반을 놓고 말하든 어느 한 세부나 대사에 대하여 말하든 철학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 깃들어있다는 의미와 작가가 발견한 생활의 진리가 매우 심오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우리 공장의 5.1절

김 철 응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울려간다
와와 웅원소리 박수소리 노래소리
온 구내가 들썩인다
원산구두공장 우리 공장의 5.1절

물결스치는 제비런듯
재봉침 누비던 그 솜씨로
공안고 달리는 제화공처녀
공장의 소문난 혁신자라오

사출작업반의 의젓한 저 총각
배구그물우로 날아오른 공
휘파람소리나게 강타하는 동작
구두모양처럼 맵시있구나

원수님 안겨주신 궁전같은 새 일터
멋쟁이공장에서 멋쟁이 되였다
주방장어머니도
지령실아바이도
흥에 겨워 펼치네 멋진 춤동작을

천지개벽된 우리 공장 구내에서
운동회 신바람나니

5.1절의 이 기쁜 날
더더욱 그리워지는 원수님 생각

내리는 장마비에 옷자락 적시시며
비물 고인 구내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원수님 찾아오신 지난해 여름날을 못 잊어
궁전같이 희한한 일터를 마련해주시고
환히 웃으시던 그 영상 못 잊어

원수님품에 안겨
복받은 우리 복받은 5.1절
로동은 기쁘이고 흥겨운 노래되니
우리처럼 행복한 로동자 또 어디 있으랴

아, 수령님들의 념원이 꽃핀
화려한 일터 로동자궁전에서
우리는 노래부른다 선군세월 자랑하는
원수님품에서 행복넘치는 5.1절을

기쁨넘쳐라 즐거운 우리의 5.1절
온 세상이 부러워 우리르는 행복의 절정
로동자궁전의 주인된 우리들
해빛넘치는 5.1절에 환희를 터친다

시 초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야영의 첫아침에

전 용 남

등실－
동해의 아침해 솟아오르니
바다우에 떠가는 돛배이런가
궁궐같은 그 웅자를 자랑하며
국제소년단야영소는 제모습 드러낸다

행복넘친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신
수령님들 동상은
해빛을 뿌리며 눈부신데
소년단야영기는 창공높이 날리고
아이들은 해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진해간다

밝고밝은 저 모습 바라보니
이 가슴 뜨거움에 젖어드누나
오늘의 이 아침을 불러오신분
기쁨의 날과 달을 이 뜨락에 펼쳐주시고
지금은 어디에 그 어디에 계실가?...

오실 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충계를 쌓아주시고
떠나시여선
마음속에 또다시 찾고 또 찾으시며
운동장에 푸른 주단 깔아주시고

수족관에 푸른 바다 펼쳐주신 원수님

수령님들 동상을 높이 모시여
태양의 그 품속에
아이들이 언제나 안겨살게 해주신분
세상에 둘도 없는 야영소를 세워주시고
행복의 이 아침을 지켜주시려
멀고 험한 길 건고계실 우리 아버지

그리워라 이 아침 더더욱 그리워라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지
그 품에 안겨사는 행운이 너무도 눈물겨워
해풍에 펄럭이는 야영기도
저 멀리 전선을 향해 그이를 목매여 부르는듯

위대한 사랑의 세계우에
선군조선의 창창한 새아침을 불러오신
찬란한 우리 해님 따사론 빛발을 안고
아, 야영기여! 너 더 높이 휘날리라
위대한 사랑의 새 력사를
온 세계가 우러러보라고
무한대한 우주에 금문자로 새기거라

아이들의 각원에서

김 명 익

푸르른 하늘
설레이는 바다...
해빛도 따사로와라

보아라
쉴너머 창공을 날으던 참매는
목란꽃이 피어난
여기 야영소기슭에 내려앉는데

야영각들에선 울려퍼지누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끝없이 날으는 노래
다함없는 저 노래 언제나 울려퍼지는

야영각들은
이 세상에 제일 큰 손풍금이런듯

하거니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는
이 나라 아이들의
영원한 행복의 주제가 아니냐

참말 5대양의 진주를 다 가져다놓은들
그보다 하늘의 못별을 다 따내려온다 한들
아니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쌓아놓는다 해도
여기 아름다운 조선의 바다가
아이들의 왕궁처럼이야 어찌 빛날가

그 모양의 황홀경에 취해

밤이면 그만 둥근달도
여기 야영소바다가에 풍덩 — 내려앉아
온밤 은파만경으로 부서지는 듯

끝없이 출렁이며 출렁이며
오션지마냥 퍼져가는
동해의 물결이어

아침에도 낮에도 밤은 깊어도
행복에 젖고 고마움에 젖고 그리움에 젖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야영소엔 끝없이 울리는데...

정녕 미래를 위한
작전시간으로 지새이는
우리의 최고사령부와
제일 가까이 있는
아이들의 궁전!

아아—
송도원은 무릉도원
온 세상 아이들의
둘도 없는 낙원이여라!

야영소는 지척인데...

함영주

나는 지금
철길을 따라 걷는다
세길역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까지
곧추 뻗어간 새 철길을

동해천리 서해천리
차창마다 기쁨의 손저움을 받으며
렐차보다 더 빨리
야영소로 마음 달려오는 아이들
눈앞에 생생히 비껴들수록
자꾸만 자꾸만 젖어드는 두눈굽

동해선 서해선 온 나라의 철길을
아이들을 위하여 세길역까지
곧바로 열어주신 우리 원수님
역에서 야영소정문까지
10리도 못되는 길 마음에 걸려
이렇게 새 철길을 놓아주신 친아버지 그 사랑

그 언제한번 계산해본적 있었던가

조국과 혁명위해 걷고 또 걸으시는
자신의 그 멀고 험한 현지도 천만리는
그러나 아이들의 야영길을 재여보고 또 보시며
그리도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야영소는 지척인데
걸으면 어떠랴
달리면 어떠랴
앞에는 기쁨의 바다가 출렁이는데
비가 오면 어떠랴
눈이 오면 어떠랴
앞에는 행복의 무아경이 기다리는데

갈매기 훨훨 날아드는 솔숲아래로
거침없이 굽이쳐온 두줄기 철길이여
너는 지금 침묵이 아니라
원수님의 뜨거운 미래사랑에 받들린것이다
이제 너를 따라 야영소에 들어섰던 아이들
강성조선의 궤도를 이 땅에 놓으며
원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펼치리라!

나는 바다와 이야기한다

오정로

바다여!
내 지금껏 네 기슭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너에게 매혹되곤 하였던가
허나 오늘은 내가 아니라
아이들의 야영소에 온넋을 빼앗기고
지금 이 기슭을 생각깊이 거닌다

말해다오
지구를 휘감고 출렁이는 바다여
너의 그 어느 기슭에서 본적 있느냐
이처럼 궁궐같은 아이들의 집

꿈이나 생시나 삼가 들어서니
선뜻 발걸음 댈수 없었다
맑은 수정 발밑에 퍼놓은것만 같아...
그 층계 그 복도를
우리의 아이들이 아침저녁 밟고다니며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리누나

바다여 네 진정 아느냐
끝없이 넓고넓다는 네가
야영소의 수족관속에 출렁이는줄
네게서만 산다는 상어며 거부기 왕문어들이
그속에서 춤추며 살고있는줄

이 세상 좋은것
이 세상 진귀한것
하늘 땅 바다의 그 모든 황홀함을 다 안아다
여기에 끝없이 펼쳐여준
아, 원수님의 눈물겨운 그 사랑이
물결치며 차넘치는 아이들의 야영소

말해보자 바다여
나라마다 끝나는 지경이 있고
대륙마다 끝나는 기슭이 있어

너 수수천년 그 기슭을 적시며 출렁이었어도
그 언제 그 어느때 그 어느 땅에서
이처럼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본적 있느냐

내 지금껏
야영소를 품안은 너의 모습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말해왔건만
아니여라 바다여
위대한 사랑의 품에 네가 안기여
송도원은 이 세상 절경이 되었구나

꿈 고운 요람에서

박 성 일

원수님 앉아보신 침대에 앉아
원수님 만져보신 이불을 덮고
하루야영 끝마친 우리 아이들
달디달게 소르르 꿀잠 잡니다

바다물 한모금씩 꿀꺽 마셔도
좋아라 헤엄치며 실해진 팔다리
자면서도 나비헤엄 또 치는지
이불차며 밖으로 나온 팔다리

여며주는 교양원 내 손끝에
와닿는 이불이 말큰합니다

왜 그런지 이 잠자리 돌보는 눈길
어쩐지 나 혼자 아닌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물놀이장 아이들 기쁨속에
한밤에는 잠자는 아이들 요람속에
봄날의 따뜻한 햇빛 되시여
그 어디나 보살피시는 우리 원수님

잠시도 떨어진적 없으십니다
이밤도 아이들의 고운 꿈 지켜주시는
원수님의 다심한 그 사랑속에
나도 아이들도 래일의 아침을 마중잡니다

생각깊은 글발을 바라보며

육 영 철

꽃잎을 휘뿌린듯 맑은 물결우에
아이들의 웃음발 쏟아지는 뽀트장에 서니
그 꽃물결너머 그 맑은 웃음발너머
이 가슴 젖어드는 글발 안겨오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한자한자 더듬어가는 내앞에
못 잊을 그날이 안겨오네
하얀 야영모 쓰고
야영소정문으로 들어서던
어린 날의 내 모습이

4월의 봄명절날 우리 장군님
힘준한 1211고지에 오르실 때
우리는 작은 손에 기폭을 잡고
행복의 야영기를 계양대에 올리였지

야영의 첫날 밤
이 몸은 포근한 요람에 안길 때
별빛이고 달빛이고
장군님은 전선길 달리는줄
왜 미처 다 모르고 꿈나라에 갔던가

너무도 행복해서 다 몰랐던가
너무도 철이 없어 다 몰랐던가
아버지의 전선길 한결음한결음이
우리들 야영의 날과 달 이론줄
눈비를 다 막아준 그 야전복자락속에
우리들 야영소가 솟아있을줄

아, 한평생 이 땅의 미래 위해
험한 길 헤쳐가신 장군님을 못 잊어
우리 원수님
전설같이 펼쳐진 황홀경우에
하늘땅 가득차게 새겨주신 이 글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위대한 헌신의 모습이
눈물겹게 어려오는 글발아래서
행복의 웃음발 날리는 아이들아
너희들은 지금
대를 이어 누려가는 후대사랑의 바다우에서
강성조선의 미래에로
아름다운 희망의 노를 저어가고있구나

알 수 없다

—야영소를 돌아본 한 외국인의 이야기—

김 정 곤

부럽다 경치가 부럽다
앞에는 푸른 소나무숲
옆에는 하얀 모래불
조금 더 가면 흰파도 활짝 웃는 해수욕장
마시는 공기는 꿀처럼 달다

내 사는 고향이라면
눈주는 곳마다 부르는게 값일게다
그런데 호텔같은 저 푸른 창문엔
돈 한푼 내지 않은 아이들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하다
땅우의 통궁인 수조에선
표마들이 바다속을 즐겁게 유람한다

저것 봐 푸른 솔밭, 은모래백사장
뛰노는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파도도 부러워

와—와 되받아 소리치며
팔 벌리고 달려온다

억만장자들 군침삼킬 이 자리
온 세상 다니며 둘러봐도
권력가들이나 틀고앉을
둘도 없는 명당자리
철부지아이들에게 내어준 나라
내 진정 꿈에서도 본적 있던가

맑은 공기 물 한방울도
공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조선만은 천만금우에
아이들의 티없는 웃음을 피웠으니
정녕 알수 없구나
저 웃음이 그리도 값비싸단 말인가...

로동당만세소리

박 현 철

해빛 눈부신 푸른 바다 향해
아!— 오!—
소리치며 달려갈 때도
가슴에 가득 차넘치는 노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하루야영 끝나치고
궁전같은 야영각층계를 오르면서도
황홀한 침실에 들어서서도
우리의 아이들 기쁨넘쳐 부르는 노래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수령님품에 안겨 부르던 이 노래
세대를 이어
세월을 넘어
오늘도 새 노래처럼 부르고부르나니

이 노래속에 이 세상 고운 꿈 꽃피고
이 노래속에 행복의 해와 달이 마중오는 이 강산

아, 《세상에 부럼없어라》
진주처럼 빛나는 이 글발을
야영소처마에 문패처럼 높이 달고
낮에도 밤에도
저도 몰래 자꾸자꾸 부르는 노래여

철부지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때없이 흥에 겨워 부르고
때없이 속삭이듯 불러도
아, 그 소리
지구를 흔들며 온 누리에
《로동당만세!》로 울려퍼지누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리 히 진

송도원!
여기선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솔바람도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기슭을 치는 흰파도도
은구슬 금구슬을 프락가에 뿌린다

바라보고 둘러볼수록
마안산에 스며들던 따뜻한 그 해빛이

야영각의 처마마다 아롱지고
천신만고 달게 여기시며
철령을 넘나들던 야전차의 전선길이
포도우에 굽이쳐온 사랑의 이 프락

너무도 황홀하고 눈이 부서
삼가 발걸음 저어지는 아이들의 집
철부지아이들이 무엇이어서

원수님은 여기에 사랑과 정 쌓고 또 쌓아
우리의 아이들을
이리도 높이 받들어올리셨는가

행복의 천상에 솟은
충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여!
저 하늘의 높이를 잴수 없듯이
어머니 우리 당이 받들어올린
너의 그 아득한 높이는 잴수 없어라

누구나 두번다시 태어나

이 트랙을 밟아보며
생을 다시 살고픈 요람!
너는 온 나라 온 세상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는 원수님의 품!

목란꽃 곱게 핀 이 강산
참새 높이 뜬 이 하늘아래서
조선의 앞날을 떠메고갈 주인들이
와와 소리치며 자라나는 집이어!
더듬고 또 더듬어도 그 기슭을 찾을수 없는
아, 한없이 고마운 로동당의 품이어!

고향의 자랑이구려

리 득 하

여보 마누라 요즘처럼 우리 내외
자식 둔 자랑 있어보긴 처음이구려
탄전이며 바다며
나라의 바쁜 일터 하찮아도
인민생활향상의 주라격방향인
농업전선에서 한몫 하겠다고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온 아들
그 생각부터 얼마나 장하오

군대가던 그해 봄
키도 담도 남달리 작아만 보여
바래주던 동구길에서
가슴속에 걱정만 쌓았더니
생각하는 품도
내미는 일본새도
당초부터 툭 티였구려
무슨 일에서나 속내가 환하구려

두벌농사짓는 법 언제 다 배웠던지
곡식들의 생장기간 앞당기느라
씨불임 서두르던 그 솜씨도 놀랍더니
논물양어 손금보듯 환해서
관리위원장도 복잡았다 무릎을 치오

지난겨울엔 진거름을 실어내느라
새벽문을 먼저 열고

온벌을 메주났듯 하더니
대소한뎔 돼지우리 덥히는 방법 내놓아
진거름 고기생산 장훈을 부른다고
축산반아낙네들 혀를 찬다누만

아무리 힘든 일도 단숨에 해놓는
그 일본새 따르면 도무지 힘든줄 모른다고
처녀들의 귀속말은 얼마나 듣기 좋소
아들 하나만은 잘 두었다고
온 마을이 부러워 칭찬들인데
그래 그 애를 우리 내외가 키웠던가

아니구려 마누라 그 애야
우리 장군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셨지
우리 원수님께서 품들여 키우셨지
조국보위도 건설도 다 맡겨주시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끝끝한
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우셨지

군복입고 집 떠날 땐
부모가슴에 걱정을 쌓아주더니
제대되어 돌아와선
온 마을에 기쁨만 쌓아주는
농장의 미더운 대장부가 되었구려
우리 고향의 자랑이 되었구려

가 사

그 언제일가

류 영 국

안겨주신 그 사랑 끝이 없어서
그리움도 이처럼 끝이 없는가
원수님 오셨던 날 어제같은데
그날부터 날마다 더욱 그림네
아 원수님 우리 원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그 언제일가

강산에 눈내리고 계절 바뀌어도
기다리는 우리 마음 더욱 불타네
나라일 바쁘신줄 우리 알아도

뵈고싶은 이 마음 그 어이하랴
아 원수님 우리 원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그 언제일가

새들이 우짖어도 오실것 같아
저 멀리 평양하늘 우러러보네
안겨드릴 새 기쁨 마련해가며
영광의 그날을 마중간다네
아 원수님 우리 원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그 언제일가

령도자와 작가

래 양의 빛 발아래 영원한 별들의 세계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별의 세계》가 창작되기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반영하여 창작된 선군시대 문학작품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온 겨레를 전민족적인 조국통일투쟁으로 일떠세우는 위력한 무기,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문학은 조국통일위업을 중요한 주제적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작품형상전반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미학적원칙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창작조건과 창작실천상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고무하는 명작으로 태어난 문학작품가운데는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별의 세계》도 있다.

소설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한없이 숭고한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간불모지이며 생지옥인 남반부의 차디찬 수용소와 보안감호소의 감방에서 수십년세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지켜 굴함없이 싸운 리인모동지를 비롯한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공화국의 파사로운 품에 안아주신 역사적사실가운데서 그 일부를 심오한 철학성과 진실한 문학성을 바탕으로 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력사에 길이 남은 1993년 초봄의 어느날.

우리의 잊지도 않는 핵문제를 구실로 적들이 모험적으로 벌려놓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절정단계에 이른 엄혹한 환경속에서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 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통의 보고문을 받으신다. 그 내용은 **김정일**동지께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불려주신 불굴의 투사 리인모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였다는것이였다.

피뢰들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끄떡없이, 중단없이 리인모를 데려오기 위한 투쟁을 실현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이 드디어 력사

에 없는 기적을 안아온것이다.

준전시상태이지만 민족의 영웅을 맞이하는것처럼 평양시민들이 뿔쳐나서 연도환영을 크게 하도록 하라고 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작품의 첫머리의 장면으로 펼쳐지는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그후 리인모동지의 귀환으로 알려진 수십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력사적화폭으로 담고있다.

조국통일력사에 처음 새겨진 63명의 비전향장기수귀환이라는 력사적사건.

이 력사적사건은 그야말로 작가라면 누구나 심장의 피를 끓이며 붓을 들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게 한 생활소재였다.

소설의 작가도 끓어오르는 창작적흥분을 안고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별의 세계》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문제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폭넓게 형상하는 문제라든가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것 등 소설창작에서 여러가지 애로에 부닥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2000년대 초엽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별의 세계》 창작정형을 료해하시고 그 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줄거리심의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한낱한시에 조국의 품으로 데려온 력사적사실을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폭넓게 형상하기 위하여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조국통일과 관련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여러 장면들속에 부각시키도록 하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기까지 당이 이룩한 업적을 초도와 판문점, 오성산 등 최전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와 밀착시켜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승리의 한 부분으로 형상하도록 하며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이 비전향장기수들과 남녘겨레모두에게 안겨준 총격을 실

목금소리 울려라

기 경 호

화려한 무대
눈부신 조명을 해살처럼 받으며
아이들이 나섰다
손에손에 번쩍이는 악기들을 들고

하나같이 귀엽구나
발그스름한 능금볼, 초랑초랑한 눈빛들...
소개자의 맑은 목소린
어이하여 한없는 걱정예 목메이나

우리 수령님
십여차례나 보아주신 공연이란다
보아주시며
세상에 없을 경음악이라 그리도 기뻐하셨다는

허나 정말이지 세상에 다시 없을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시는 수령님사랑
하늘에 비행기를 띄워
희한한 새 악기도 안겨주시던...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들
장내를 들었다놓는 여무진 목금소리
수령님 생각으로 뜨거워만지는
가슴과 가슴들을 세차게 두드린다

굳이 말하지 말자
사람들이여
이제는 저 무대우에
그날에 수령님을 모셨던 아이들은 없다고

아니다
바로 저 아이들의 기쁨넘친 모습이
수령님품속에 행복하게 자라난
어제날 나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더냐

그리고 이제 또
저렇듯 복에 겹고
저렇듯 꾸밈없이 밝게 자랄
나의 아들딸들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랑스런 미래가 아니라

그렇다 아이들이
너희들은 오늘도 수령님품에 안겨있다
수령님과 똑같이신 친어버이사랑으로
우리 원수님
너희들의 웃음꽃을 방실 피워주시지 않느냐

아아, 울려라 목금소리여
우리 수령님 위대한 후대사랑의 찬가여!
그 사랑을 세기를 이어 안겨주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여!

나는 지금 다만 공연을 보는것인가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모시여
이 땅에 흘러 영원할
우리 수령님 영생의 력사를 본다
더더욱 무궁창창할 내 조국의 미래를 본다

감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출판물자료를 삽입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에서 지리산빨찌산 대
장이였던 리현상을 비롯하여 당시 널리 알려진 인
물들의 경력과 투쟁내용을 실재한 사실그대로 형상
하고 그밖의 인물들의 경력과 운명처리는 예술적으
로 가공하며 비전향장기수들의 건강을 넘려하여 당
에서 귀중한 약재를 보내줄 때 해외동포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적극 나서주는 형상을 인식교양적의
의가 크게 그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총서작품으로서의 품격
을 갖추고 훌륭히 창작될수 있었다.

오늘도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
해 과감히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
무추동하고있다.

정 향 옥



김 명 진

비바람은 좀체 멎을줄 모른다. 하늬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비발은 사선으로 차창을 마구 들때린다. 장풍덕을 가까이 하면서 비발은 끈적끈적한 눈발로 바뀌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위는 뿌연게 흐려들었다.

그 세찬 눈발을 뚫고 갱생승용차는 언덕길을 힘겨웁게 오르고있었다. 차에 앉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명호는 눈녹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시창으로 앞을 줄곧 내다보고있었다. 차는 몹시 들춰졌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차와 함께 그의 마음도 안정을 잃고 흔들리었다.

(장풍덕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밤새 세찬 바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아침에 전화로 읍농장부터 찾아 피해정형을 물었다.

4월에 때늦은 눈발이 내려 장풍덕에서 일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자 더는 앓아있을수 없었다. 거기서는 지금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가 한창인데 이를 어찌는가.

그래서 경영위원회에 잠간 들렀다가 차를 타고 급히 떠난 길이었다.

군안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어느 농장인들 관심이 없으랴만 그중 읍농장의 장풍덕이 류달리 마음에 쏘여지는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장풍덕은 장명호의 운명과 깊숙이 얽혀있는 땅이었던것이다.

눈발이 좀 뜰해지자 장명호는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10년전에 있었던 일이 가슴아프게 돌이켜졌다.

그해 봄 읍농장관리위원회에서는 장풍덕독립분

조의 분조장으로 누구를 보낼것인가 하는 논의가 분분했다.

읍에서 30리 떨어져있는 높고 척박한 등판, 사철 바람이 잦을 날이 없다고 하여 이름도 장풍덕이라고 하는 그 땅이 농장에서는 큰 우환거리였다. 농장적으로 알곡생산도 그래, 생활수준도 그래 어느모로 보나 영 시원치 않았다.

그 분조의 분조장을 하던 사람이 난치의 병으로 물러난 후에는 누구도 거기서 가려고 하지 않아 분조장임명문제는 관리위원회에서 골치거리나 같았다.

그때 장명호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담당부원으로 농장관리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했었는데 안타까운 심정은 그도 다름바 없었다.

《그래 농장에 장풍덕을 책임질 적임자가 그렇게도 없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이라도 그곳에 가겠다고 말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장풍덕은 그가 태를 묻은 고장이였다.

그 옛날 불모의 땅을 일구어 가대기를 끝냈던 할아버지, 그뒤를 이어 땅의 주인이 된 아버지는 전쟁이 일자 그 땅을 지켜 싸움터에 나갔다.

조상의 뼈가 묻히고 선렬들이 피흘려 지켜낸 땅의 한조박이 사람들로부터 랭대를 받는것이 그로서는 무척 가슴아웠다.

장명호가 그 땅을 더욱 외면할수 없는것은 장풍덕에 그의 누이가 살고있고 조카 박수일이 분조원으로 일하는 사정파도 관련된다. 이런 인간적인 연고관계와 더불어 장명호가 이 농장을 담당하고있는 터라 그는 분조원들 매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상히 알고있었다. 분조원들은 농사가 잘되지 않으니 생

활상 애로를 많이 느끼며 자기 일에 애착을 갖고있지 못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강현구는 찍하면 다른데로 가겠다고 제기하곤 했다. 장명호한테까지 찾아와 자기 동무들은 일군이 되기도 하고 연구사도 됐는데 저만이 여기서 썩고있다고 하면서 판데로 보내달라고 졸라대는것이였다.

조카인 박수일이든 례외가 아니였다. 천성적으로 말이 적고 우울한 그는 농사일에 성수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땅도 척박하고 사람들도 안착이 되지 못한 이 높은 덕을 책임질 진짜주인이 없단 말인가.

관리일군들과 장명호는 종내 장풍덕의 주인을 물색하지 못하고 론의를 중단하였고 명호도 그렇게 떠나오고말았다.

그런데 며칠후 장명호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였다.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공지복이 자신을 장풍덕으로 보내달라고 상급당조직에 정식 제기하였다는게 아닌가. 리당비서는 너무 뜻밖의 일여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고 한다.

《부위원장동무의 심정은 알만 한데... 관리부위원장을 하던분이 어떻게 분조장으로 일하겠다는겁니까?》

《부위원장도 분조장도 다 농사를 하라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무슨 직무를 수행하든 알곡생산만 높일수 있다면야...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제기가 하도 꼭진하여 리당비서도 감동되었는것이였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장명호는 놀랍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위원장자리를 내놓고 분조장으로 자진해가다니?... 장풍덕을 위해서란 말이지.

장명호가 알고있는 공지복은 실농군이였다.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그는 포전을 돌아볼 때마다 허리에 항상 호미를 차고 다니였다. 포전길을 걷다가도 김이 눈에 뜨이면 성큼 들어서서 김을 와락와락 매는 성미였다. 농장원들은 그와 함께 김을 땔 때면 허리뿔 새가 없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런 실농군이니 장풍덕의 땅이 버림받는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한것이 아니라.

공지복의 소행이 돋보일수록 장명호는 한가닥 량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였다.

(공지복은 선뜻 나서는데 너는 왜 그런 결심을 못했는가?)

장풍덕으로 말하면 이 장명호가 더 깊은 인연을 맺은 땅이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한몫을 내대고 장풍덕을 가꿀 그런 용단을 내릴만 한 용기가 부족했음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지복이 하는 일을 자신은 하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으로 하여 장명호는 한동안 그에게 빚진 심정이었다.

허나 그는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였다. 내야 경영

위원회 일군이 아닌가. 오늘은 공지복이 장풍덕에 스스로 내려가지만 그리 오래있지는 않을것이다.

아무튼 장풍덕에 착실한 주인이 생겼다고 장명호는 마음을 놓았다.

헌데 공지복분조장과의 사업이 시작부터 불미스럽게 될줄이야... 공지복이 분조장으로 임명된 며칠후에 장풍덕에 올라간 장명호는 뜻밖의 일에 부딪혔다. 분조원들이 등판의 첫머리에 나무를 심고있었던것이다. 당장 봄씨불입에 들어서야 할텐데 여기서는...

《분조장동무,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장명호의 추궁에 공지복이 혼연히 대답하는것이였다.

《바람피해를 막자면 나무를 먼저 심어야 하겠기에...》

멀리 앞을 내다보고 방풍림을 조성하려는것이다.

하지만 장명호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겠다고 생각하고 완력으로 말하였다.

《안됩니다. 씨불입부터 해야 합니다.》

장명호가 요구하는 바람에 나무심기작업은 그날 중도반단되고말았다. 그날의 그 처사가 후날에 뼈아픈 후회로 되새겨질줄을 장명호도 그때 다는 알수 없었다. 그후 장명호는 농장에 올 때마다 장풍덕을 잊지 않고 찾아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포전이 달라지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 첫해 겨울에 공지복은 분조원들을 이끌고 읍에서 진거름을 매일 달구지로 두세탕씩 날라왔다. 그가 이 땅에 얼마나 땀을 들이고 알심있게 가꾸었는지 몇해 지나지 않아 장풍덕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버림받던 그 덕에서 알곡소출이 훨씬 높아졌다. 장명호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장풍덕과 공지복을 도와줄것인가 하고 원심을 썼다.

그러던 그는 인민경제대학에 공부하러 가면서 한동안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였다.

떠나기 전 장풍덕에 찾아간 장명호는 공지복을 따로 만나 이런 부탁을 남겼다.

《수일이에게 관심을 좀 돌려 사람구실하게 만들어주시우.》

수일이는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버릇없이 자라서 인지 행동이 거치르고 자유주의적인데가 있었던것이다. 불입성이 없는지라 사람들과 교제도 차분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 아들때문에 누이가 늘 걱정인지라 자연히 장명호도 수일에게 원심을 쓰는터였다. 그에게 하루 빨리 맞춤형 색시를 얻어주는것이 누이가 바라는 소박한 소원이였다. 누이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장명호는 얼마전에 리만령너머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수일이를 데리고 품놓아 겨울까지 했었다. 그에게 참한 딸이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첫선을 본 후로 그 처녀가 수일의 집에 한번 왔다가는것으로 일은 끝나고말았다.

그것은 박수일의 손실이자 장명호가 당한 망신이

기도 했다. 모든것이 수일의 성격탓이었다.

이런 조카를 두고 떠나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공지복에게 부탁한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걱정말고 떠나시우.》

공지복의 시원한 대답을 듣고 한결 마음이 개운해진 장명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제기분자〉 강현구 말입니다, 본인의 요구대로 보내주는게 어떻습니까?》

그 말에 공지복은 머리를 저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사람들을 하나, 둘 보내고나면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현구가 마음이 안착되지 않아 그러는것 같은데… 그의 탐구심을 살려 공부를 시켜볼가 합니다.》

공지복이 강현구에게 기대를 품고있는듯싶어 명호는 더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았었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다.

장명호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장풍덕소식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동안 공지복은 읍에 있던 집을 아예 장풍덕기슭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그의 뒤를 이어 분조원전원이 그리로 올라가 이제는 한개 동리를 이루고 아이들을 위한 분교도 새로 내왔다고 한다.

장명호는 그저 놀라기만 했다. 공지복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그의 나이도 많아졌는데 오늘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농민…

공지복이 장풍덕에서 몇해 있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마침내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이웃군에서 농산과장을 맡게 하던 장명호는 얼마전에 여기 경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장풍덕이 더욱 그의 관심사로 되었다. 그는 장풍덕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는것을 자신이 스스로 받아안은 분공으로 여기었다. 그 량심의 과제를 수행해야 어제날에 진 빚을 갚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 그였다.

그런터에 강냉이영양단지를 옮겨심기 시작하자 장명호는 장풍덕에 특별히 지원로력을 보냈었다. 읍농장에서 올해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하겠다고 결의해나섰지만 장풍덕만은 례외라고 생각했던것이 다. …

갱생차가 장풍덕기슭에 앉은 마을어구에 들어섰을 때였다. 좁은 길목에 한 처녀가 갑자기 나타나 바람에 차는 급정거하였다. 얼굴이 말쑥한 처녀는 머리에 커다란 버치를 이고 손에는 비닐보로 아구리를 꼭 졸라맨 바깥쓰를 들고있었다. 그는 장명호를 보더니 두볼에 웃음을 띠고 깉듯이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안녕하십니까?》

장명호는 이슬을 머금은 한떨기 들국화처럼 청초한 느낌을 주는 처녀에게 눈길을 머물렸다. 량볼에

살짝 불우물을 패우는 처녀가 어딘가 낯이 익어보이면서도 누구인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누구더라?》

《애순이에요. 공애순…》

《아, 네가 벌써…》

장명호는 뒤늦게야 이 처녀가 공지복의 딸임을 알아보았다. 그동안 너무도 숙성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한지라 그를 가려보지 못한것이다. 그가 장풍덕을 떠날 때 애순이는 중학교(당시) 5학년 학생이었으니까.

허나 목소리가 청아하여 《종다리》로 불리우던 그를 학교에서뿐아니라 동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명호는 반가움에 못이겨 청신한 기운이 풍기는 그의 아래우를 더듬어보며 물었다.

《헌데… 그건 뭐냐?》

《운반식사예요. 어둡새벽에 분조원모두가 포전에 달려나갔거든요.》

《아, 그래. 그럼 어서 올라타거라. 나도 그쪽으로 간다.》

장명호는 애순이한테서 버치와 바깥쓰를 받아 차에 실었다. 차는 조심히 달리였다. 장명호는 공애순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것이 아무래도 리해가 되지 않아 넋지시 물었다.

《난 네가 어느 극장무대에 나선줄 알았는데…》

《아이참, 저같은게 뭐… 일하는게 더 좋아요.》

또 한번 활짝 웃는 애순이의 성격은 예전과 같이 활발하고 개방적이었다.

《네가 어떻게 되어 농장에서 일하게 됐는지… 듣고싶구나.》

애순은 고개를 가웃이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고와 노래를 잘 부르던 애순은 중학교를 마치고 예술전문학교에 추천받아 시험을 쳤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2점이 모자라 합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애순이는 조금도 실망해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노래를 꼭 불러야 하나요? 난 농장에서 일하겠어요.》

그는 한동안 농장의 출판물보급원으로 일하였다. 신문, 잡지 그리고 편지들을 작업반에 날라다주고 때로는 방송마이크를 들고 포전에 나가 경제선동도 하였다. 농장원들은 포전에 파란 머리수건을 쓴 애순이가 나타나면 《종다리가 날아왔군.》 하고 그를 반겨맞았었다.

그랬던 애순이의 생활에서는 극적변화가 일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 공지복은 어느때보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서야 집에 내려왔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일손을 돕던 애순은 아버지에게 왜 이리 늦었는가고 물었다.

《땅과 이야기를 좀 했다.》

공지복은 혼연한 빛으로 토방에 걸터앉았다.

《땅과 이야기를 했대구요?》

애순이는 별로 놀랍지는 않았다. 장풍덕에 온 심혼을 다 바치고있는 아버지가 자기 감정과 의사를 말 못하는 땅과 교감하고있다는것을 이미부터 알고있는터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땅타발을 했는데 이제는 땅이 우리를 나무라고있구나.》

《그래 땅이 뭐라고 해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지고있는 우리 농민들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일한다더구나. 노래두 있구 춤두 있어야 일터가 법석 끊고 흥겨워지고 곡식들도 쑥쑥 자란다고 말이다.》

공지복은 담배 한대를 태우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땅의 참된 주인이 되고 농사를 잘 짓자면... 분조가 한가정처럼 화목하고 단합되어야 하지 않겠니. 현대 우리한테는 이제 부족하다. 분조의 분위기를 돌구는것이 내 힘만으로는 안되는구나. 무엇보다도 노래가 있어야겠다. 노래는 곧 힘이고 단결이라 할수 있지. 이 일을 네가 와서 해주었으면 한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애순이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반기를 들었다.

《그것도 딸이라고 해요? 보급원을 시키는것만 해도 그런데... 호미를 잡으라니.》

허나 아버지의 의견을 고개를 수긋하고 듣고있던 애순의 생각은 달랐다.

《분조에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거지요?》

그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시원스레 대답하였다. 《하쎄요. 그건 내가 언제부터 생각해보던 문제예요.》

《종다리》는 집안에 갇혀있는것보다 들판에서 날아예기를 바랐던것이다.

농장에서는 그를 분조의 선동원으로 임명해주었다. 그가 오자부터 분조의 분위기는 바뀌어졌다.

그는 하루일과를 분조원들에게 노래를 배워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가 청아한 목소리로 선창을 떤때 분조원들은 성수가 나서 따라불렀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웃고떠드는 애순이의 발랄한 성격에 이끌려 분조원들도 그를 닮아가는듯 했다.

어느덧 농장에는 《장풍덕에 〈종다리〉가 날아들더니 꽃동산이 되었군.》 하는 말이 돌았다. 드넓은 포전이 그대로 무대가 되어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넘친다는 뜻이었다. 노래는 곧 선동이고 힘으로 되었다. 명랑하고 흥겨운 분위기속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뚝뚝 냈다.

그런데 한식술처럼 단란한 가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수일이였다. 천성적으로 말이 적고 우울한 성미인 그는 웃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조원들과 동떨어져 항상 혼자 있군 했다. 게다가 동작이 느려 출근이 늦어지기도 하고 결근이 잦아 지각생으로까지 불리웠다.

리만령너머에 있는 처녀와의 혼사가 튀자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양 더욱 침울해졌다. 분조원들은 그의 성미가 아주 이지러졌다고 뒤에서 걱정들을 했다.

어느날 저녁 공지복은 가족회의를 열었다. 식구가 단출한 가정이었지만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가족회의에서 논의하곤 했던것이다. 안건은 《박수일의 성격을 고쳐줄데 대하여》였다. 한집에 분조장(그는 세포비서를 겸하고있었다.)과 선동원이 있으니 그들로서는 십분 토의할수 있는 문제였다. 공지복이 먼저 박수일의 무거운 기분이 분조에 그늘을 지어준다는 《보고》를 하고나서 딸의 의견을 물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저야 뭐 별로...》

《선동원에게 분공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할수 있겠지?》

공지복은 아버지라기보다 분조장으로서 딸을 대하는것이였다.

《제가 언제 아버지 아니, 분조장동지가 주는 과업을 수행 안한적이 있어요?》

방긋 웃는 애순이의 랑볼에는 볼우물이 살짝 패웠다.

《그랬지. 이번에 주는 분공은... 박수일이를 옷게 만들라는것이다....》

공지복의 진중한 말에 애순이는 두눈이 울통해졌다.

《어마, 그런 분공도 있나요?》

《있지. 그 사람의 성격을 고쳐주자는거다. 그건 박수일 한사람의 성격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분위기문제가 아니냐. 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 중요한 문제이지.》 공지복이 분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애순이도 심각한 낯빛으로 더 다른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

남편과 딸이 나누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있던 안해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우려를 표시했다.

《이 애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것이 어떤지...》

《어머니는 별걱정을 다 하시네. 분조장동지, 특수임무를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애순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이튿날부터 애순이는 박수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일도 그와 함께 하고 퇴근길도 나란히 걸었다. 그가 성가실 정도로 말을 시키기도 하고 웃음도 터뜨리면서 그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려고 원심을 썼다.

휴식일이면 수일의 집을 찾아가 기꺼이 일손을 돕기도 했다. 수일의 늙은 어머니는 애순이가 마당에 들어서면 너무 반가와 신발도 채 꿰지 못하고 달려나오군 했다. 애순은 로인과 함께 집손질도 하고 터밭김도 매주었다.

그럴 때면 박수일은 애순이에게 통명스레 말을 던지곤 하였다.

《선동원, 그만 돌아가요. 내게는 그런게 필요 없소.》

그러던 어느날 박수일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쉬는 날 읍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던것이다. 그는 마을어귀에서 몸을 더 가누지 못하고 종내 길가에 쓰러져버렸다. 이때 마침 그리로 지나가던 애순이가 그를 발견하고 안간힘을 써서 일으켜세워가지고 그의 집에 가까스로 데려갔다. 수일은 이튿날 아침에야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온 동리에 퍼질줄이야. 이웃사람이 애순이가 수일이를 부축해오는것을 보고 말을 냈던 것이다.

박수일은 그만에야 수치감으로 몸이 쏠아들어 며칠동안 분조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였다. 그후에는 더욱 침울해지고 애순이를 애써 피하는것이 알렸다....

《그러니 그녀석은 여전히 말썽이군...》장명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몇해여간에 장풍덕의 변화와 함께 수일기도 사람이 되었으려니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는것이 몹시 가슴에 걸렸다. 수일이를 좀 엄하게 다루어 사람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공지복에게 더우기 미안스러웠다. 그의 얼굴에 웃음을 피워주려고 딸에게 분공까지 주었던 말이지. 수일이가 그렇게 된데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듯싶어 장명호는 애순이의 분공수행을 도와주고싶은 심정이였다.

《애순이, 정말 고맙구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오. 나와 힘을 합쳐보지요.》

그는 장풍덕의 거처른 등판에 뿌리를 내리고 향기 그윽한 꽃으로 피어나는 공애순이 참으로 미쁘게 안겨왔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승용차는 장풍덕에 올라 포전머리에서 멈추어섰다.

×

장풍덕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방금전까지 눈발을 날리며 찬기운이 휩쓸던 대기는 언제 그랬더니 않게 온화해졌다. 껴여진 구름장들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기까지 한다. 드디어 등판우로 령룡한 해살이 퍼지자 상치입은 강냉이포기들이 가냘픈 생기를 띠고 설렁거린다.

해빛의 부드러운 애무에 장풍덕은 몸을 말기고 심호흡을 하는듯싶다. 오랜 세월 자연의 횡포에도 굴함없이 시련을 이겨내며 자기의 넓은 가슴에 곡식을 자태우고 이삭을 무르익혀온 땅이다.

날밝기 전에 포전에 달려나와 여기저기 우뚝불을 피우며 눈발과 싸우던 농장원들은 허리를 폈다. 식사시간을 넘겼으니 배가 몹시 고폰 모양이다.

그사이 장명호는 공지복과 함께 드넓은 포전을

돌아보았다. 등판의 북쪽기슭에 옮겨심은 강냉이들이 일부 피해를 입은것을 보고 장명호는 조심스레 입을 뻗었다.

《이만해도 다행입니다.》

공지복은 말이 없었다. 애어린 곡식포기들이 열굽피해를 받은것을 몹시 가슴아파하는듯 했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자연의 횡포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공지복을 위안해주고난 장명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물었다.

《그런데... 지원로력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이틀전에 올려보낸 지원자들이 날이 밝도록 나타나지 않아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제 돌려보냈습니다.》

공지복이 혼연히 하는 말에 장명호는 놀랐다.

《돌려보내다니요?》

《분조자체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고집이 엿보였다.

높고 넓은 등판이어서 품이 여간 많이 들지 않겠는데 어떻게... 장명호는 못내 섭섭했다. 그래도 장풍덕농사를 넘려하여 자기판으로는 그렇게나마 도와주려고 한것인데 그 로력을 제멋대로 돌려보내다니. 여기 다시 배치되어와서 처음으로 기울인 자기성의를 너무 몰라주지 않는가.

공지복에게 그 어떤 무시를 당한 뚝은 심정이였다.

장풍덕을 위하는 마음은 공지복이나 장명호나 같다고 할수 있다. 현대 그 생각하는 갈래는 왜 사립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는것일까. 어제날 공지복이 장풍덕에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던것과 그를 저지시키고 씨불임부터 하라고 내려먹이던 장명호의 그 사고의 차이점이 오늘 다시 재현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굴뚝이 깃들었다.

오랜만에 이루어진 그와의 상봉이 불미스럽게 된듯싶어 장명호의 가슴은 저으기 무거워졌다.

그들이 포전머리에 이르렀을 때 분조원들은 아침식사를 하려고 빙 둘러앉아있었다. 한쪽에서 그릇들에 밥을 퍼담는 사이 애순이는 바깥쪽에 가득 담긴 감주를 고뿌에 떠들었다. 집에서 가마치를 모아 두었다가 담그어낸 노르끼레한 빛을 띤 감주는 한모금만 마셔도 짭한 맛을 줄듯싶었다. 그는 때마침 도착한 장명호에게 먼저 고뿌를 가져갔다. 장명호가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서자 이번에는 공지복에게 고뿌를 내밀었다.

《내야 집에서 맛보았는데...》

공지복은 고뿌를 입에 대지 않고 옆에 앉은 강현구에게 넘기였다.

《현구동무가 먼저 하오.》

《아, 이거...》

강현구는 어쭙어하며 두손으로 고뿌를 받아들었다.

《아저씨와 은정이와의 경쟁에서 누가 이겼나요?》

애순이가 웃으며 물었다. 그러자 옆사람이 의아하여 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가정비밀이지만… 헌구아저씨네 집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누가 먼저 최우등생이 되는가 경쟁을 걸었어요.》

《난 이미 그 애한테 졌수다.》

강현구가 고백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였다. 그의 딸 은정이는 장풍분교에서 모범소년단원으로 뽑히어 이번에 6.6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한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별주로군.》

누구인가의 말에 공지복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아니, 강동무는 우리 분조의 최우등생이라 할 수 있소.》

《웁야요.》

여러 사람이 그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들을 지켜보고있던 장명호에게는 한가닥 의문이 들었다.

(강현구가 무슨 일을 했기에?…)

어제날 사람들의 말밥에 올랐던 사람이 오늘은 최우등생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뿌는 그 다음사람에게 또 넘어갔다.

그 고뿌가 한바퀴 빙 돌아 마지막으로 포전을 등지고앉은 박수일에게 차례졌다. 눈썹이 질고 두터운 입술을 꼭 다물고있어 어딘가 침울해보이는 박수일은 애순이가 주는 고뿌를 두손으로 받아들었다. 그 《술》을 입에 가져가지 않고 이윽히 들여다보는 그의 두손은 가늘게 떨리는듯 했다.

《왜? 어서 마시라구.》

《수일이한테는 그게 성차지 않겠는데… 병채로 라면 몰라도…》

옆사람들이 한마디씩 씹둑거리는것을 듣지 못한듯 수일은 몸을 돌려 고뿌안의 감주를 발머리의 연약한 강냉이포기에 쏟아주었다.

《아니, 그건…》

분조원들은 놀란 눈길을 그에게서 떼지 못하였다. 전혀 뜻밖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박수일이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강냉이포기에 주는것은 술을 끊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게 아닌가.

《태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사람의 발전이란 모르겠구만.》

장명호는 의아해졌다.

(그러니 애순이가 분공 하나는 수행한셈이군.)

식사를 끝내고나서 분조원들은 잠시 휴식하였다. 올해농사가 지난해보다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들을 나누었다. 그들속에 끼여 담배 한대를 태우고는 강현구가 문득 공지복을 돌아보았다.

《분조장아바이,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그를 보자 장명호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프리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제기분자군. 그 버릇 고치

지 못했군.)

어제날의 일들이 순간적으로 뇌리에 스쳐지나갔다.

《저 등판의 첫머리에 방풍림을 더 조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풍림을?》

《이번에 피해받은걸 보면 나무를 마저 심지 못한 구간이 더 심한데…》

강현구는 손짓을 해가며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장풍덕의 바람은 여느때 보아도 하늬바람(북풍)이 기본이었다. 어디에 보금자리를 정하지 못한 바람은 거처할데를 찾아 정처없이 해매이다가 성미가 사나와져 이 등판에 이르러서는 아츠러운 휘파람소리를 내며 더 횡포하게 불어대는것 같았다. 소잔등처럼 번번한 등판의 곡식들을 마구 쓰러뜨리기도 하고 흙먼지를 허공중에 휘뿌리기도 하면서 기광이 나서 날뛰었다. 이 심술궂은 하늬바람의 덜미를 휘여잡으려고 공지복은 장풍덕에 오자 방풍림부터 조성해놓았던 것이다. 허나 나무를 더 심지 못한 등판의 첫머리에는 확실히 피해가 심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명호는 가슴이 띵떵했다. 어제날의 실책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때 자신은 오히려 나무심기를 하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커녕 중지시키지 않았던가. 오래전의 일이어서 누가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해도 오늘의 피해가 그 때문에 생긴듯싶어 얼굴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강현구의 의견을 듣고 농장원들이 떠들썩하였다. 나무를 마저 심어 자연을 길들여야 한다는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장명호는 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강현구만 해도 어제날의 말썽 많은 《제기분자》가 오늘은 얼마나 훌륭한 제기분자가 됐는가.

나무를 심자는 의견을 내놓은 강현구도 그렇고 그 의견을 선뜻 받아들이는 분조원들이 새롭게 안겨온다. 한마음한뜻이 된 화목한 대가정이런듯 싶다.

헌데 그 대가정에서 유독 박수일만이 호흡을 같이하지 못하는듯싶다. 그가 한옆에서 덤덤한 빛으로 입을 다물고있었던 것이다.

《수일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공지복이 꼬집어 물어서야 수일은 마지못해 입을 뻗었다.

《저야 뭐…》

(너석두, 왜 대답두 시원히 못해?)

장명호는 수일이가 못내 민망스러웠다. 좋다는 소리인지, 싫다는 소리인지… 그한테서만은 변화가 띄우지 않는다. 수일이가 이 외삼촌한테까지 그늘을 던져주는것 같아 불만스럽기 그지없다.

헌데… 공지복은 수일을 찾하지 않고 그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듯싶다. 못난 자식이라도 허물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이랄가.

이 땅에 자기 심혼을 다 바치고있는 공지복은 이제 는 년로한 몸으로 손에서 일을 놓을 때가 되었던 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땅과 숨결을 같이하고 있다. 그의 가슴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장명호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한채 농장원들과 함께 포전에 들어서서 강녕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는 작업을 하였다.

×

장명호는 드바쁜 생활속에서도 항상 장풍덕을 가슴에 안고살았다. 곡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것을 보느라니 그리로 마음이 더 끌리는것이였다.

강녕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제철에 끝낸데 이어 어느덧 포기들에 조절비료를 주어야 할 시기에 들어섰다. 장명호는 언제인가 읍에 나왔던 누이가 《공분조장이 비료문제를 풀자고 고심을 하고있지.》라고 한 말을 듣고난 후에 더구나 생각이 깊어졌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것인가.)

장풍덕을 돕는것은 장명호가 스스로 그러안은 도덕적의무였다. 한달전에는 자기판에 장풍덕을 도와준다고 지원로력을 보냈다가 공지복에게 무시당한것이 섭섭하기 그지없었지만 장명호는 그 감정을 애써 털어버리었다. 공지복이 오늘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앞으로는 알아줄 때가 있을것이라고 믿고싶었다.

그런터에 누이로부터 공지복이 비료때문에 고심하고있다는 말을 듣고나니 가만있을수 없었다.

올해 비료생산실태가 여전히 긴장한 상태라 모든 농장들에서 비료배정에 신경을 쓰고있었다. 농작물에 비료를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알곡수확고가 오르내리는것은 뻔한 리치다.

장명호는 비료가 아무리 긴장해도 장풍덕은 별도로 더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풍덕의 수확고가 올라가야 자신이 지닌 도덕적과제도 수행하는것으로 된다. 이번에는 공지복이 이 장명호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일것이라고 믿고싶었다.

장명호는 장풍덕으로 차를 달렸다.

드넓은 포전에 들어서니 실하게 자란 강녕이포기들이 푸른 잎들을 설레이고있었다.

논비를 맞을 때에는 농사를 망쳤구나 하는 걱정이 앞섰었는데 그래도 이 땅은 성실한 주인들에 의해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고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 것이다.

장명호는 차를 포전머리에 세워놓고 농장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농장원들은 일손을 놓고 한데 모여앉아 휴식을 하고있었다. 처음에는 오락회판인가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노래경연이란다. 새로 나온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농장원들이 차례로 일어나 부르는것이다. 아마도 갓 보급한 노래의 수준정도를 판정하는듯싶다.

장명호는 뒤에 앉은 공지복과 눈인사를 나누고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앉았다.

지명을 당한 사람마다 땅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절절히 부르곤 했다.

노래가 끝나면 애순이가 엄격한 시험관마냥 점수를 매기곤 하는데 최고점수가 4.5를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강현구가 지명되였다. 그는 기다리고있은듯 성큼 일어서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저력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노래의 세계에 폭 잠겨들던 장명호는 공지복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다.

《이제 곧 조절비료를 주어야겠군요.》

《예. 두벌김매기를 끝내고 주어야지요.》

공지복은 혼연한 자세였다. 그가 너무 쉽게 대답하는듯싶어 장명호는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그러자면 비료가 퍼그나 있어야겠는데...》

그는 자기 의향을 은근히 내비쳤다.

그러나 공지복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는 예돌지 않고 직방 다시 말했다.

《비료가 얼마나 더 요구됩니까?》

《얼마나 더 요구되는가구요?》

공지복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듯 반문하고나서 뜨직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비료를 더 돌려주면 다른 단위에는 그만큼 적게 차례지겠는데... 그만두십시오.》

《?》

장명호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번에도 거절이란 말인가. 리해되지 않는다. 아니, 자기 성의를 마다하는 공지복이 불만스럽기 그지없다. 자신이 그처럼 마음을 크게 먹고 도와주려는데가 또다시 무시당한셈이다. 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공지복의 처사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사람이란 남의 도움도 받을줄 알아야 하지 않는가....

《그럼 모자라는 비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명호는 다시 묻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위구를 던져주기라도 하듯 공지복이 대답하였다.

《마음놓으시우. 우리가 만든 흙보산비료가 큰 은을 벌겁니다.》

《흙보산비료요?》

《예. 강현구동무가 큰 문제를 풀었지요. 지난해부터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이 흙보산비료를 만들 파제를 안고 꾸준히 연구해온것이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도농업과학분원연구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토질에 맞는 흙보산비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분조에 수십마리의 돼지와 염소를 기르는 축산기지를 꾸려놓고 흙보산비료를 강녕이포기당 150그램씩 물어준다는것이였다.

이 비료는 일반거름 10배에 맞먹는데 씨앗을 묻기 전에 한번 주고 이제 곧 텃비료로 또 묻어주려고 한다는것이였다.

장명호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한달전 공지복이 포전머리에서 강현구가 최우등생이 되었다고 한것은 흙보산비료의 성공을 두고 한 말이었던것이다.

장명호는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 해동안 떨어져있느라 자신이 장풍덕사람들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날 이 고장이 마음에 없어 뜨려고 했던 강현구가 이처럼 큰일을 해놓다니...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이루어 비료문제를 풀라고 하는것은 당에서 요구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을 강현구가 만들어냈다는것이 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흙보산비료가 얼마나 은을 내는가 하는것은 가을에 가서 보아야 알 일이다. 그것을 믿고있다가 한해농사를 망치면...

공지복이 강현구로 하여 큰 랑패를 당하는게 아닐가.

요란한 박수소리에 장명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강현구가 노래를 3절까지 다 부른것이다. 분조원들을 둘러보던 그의 눈길은 공지복의 눈과 마주쳤다. 공지복이 한눈을 깜짝해보이자 강현구는 입가에 의미있는 웃음을 띠었다.

《이번 차례는 박수일동무입니다.》

그는 분조장이 무엇을 바라고있는지 제격 간파한듯싶다.

《그러되 애순동무와 수일동무의 2중창을 요청합니다.》

강현구는 박수일이 지명을 당해도 노래부르기를 주저할가봐 이런 기발한 착상을 한듯싶다.

《좋습니다!》 하는 웨침소리에 이어 귀를 멍멍하게 울리는 박수소리...

박수일이 댄계를 해 일어났다. 어디로 달아나려듯 한 자세였다. 허나 그보다 먼저 애순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끌어냈다.

《대중이 요구하는데... 무시하면 되겠어요?》

애순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먼저 선창을 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맘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

청아한 목소리가 신록이 짙은 산천에 유정하게 흘러갔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서정적인 선물이 사람들의 가슴을 숙연하게 그러당기였다.

수일의 나직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것이 알렸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농장원들앞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로 될것이다. 그의 석싹한 목소리와 애순의 맑은 목소리가 함께 어울려 들판에 울려 퍼졌다.

노래가 끝나자 공지복이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었다. 뒤이어 터져나오는 박수소리, 웃음소리...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5점ियो.》

관중이 점수를 매겨주었다. 그 소리에 수일은 목덜미까지 벌개져 황급히 뒤자리에 가 주저앉았다.

(허참, 언제 사람이 되겠는지...)

장명호는 실망하여 입만 찹찹 다셨다.

수일이가 이 외삼촌의 얼굴마저 깎아내리는듯싶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런데 공지복은... 수일이에게 느슨한 미소를 보낸다. 그가 노래를 부른것이 그렇게도 대견할가...

드디어 노래경연이 끝났다.

장명호는 흡족한 얼굴표정의 공지복에게 다시한번 말을 건넸다.

《분조장동무, 비료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흙보산비료만을 믿고있는 공지복이 아무래도 미덥지 않다. 순간의 실수로 한해농사를 망쳐버릴수 있다는 위구가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왜,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렇니까?》

공지복이 의아해했다.

《강현구가 만들어냈다는것이 아무래도...》

《부위원장동무, 일없습니다. 그 비료는 꼭 은을 낼것입니다.》

공지복의 말은 확신에 넘치였다. 그 비료에 확신을 가지는것은 강현구를 믿는다는것이 아닌가.

장명호는 더 의견을 말할수 없었다.

공지복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소리쳤다.

《자, 불이 번쩍나게 또 일손을 다그칩시다!》

그의 말에 분조원들은 방금 노래를 부르던 충천한 기세로 발으로 들어섰다.

수일이만이 맨 나중에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른다. 그가 분조의 발걸음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지각생으로 남아있는듯싶어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장명호는 속이 언짢았다.

장명호는 농장원들속에 끼여들지 않고 발머리에서 담배를 연신 갈아태웠다. 공지복에게 비료소리를 꺼냈다가 또다시 무안을 당한것이며 분조에서 기름우에 뜬 물방울같은 존재로 사는 수일이로 하여 가슴이 무겁기만 했다.

그날 저녁 장명호는 누이의 집을 찾아갔다.

저녁식사를 끝내고난 명호는 수일을 앞에 앉혀 놓고 엄하게 질책하였다.

《정말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겠니? 분조원들모두가 밝고 명랑한 기분인데... 언제까지 그러고있겠냐?》

그는 평시에 수일이한테 품고있던 불만을 그대로 터쳐놓았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사람들한테서 버림을 받는듯싶어 가슴이 아팠다.

그의 힐책에 수일은 잠자코 얼굴을 수그리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는 생활의 당당한 주인이 될수 없

어. 네가 정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면... 난 너를 조카취급하지 않겠다.》

장명호가 아픈 말을 해주어도 수일은 수그린 얼굴을 들지 않았다. 명호의 누이도 마음이 좋지 않아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성밀 가지고... 언제 총각신세를 면하겠는지...》

오랜만에 찾아왔건만 누이의 집에는 무거운 저기압이 드리워있었다.

×

새벽무렵이었다. 동녘하늘이 희끄무레 밝아오는 리만령을 넘어서자 달리는 승용차에서 깜박 쪽잠에 들었던 장명호는 눈을 번쩍 떴다.

(이젠 다 왔구나...)

그는 중앙에서 열린 농업일군협의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판철하기 위한 협의회가 끝나자 그밤으로 평양을 떠났던 것이다.

장풍덕이 가까와오자 그는 자연히 공지복과 그의 분조원들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갔다.

(일이 이렇게 될줄은...)

몇달전 장풍덕에 가서 공지복에게 비료소리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생각을 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때 자기는 강현구가 만들어냈다는 흙보산비료를 믿지 않은데로부터 한해농사를 망칠듯싶어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었다. 강현구를 믿고있는 공지복이 불만스럽기만 하었다.

헌데 뜻밖에도 현실은 예상을 뒤집어놓았다. 흙보산비료를 준 그 땅에서 강냉이들이 팔뚝같은 이삭들을 척척 드리우고 풍작을 이루지 않았는가.

자신으로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강현구의 노력이 그렇게 큰 은을 낼줄은...

공지복은 그때 벌써 앞날을 내다보고 오늘을 확신한듯싶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는것은 강현구를 믿었기때문이라.

헌데 나는... 왜 그 사람을 믿으려 하지 않았는가. 그를 믿지 않았기에 흙보산비료에도 의심을 품지 않았던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눈과 사고가 확실히 뒤떨어진듯싶어 장명호는 피로왔다. 장풍덕을 위하는 마음은 공지복이나 장명호가 같다고 할수 있으나 사고와 행동에서는 또다시 크게 빗나간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장명호는 이 의문을 풀어보려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가 장풍덕을 지나쳐 읍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푸르스름한 대기속에 기다란 달구지행렬이 나타났다. 거름을 무둑무둑 실은 달구지들을 끄는 소들은 1월의 맵짠 추위에 허연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어느 농장에서 이렇게?...)

차창밖으로 그들을 눈여겨보았으나 털모자를 쓴 사람들의 얼굴에 성애가 허영계 내불려 가려보기 어려웠다.

차에서 내려 그들가까이에 다가선 장명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맨앞에서 달구지를 끌고오는 사람은 공지복이었던것이다. 그뒤로는 강현구, 박수일... 장풍덕의 낮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아바이!》

장명호가 반갑게 부르자 공지복은 어쭙게 웃으며 읍에서 진거름을 실어오는 길이라고 했다. 성애가 잔뜩 내불린것을 보니 벌써 두탕째인듯싶다.

(새해벽두부터 농사차비에 나섰구나...)

장명호는 코허리가 시큰해졌다. 이른새벽에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난 공지복과 그의 분조원들은 그들이 얼마나 높은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인가를 강조해주는듯싶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더운 숨결이 끼쳐오는듯 하였다.

그는 밤을 지새우며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공지복과 그의 분조원들에게 무어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공지복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기만 했다.

뜨거운 눈길로 달구지행렬을 지나보낸 그는 공지복에게 요새 수일이야 일을 어떻게 하고있는가고 물었다. 방금 띄어본 수일이야 어딘가 달라져 보였던것이다.

공지복은 흔연히 대답하였다.

《일을 잘하지요.》

그 말이 장명호에게는 자기를 위안해주려는 인사치레의 말로 들리었다.

《그 애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우. 내 요먼저 갔을 때 엄하게 욕을 해주긴 했지만... 그 애는 안되겠습니다.》

장명호는 자기의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공지복은 담배를 몇모금 빨고나서 뜨직뜨직 이야기했다.

《그라고 왜 훌륭한 사람이 못되겠습니까. 성격이 좀 이지러진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달렸지요.》

공지복은 수일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달라지리라는것을 믿고있는듯싶었다.

장명호는 그를 너무 치제시키는듯싶어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는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에 높이 세운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영농준비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날이 저물어 퇴근차비를 하고있는데 가벼운 문기척이 울렸다.

방에 들어서 깅듯이 인사를 하는 처녀는 공애순이었다.

《아니, 애순이가 어떻게?...》

너무 뜻밖이어서 장명호는 그한테서 눈길을 떼

지 못했다.

《선동원강습에 나왔다가… 좀 들렀습니다.》

어느때에는 밝고 명랑한 빛이 떠돌던 그의 얼굴에는 한가닥 수심이 어려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것은…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게 분명했다.

《자, 여기 앉아 이야기하오. 무슨 일이 있는지…》

장명호는 처녀를 쏘파에 앉히고 자기도 그 한옆에 자리를 잡았다. 애순이는 머리를 다소곳이 수그리고 한동안 쭈뼛거리다가 나직이 긴숨을 내쉬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건…》

처녀는 잠시 말을 끊고 머뭇거렸다.

장명호가 물 한고뿌를 떠주자 애순은 한모금 마시고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해 강냉이밭김매기를 할 때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수일동무는 안되겠어요. 전 아버지가 바라는대로 그 동무의 얼굴에 웃음을 피워보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애써보고 있는 힘껏 노력했는데 안되겠어요.》

애순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거냐?》

공지복은 딸의 마음을 묻고있었다. 애순이는 고개를 수긏하고 한동안 웃기만 매만지다가 입술을 뺐다.

《그 분공만은… 힘들것 같아요.》

《힘들다고?…》

《그 사람이 어디 움직여요? 돌심장같은게…》

그 말에 굳어진듯 공지복은 딸의 얼굴을 한동안 여겨보다가 힘주어 말하였다.

《아니, 너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요?》

《그 심장도 움직일수 있다. 너는 그 사람이 노를 부르게 하지 않았냐?》

《그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웃게 하는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와 딸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깃들었다. 밤의 호젓함을 깨며 어디선가 점동새의 울음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왔다.

이윽하여 공지복은 담배 한대를 태우고나서 딸을 은근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애순아, 내 너한테 그 사람을 웃게 할수 있는 비결을 대줄가?》

《비결이요? 그게 뭔데?…》

애순은 얼굴을 들며 두눈을 반짝 빛냈다.

공지복은 그에게 마주 웃음을 보이며 천연스럽게 말하였다.

《그건… 네가 그 사람의 길동무가 되는것이 다.》

《길동무라니요?》

애순이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듯 아버지의 얼굴

을 얼없이 바라보다가 그만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나니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모양이었다. 그렇게 한참 웃고는 눈에 그렇게 고인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나서 새침하여 옆으로 돌아앉았다.

공지복은 딸을 지켜보며 목소리를 추슬리었다.

《웃음이란 억지로 지을수 없는게 아니냐. 마음이 즐거워 저절로 우러나오는게 웃음이지.》

《…》

《그 사람이라고 웃음을 모를수 없다. 마음속 그늘을 가셔주고 기쁘게 해주면 그의 가슴속에서도 웃음이 저절로 나올수 있다. 너는 이제까지 그와 생활을 같이하면서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지 않느냐. 너만이 그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고 기쁘게 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여도 애순이는 돌아앉은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공지복은 또 한대 피워뭍 담배불을 비벼끄고 타이르듯 말하였다.

《너는 오늘까지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도 들어주지 않은적이 없었지. 네가 와서 분조를 한가정처럼 밝고 명랑한 집단으로 만들어놓았지. 다만 한사람 수일이만이 그렇지 못해… 네게 분공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를 외면해서야 되겠니. 그 사람도 달리 될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한식솔이 되여야 할게 아니냐.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훌륭한 농민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걸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조직이 주는 파업으로 여기었으면 한다.》

《조직이 주는 파업》이라는 말에 애순이는 얼굴을 한번 쳐들었다가 다시 수그렸다.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다가 아버지와 딸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것을 듣고 뒤미처 올라온 어머니가 불만이 가득해서렁 감에게 대들었다.

《당신 실성하지 않았수? 딸을 고이 길러 그런 사람에게… 그건 안돼요.》

공지복이 안해를 엄하게 꾸짖었다.

《그 사람이 왜 어드래서… 인물 잘났겠다, 일도 잘하겠다, 다만 성격이 좀 이지러져서 그러는데… 그건 고칠수 있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수 있소!》

하도 공지복이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꼭 눌러놓자 안해는 더 입을 열지 못했다.…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서 분공을 받았지만… 의무감으로는 도저히…》

애순이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가늘게 떨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장명호는 가슴에 지긋한 아픔을 느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해있던 처녀에게 이런 시름을 끼치다니…

아무래도 공지복이 너무한것 같다. 자기 딸이라고 해도 사랑마저 강요하는것은 지나친것이 아닌가. 수일이를 위해주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그의 처사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다. 공지복의 요구가 도를 넘어선듯싶어 가슴이 저려들기가

지 했다. 만약 그가 앞에 있다면 《이런 판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면박을 주고싶은 심정이였다.

헌데 처녀는 아버지의 부탁 아니, 조직의 분공을 받고 집행하지 못하고있는것을 피로와하고있지 않는가.

내자신도 장풍덕사람들을 도와주는것을 의무로, 스스로의 분공으로 받아안았지만 이 처녀처럼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며 마음을 써보지 못한듯싶다.

처녀가 찾아온것이 고맙게 여겨졌다.

이윽하여 처녀는 얼굴을 쳐들었다. 축축히 젖은 그의 두눈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묻는듯 했다.

장명호는 한뼘기 싱그러운 들국화처럼 깨끗한 이 처녀를 도와주고싶었다. 그의 얼굴에서 그녀를 가쳐주고 웃음을 꽃피워주고싶었다.

허나 무슨 말로 처녀의 마음을 위안해주랴.

《애순이, 아버지의 말을 너무 심각히 새기지 마오. 사랑이란 의무감으로 할수 없지. 아버지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런 소리를 한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생각에도 애순인 우리 수일에게 너무 과남하오. 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으니 이 문젠 더 신경쓰지 마오.》

장명호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나서 가슴이 답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닐었다. 처녀가 마음을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얼마후 애순은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수건으로 짖어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명호에게 공연히 걱정을 끼친듯싶어 죄스러워하는 빛이였다.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는 처녀를 바라우는 명호의 마음은 무겁기 이를데 없었다.

봄빛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갔다.

어느날 장명호는 도일보에서 《장풍덕의 실농군》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는 겨울철기간 읍에서 진거름을 실어내는 전투에서 실적을 제일 많이 낸 박수일을 크게 소개하였다. 기사를 읽느라니 수일의 소행보다도 그를 뒤에서 말없이 떠밀어준 공지복의 마음이 뜨겁게 마쳐왔다.

(어제날의 《지각생》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장명호는 마음같아서는 그달음으로 달려가 장풍덕사람들을 만나보고싶었다.

그는 군안의 협동농장들의 씨불임정형을 한주일 남짓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섰다. 이제 마지막일정으로 읍농장을 찾으려던 참이다.

그런데 들어서자바람으로 장풍덕에 있는 누이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래일 수일의 결혼식을 하니 짬을 내어 오라는것이였다.

결혼식이라니? 나이차도록 혼사를 이루지 못하고있던 수일이 결혼식을 하다니?!...

《색시는 누구요?》 하고 다급히 묻는 명호의 말에 누이의 목소리가 청높이 울렸다.

《누군 누구겠나. 공분조장의 딸 애순이지...》

그 다음말은 잘 가려들지 못했다. 놀람, 충격... 몇달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안고있던 애순이가 어떻게...

장명호가 의혹을 품고있는데 누이가 두서없이 말해주었다. 수일이가 어제날의 수일이가 아니라는것, 사람들에게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것 등등...

장명호는 이 뜻밖의 경사가 얼른 믿어지지 않았다. 얼마전 신문기사에 수일의 사진과 함께 크게 소개된것이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이렇게까지 그를 키워주느라 공지복아바이가 얼마나 원심을 썼으랴.

그러지 않아도 읍농장에 가려고 했던 장명호는 마침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에 들고갈 물건을 준비하고 이튿날 아침에는 장풍덕으로 향했다.

먼저 관리위원회에 들러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었다. 그들의 결혼을 성사시켜온 공지복에게 머리가 수그러졌다. 한 농장원의 생활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자기 딸에게 특이한 분공을 주더니 오늘은 또... 이것은 공지복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그 아바이의 사심없는 노력에 비해볼 때 나는 수일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걱정이나 하고 장풍덕에 비료를 더 주겠다고 선심이나 쓰려고 했지...

얼굴이 뜨거워졌다. 누이를 볼 낮이 없거니와 공지복분조장을 대하기가 더더욱 미안하고 죄스러운 심정이다. 하지만 자신을 심심히 뉘우쳐보는 립장에서 그들의 결혼식을 찾아가보는것이 도리일것이다.

그는 장풍덕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가 하다가 그만두었다. 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차에 올라앉았는데 오늘은 어쩐지 저어되는것이였다.

한낮이 거의 되어서야 명호는 장풍덕기슭에 오봇이 모여앉은 마을어구에 다달았다. 그런데 공지복의 집이 별로 조용했다. 오늘 분명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공지복과 신랑신부는 어디로 갔을가.

손목시계를 굽어본 장명호는 걸어오느라 시간이 퍼그나 지체됐음을 알수 있었다. 때마침 나타난 옆집로인이 알려주었다.

《그 집에서 신랑신부가 상을 받고나서 모두 포전으로 나갔수다.》

장명호는 리해가 되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농장에서는 씨불임을 전부 끝내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포전에는 왜 올라갔을가.

내친 걸음이라 그들을 찾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등판으로 오르자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 산판에는 신록이 한창 짙어가는데 축축히 젖어 부풀어오른 포전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 오른다. 사위를 둘러보던 그는 등판의 북쪽에 사람들이 있는것을 띄여보았다. 분명 분조원들이였다.

(무엇을 하고있을가?)

의문을 풀지 못한채 그리로 다가가니 등판의 첫머리에서 농장원들이 한줄로 주련이 서서 구멍이들을 파고있었다. 앞에는 사람의 키만큼 자란 이깔나

무모들이 무드기 놓여있었다.

그들속에서 몸이 거울진 공지복이며 결혼식옷차림의 박수일과 공애순이 눈에 띄게 안겨왔다.

(나무를 심는구나...) (나를 심는구나...)

장명호는 크지 않은 단풍나무에 몸을 의지한채 그들앞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다. 결혼식을 하고나서 신랑신부뿐아니라 온 분조원들이 떨쳐나 등판의 첫머리에 나무를 심고있는것이다.

지난해 봄 자연피해를 받고 방풍림을 채 완성하지 못한것을 몹시 가슴아프게 여기더니... 그 빈자리를 메우고있지 않는가.

이윽하여 공지복이 허리를 펴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하였다.

《여보게들,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게 쉽지 않아. 나는 이즈음에야 장풍덕의 진짜 주인이 되려면 멀었다는걸 깨달았네.》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농장원들은 한동안 그 뜻을 새겨보는듯 잠자코 있었다. 삽날이 땅에 부딪치는 쟁그렁거리는 소리만 울릴뿐...

고즈넉한 정적을 깨며 문득 강현구가 말을 건넸다.

《수일이, 그 나무를 잘 심게. 줄대같이 실한 나무를 심는걸 보니 아들을 낳을거네.》

그러자 그의 옆에서 미끈하게 자란 이깔나무를 심던 박수일이 허리를 펴며 응수했다.

《아니, 나는 딸을 낳았으면 하오.》

《딸이라니?》

《우리 애순이와 같은 <종다리>로 불리우는 딸을 말이요.》

박수일이 천연스레 말하자 손으로 나무를 묻어주던 애순이가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다.

《뭐라고요?》

그는 두주먹으로 수일의 어깨를 마구 두드렸다.

《아야, 이거 아프구만!》

아픈 시늉을 하며 그 때를 고스란히 맞는 박수일의 얼굴에는 웃음이 활짝 피어났다.

(아니, 저 애가?)

장명호는 그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박수일이 웃는것을 처음 보는것이다. 공지복이 딸에게 특이한 분공을 주더니... 그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환히 웃고있는 저 수일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저렇게 한껏 웃음을 터치는가.

장명호는 눈앞이 부딪해졌다. 한가슴에 받아안기 어려운 세찬 충격에 몸을 떨었다. 오늘의 현실을 보느라니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장풍덕을 놓고 공지복과 나 장명호라는 두 일군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 눈앞에 떠오른다.

공지복이도 이 땅의 주인이고 나도 이 땅의 주인이라고 자부해왔었다.

헌데 땅을 대하는 두사람의 사고와 행동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땅을 책임진다는것은 곧 그를 다루는 사람들을 책임진다는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할수 있다.

그동안 공지복은 장풍덕을 옥토로 만들었을뿐아니라 이 땅을 가꾸는 농장원들도 참된 주인들로 키워놓았다. 어제날 몸쓸 사람들과도 했던 강현구나 박수일이도 얼마나 몰라보게 성장했는가.

공지복, 그는 높은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땅처럼 솔직하고 땅처럼 진실하며 땅처럼 근면한 농민, 그의 가슴에 보석처럼 묻혀있는것은 무엇인가. 이 높은 장풍덕에 뿌리를 내려 땅과 한생을 같이하고있는 그 자양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국이였다. 이 땅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곡식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위해서라면 자기 손가락을 끊어 피를 방울방울 떨어뜨려서라도 살리는 그 진정이라. 천금같이 귀한 그 마음을 밀거름으로 하여 인간의 숲이 자라나고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는것이 아니라.

(헌데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의 난알을 먹고 자라났지만 이 땅을 위해 무엇을 바쳤던가. 농사를 두고, 사람들을 두고 마음속으로 걱정이나 하고 안타까와하기만 했지 내 한몸을 바쳐 내면것이 무엇인가. 장풍덕에 지원노력을 보내고 비료를 더 주려고 한것은 결국은 체면이나 세우고 자신을 위한것이냐 다름없었다. 좋은 땅을 골라다녀 오늘의 지위에 올랐지만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은 가랑잎처럼 가볍지 않은가.

공지복과 너무도 대조되는 자신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 하거늘...)

장명호는 그 자리에 더 머물러있을수 없었다. 어제날의 오점을 씻기 위하여, 이들과 한마음한뜻이 되기 위하여 숨결을 같이하여야 한다. 그는 단풍나무뒤에서 불쑥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가슴이 격해올라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농장원들은 뜻밖에 나타난 장명호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장명호의 얼굴에 비친 자책의 그늘을 띄어보고 그에게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를 엿본듯싶다.

《부위원장동무, 어서 오시오.》

공지복의 인사에 장명호는 가슴을 들먹이며 말하였다.

《저도 함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는 한 농장원이 넘겨주는 삽을 받아 땅에 힘있게 삽날을 박았다. 잠간새에 구멍이 하나를 파놓은 그는 공지복과 함께 나무 한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이마에 흥건히 내뺀 땀을 닦고나서 나무를 심고있는 공지복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돌아가는 길로 군안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 등판에 아니, 군안의 산들에 나무를 심을 결심을 하였다.

하늘에 높이 떠오른 태양은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아낌없이 던져주고있었다.

병사들아 《헤쳐》

김 광 호

런속행군의 길
산넘어 강을 건너가는 길
털맞춰 행군하던 병사들은 보았네
물길에 빠진 농장의 트랙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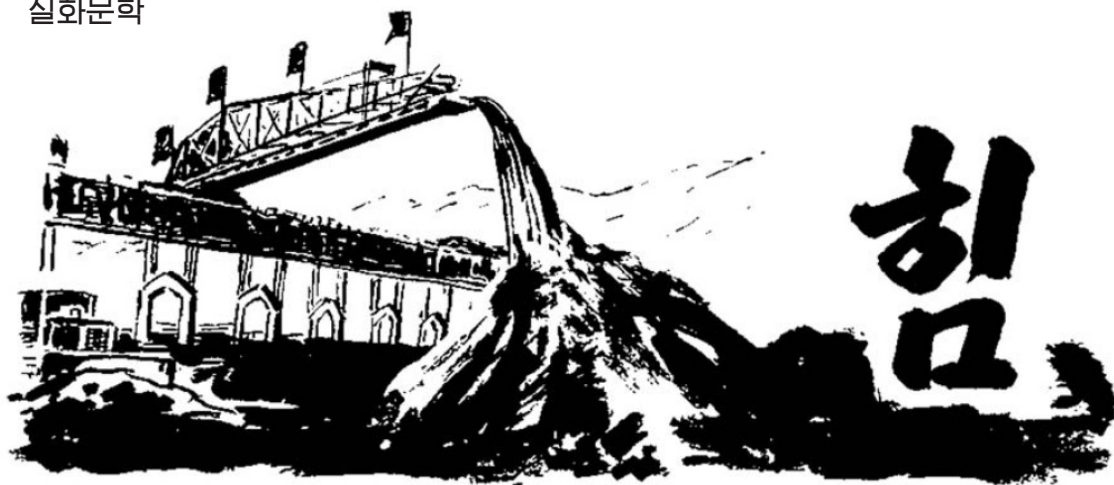
시간은 행군길 재촉해도
인민을 위한 일 어이 스쳐지나랴
저 트랙토르 어서 건져주고 가자고
모두의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인가
지휘관의 구령소리 크게도 울리네
병사들아 《헤쳐》

오, 지휘관의 이런 구령
행군의 먼길에 벌써 몇번째더냐
불어난 개울가에선
학교가는 아이들을 위해
길가의 밭이랑에 돋은 잡풀을 볼 때면
휴식점 저 풀을 뽑아주고 가자고...

인민을 도와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워가는 길이어서
훨훨 나래가 돋치였는가
트랙토르 건져주고
병사들은 털을 지어 다시 떠나네

헌데 마주오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앞장에 선 저 청년은 트랙토르운전수
달려오는 아이들은 물건네준 학생들
병사들의 흠뻑은 손 뜨겁게 잡아주던 그 농장
원들

자, 병사들아 또다시 《헤쳐》
지휘관의 구령소리 들에 정답게 울리네
어서 인민들과 포옹하자
대렬은 비록 헤쳐저도
군민의 정은 더욱 두터워지고
군민의 단결은 더 굳세지는데야!



홍 남 수

종합진단을 받고난 김봉찬은 병원에 온것을 후회했다.

《과장선생, 나에게 한가지 약속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 병을 우리 공장사람들, 더우기 연합책임비서동지에게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외모가 준수한 50대의 도인민병원 내과과장은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하였다.

《지배인동무,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두석달이면 완치될수 있습니다. 뭘 숨기겠습니까. 지배인동무의 병은...》

《바로 그렇기때문에 촉박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난 할일을 아직 다 못한 사람입니다.》

《안됩니다.》

과장도 물리설 잡도리가 아닌지 어조가 꺾였었다. 봉찬은 부지불식간에 과장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과장선생, 부탁드립니다. 선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만약 입원실에서 생명이 끝난다면 전 생을 깨닫지 못하리란 자책을 죽어서도 느낄겁니다. 그리고 전 아직 이렇게 육체가 든든하지 않습니다. 허허.》

그날 집으로 돌아온 봉찬은 일기장에 자작시 한 구절을 적어넣었다.

시간이여 나에게 좀

너를 거머쥘 힘이 없구나

하지만 내 너의 노력로는 살지 않으리

시간이여 나를 위해

그 퍼덕임 잠시 늦추어다오

나를 위해

그 박동

잠시 더디어다오

생명의 이 불꽃 꺼지는 순간까지

시간이여 내 너와 함께 목숨을 걸고 경주하련다

×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갔구나. 결국 우리는 증제품을 성공하지 못하고 이해를 보낸단 말이지. 과연 증제품은 손에 쥘수 없는 미지수란 말인가?...)

팔을 엇걸고 창밖을 점도록 내다보는 개천탄광연합기업소 신립탄광 증공장 지배인 김봉찬의 머리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있었다. 창밖에서는 이해를 마감짓는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있었다. 좀전까지 설된 눈발속에 뿌연게 안겨오던 저 멀리의 들쭉날쭉한 백산도 보이지 않았다.

봉찬은 한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줄은 몰랐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의 흐름은 고정불변하지만 이해는 정말로 눈깜박할 사이에 흘러간듯싶다.

똑똑... 누구인가 나들문을 두드렸다.

《예.》

문쪽으로 몸을 돌리던 봉찬은 량미간을 찌프러였다. 중키에 하판이 빠른 책임기사 엄정철이 문을 열고 스적스적 들어와 맥없이 걸상에 주저앉았던것이다.

《책임기사동무, 뭘 그렇게 어깨가 처져 그러오? 아무렴 그 일이 딱딱둑 쉽게 되겠소. 다음해에는 무조건 성공시키지요.》

바로 몇시간전에 증제품시험이 있었다. 이해의 마지막시험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정철은 아직 실패의 쓴맛이 입안에 맴돌고있는듯싶었다.

《지배인동지는 다음해에도 증제품을 계속 안고 씨름을 할 생각입니까?》

《끝장을 봐야지. 물론 동무가 로동부원을 겸하면서 그걸 성공시키자니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들거요. 정 힘들면 로동부원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소.》

정철은 어깨숨을 후— 내쉬었다.

《지배인동지, 전 그래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공장에서는 증제품을 성공시킬것 같지 못합니다. 힘이 제한되어있는 공장이 목표를 너무 높이 세운것 같습니다.》

《?...》

봉찬은 왜서인지 왼쪽판자노리가 띠끔 저러왔다. 무슨 말을 하려던 그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거운 물체가 가슴을 짓누르듯 압박감을 느꼈다.

힘, 정말 우리 공장은 힘이 제한되어있는가? 그렇다면 어느만큼 힘을 가지고있는가?... 아니, 책임기사는 생각을 잘못하고있다. 우리 공장은 힘을 가지고있다. 나자신은 물론 사람들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을뿐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것은 마치 길없는 십산속에 들어선것과 같은것이다. 공장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아무리 십산속이라 할지라도 길을 낼 수 있다.

공장이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증제품을 자체로 만들어 생산할 결심을 한것은 한해전이었다.

책임기사 겸 로동부원인 정철이 그 일을 자기가 맡겠다고 솔선 나섰다. 정철이가 그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던 봉찬은 선뜻 찬성해주었다. 그리고 유명무실해졌던 공장을 활성화하는데 한몫 한 책임기사의 능력을 잘 알고있는지라 그를 책임자로 한 기술혁신조도 무어주었다.

그런데 실패를 거듭하는 속에 한해가 흘러갔다. 그러나 봉찬은 책임기사의 능력을 놓고 한번도 저울질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철이 스스로 포기할 생각을 하고있다. 그도 이제 치친 모양이다.

신립탄광에서 로동과장을 하던 김봉찬이 이 증공장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에 대한 평가를 서둘러 하지 않았다. 시간만이 정확한 평가를 내릴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례지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닌것이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조용하나 저력이 느껴지는 목소리, 이따금 나타내곤 하는 긴장한 표정은 어떤 일도 허술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명 평시에는 두드러진데가 없

다가도 일단 일을 손에 쥐면 남다른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임을 알수 있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했다.

고난의 행군전까지 공장은 자기의 체모를 갖추고 생산을 정상적으로 했었으나 그후 점점 조락하여 ××탄광 생필직장에 배속되었었다. 그렇게 몇년이 흘렀다. 공장이 다시 독자적인 기업소로 된것은 련합기업소에 책임비서가 새로 온 후였다. 련합기업소에서 공장이 차지하는 몫이 자못 중요하다는것을 재삼 인식한 일군들은 성과 합의하여 기구체계를 재정리하여 공장을 다시 일떠세우기로 하였던것이다. 이제는 공장을 이끌고나갈 능력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김봉찬이 오게 된것이였다.

봉찬은 증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받고 책임비서와 함께 내려와 공장을 돌아보았다. 어느 한 건물안에 들어서던 봉찬은 저도 모르게 코를 싸쥐었다. 보매 건물을 염소우리로 쓰던것 같았다. 책임비서가 건물안을 휘— 둘러보고나서 우스개소리로 말했다.

《지배인동문 한 10년은 염소고기생각이 나지 않겠소.》

책임비서가 떠나간 후 봉찬은 머리속이 텅 빈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공장의 실패는 생각했던것보다 더 막연했던것이다. 지금 형편에서는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한 자리에 굳어진듯 앉아있는 봉찬에게로 책임기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한사람이 다가왔다. 엄정철이라고 했다. 정철은 봉찬이보다 한발 먼저 공장에 온 사람이였다. 그는 봉찬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이렇게 말했다.

《지배인동지, 우리가 이거 동진 오소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장을 활성화할 힘이 없습니다.》

《?》

봉찬은 피끗 그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자존심이 꿈틀 살아났다. 그는 움쭉 몸을 일으켰다.

《힘은 있소. 그건 바로 사람들의 정신력이요. 그 정신력을 분출시켜야 하오.》

봉찬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공장을 개건하고 현대화하는것부터 첫걸음을 크게 내짚었다. 그의 사색은 부단히 움직이며 넓은 공간을 형성하였고 힘을 발휘하였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군인으로 탄광에 달려와 일하면서 탄광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봉찬은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혁신도 동시에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오늘에 와서 공장은 자기 위치를 당당히 차지할수 있었다. 올해에 증제품까지 성과를 보았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기업소로 되었을것이다. 고즈넉한 방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지배인동지.》하고 엄

정철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제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따질 사람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쪽대발 같던 공장을 이만큼 추켜세운것만도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

봉찬은 흠칫 어깨를 떨었다. 한순간 그에 대한 실망이 봉찬의 온몸을 휩쌌다. 정철은 그의 눈길을 외면했다. 봉찬은 증제품에 선뜻 발벗고나섰던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싶었다. 혹시 열매를 쉽게 얻을수 있다는 타산이 앞섰는가?

정철은 돌아가려는듯 몸을 일으켰다. 그제서야 봉찬은 입을 열었다.

《책임기사동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소. 그동안 우리는 증제품을 성공시킬수 있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찾아쥐었소. 창조한다는게 무엇이겠소. 무에서 유를, 남들이 해놓지 못한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것이 아니겠소. 동무의 말처럼 우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놓았소, 그래서 평가도 받고. 하지만 오늘 큰것이 래일에는 작아지고 대신 오늘 작은것이 래일에는 커진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한번 더 힘을 내지요. 우리가 파박막으로 ㄷ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고심했소. 그러나 우리는 끝내 성공시켰소. 그때처럼 머리를 쓰고 힘을 바치면 될거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수입원료에 의거하던 ㄷ제품을 파박막으로 생산한것은 고심참담한 노력의 열매였다. 그것을 성공시킴으로 하여 개천탄광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을 위한 한 고리를 완전히 풀수 있었다.

정철은 머리를 수그리고 사무실앞마당을 가로질러갔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뚜렷치 않은 발자국이 눈우에 찍혀졌다. 그는 활동력을 잃고 어떤 고독감에 사로잡혀있는듯싶었다. 막연한 고심, 감정을 상실한 의식, 목적없는 움직임...

얼마후 사무실을 나서 현장으로 올라가던 봉찬은 설비가공실에서 튀어나오는 온갖잡은 목소리에 무뎌 멈춰섰다.

《동문 찍하면 치료를 받겠는데 그럴바에는 아예 사회보장수속을 하오. 공장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지 말고.》

뒤이어 가공실문이 필썩 열리더니 선반공 영태가 나와 저쪽으로 터벌터벌 걸어갔다. 엄정철이 그를 따라나오다 봉찬이를 보자 굳 입을 껌 다시였다. 봉찬은 영태의 뒤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또 며칠동안 치료를 받겠다는겁니다. 핑계지요. 집에서 자본주의를 하는지... 차라리 다른 선반공을 데려옵시다. 영태보다 기능이 높은 선반공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만두오. 나무도 서있는 동안은 그 높이를 재지 말아야 한다고 했소.》

영태는 공장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지만 선반 기능이 높아 공장에서 제기되는 부속품은 손색없이 가공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장점은 사람들한테서 그닥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따금 출근을 하지 않아 기대를 비워놓을 때가 있었던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를 평가하고싶지 않았다.

정철이가 또 한마디 껌끼었다.

《선반기능이 좀 높다고 해도 공장에 크게 힘을 보태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백명이 있어도 필요없습니다.》

《?...》

봉찬은 정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이전에는 그한테서 지금처럼 뻥뻥한 말을 들어본적이 없는것 같다. 확실히 정철은 성격이 변했다. 왜 그럴가?... 증제품실패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탓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착급한 성격을 가지고있었지만 지금까지 억제하고있었는가?...

《책임기사동무, 난 달리 생각하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있소. 나나 동무가 못하는 일을 그가 많이 한거야 사실 아니요. 그를 잘 도와주지요.》

엄정철은 봉찬의 말을 리해할수 없다는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날 봉찬은 좀 늦어 영태네 집을 찾아갔다.

《영태동무!》

《누구요?》

《나 지배인이요.》

봉찬은 제잡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태는 방안에 벌려놓은 잡동사니들을 황황히 거두며 묻지도 않는 말을 개면쩍게 중얼거렸다.

《누가 접철을 만들어달래서...》

봉찬은 인츰 짐작이 갔으나 별다른 내색없이 접철을 하나 집어들었다.

《영태동무, 이거 공장제품이 왔다가 울고가겠소. 나도 쓸데가 있어 그러니 몇조 만들어주오. 값이 얼마요?》

《지배인동지는 무슨 말을...》

영태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몸을 궁싯거렸다. 그의 몸가짐과 얼굴표정을 보아 본래는 불성실한 사람이 아님을 느낄수 있었다. 방안을 둘러보던 봉찬

은 집살림이 여의치 않다는것을 첫눈에 알았다. 어두운 그들이 봉찬의 얼굴을 서서히 감쌌다. 불현듯 얼마전 일이 되살아났다.

…그날 공장에 내려와 제품을 만들고있는 키가 작고 몸이 약해보이는 한 로동자처녀를 바라보던 책임비서가 이렇게 물었다.

《지배인동무, 저 처녀가 지금 몇살이요?》

《스물한살입니다.》

《영?》

한순간 책임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배인동무, 종업원들 생활에 낮을 돌리오. 처녀가 스물한살이면 한창 망을 터칠 때인데… 생활이 어려운것 같소. 밥그릇이 낮으면 일능률도 나지 않소.》…

그때 일을 되새겨보는 봉찬은 자신에게서 빈공간을 포착하고 충고를 준 책임비서의 말을 지금껏 홀려보냈다는 자책을 하게 되었다. 책임비서는 순수 사람들의 생활만을 녀두에 두고 이야기한것이 아니었다. 공장이 앞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자면 사람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것이 어떤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사활적인 일이라고 봉찬은 생각하였다.

봉찬은 대문밖까지 따라나온 영태의 손을 잡아쥐며 조용히 말했다.

《영태동무, 자기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으며 사는것이 인생의 최대의 즐거움이고 가장 큰 기쁨이 아닐가. 난 앞으로 동무가 우리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기를 믿소.》

영태는 고개를 수그리었다. 봉찬은 마을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그는 자기한테 아직 메워야 할 빈구석이 많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

봉찬은 요즘 중학시절에 담임선생한테서 들었던 한토막의 이야기를 때없이 되살리곤 하였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어떤 물체를 얻으려고 모지름을 쓰며 그 연구에 한생을 바쳤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체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는 생을 마치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물체를 찾고찾았다. 하여 그는 눈을 감기 전에 제자들앞에서 이런 말을 남기었다.

《그 물체는 있소. 난 저승에 가서도 그것을 확증하겠소.》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찾으려는 그 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입을 열 힘이 없는지 손을 올려 허공에 이렇게 썼다.

《그 물체는 0에서부터 무한대사이에 있다.》

제자들은 실망해버렸다. 자기들이 믿고 존경하던 스승이 이렇게 허무한 사람이었던가?…

봉찬은 텅 빈 공장안에 홀로 남아있었다. 조금전에 증제품시험을 진행하였다. 봉찬은 새해에 들어와 진행하는 첫 시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을 걸었었다. 허나 착실히 준비한 시험이 또다시 실패로 끝난것이다. 결국 새해에 내짚은 첫걸음이 빈걸음으로 된것이였다. 혹시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계속 빈걸음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마음을 옥죄어들었다. 책임기사는 오늘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할가?

봉찬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언제 자리를 뒀는지 책임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문득 조금전 시험이 한창 진행될 때 얼핏 본 정철의 얼굴이 되살아났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철의 얼굴에는 초조해하거나 긴장한 빛이 전혀 없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심한 표정이였다. 시험이 실패했을 때도 아무런 감정변화도 나타내지 않았다. 마치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있은듯이…

날씨는 몹시 찼다.

숨웃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사무실로 스적스적 걸어가던 봉찬은 한자리에 못박힌듯 멈춰섰다. 불시에 책임기사에 대한 노여움이 쿵 솟구쳐오르는 것이였다.

(책임기사가 물러선다고 나까지 물러설수는 없다. 물러설 사람은 물러서라지. 나 혼자서라도 끝장을 봐야 한다. 그동안 랑비한 시간과 자재, 자금을 봉창하자고 해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 아니, 그것은 둘째 문제이다. 도중에서 물러선다면 사람들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나중에는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할수 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증제품을 성공시키는데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물론 책임기사가 없다고 해도 성공시킬수는 있겠지. 그러나 누구든 자기의 힘을 알게 하고 그 힘을 분발시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것을 마음속에 새겨주는것이 더 중요한것이다. 인간은 자기 힘을 알 때 두려움을 모르는 강자가 되며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것이다.)

이때 로동파에서 나오던 김선화가 봉찬이한테로 자박자박 걸어와 밀도끝도없이 설분을 토했다.

《지배인동지, 제가 꼭 부업발에 나가야 합니까? 왜 하필 저를 내보냅니까? 난 선반기를 계속 돌리겠습니다.》

《아닌밤중에 흥두깨라더니 그건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봉찬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선화는 솟아오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데 고개를 돌리며 어데론가 걸어갔다.

《아주머니!》

봉찬은 뭐가 뭔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혹시?... 봉찬은 피곳 스키는 생각이 있어 로동파로 걸어갔다. 그는 마침 방에서 나오는 정철이와 한걸음 사이를 두고 마주섰다.

《동무가 선화아주머니를 부업발에 내보낼 생각을 했소?》

《예.》

봉찬의 눈섭이 곤두섰다.

《동문 무슨 독단을 부렸소? 사람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오? 어제는 영태동무를 놓고 저울질하더니... 그래 그렇게 다 밀어던지면 공장에는 누가 남겠소. 어디 대답해보오.》

《사실 전 지배인동지 말을 듣고 그 아주머니를...》

《응?》

며칠전 봉찬은 공장에서 자체로 일군 부업발을 관리할 로력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얼핏 선화의 나이를 물어보았었다. 정철은 그것을 자기나름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내린 것이었다.

선화는 공장에서 순직한 남편을 땅에 묻고 그걸음으로 공장에 찾아온 녀인이었다. 그때 녀인은 이렇게 말했었다.

《지배인동지, 제가 남편만큼 힘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량심껏 일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자기가 돌리던 선반을 멈추지 말고 계속 돌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봉찬은 녀인의 한마디한마디가 가슴에 뭉클 젖어오르며 코마루가 찡했다.

《아주머니,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힘은 육체에서만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선화는 그렇게 공장에 들어왔다. 그는 두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공장일을 성실히 해왔고 언제한번 얼굴에 그늘을 지어본적이 없었다. 그런 성실하고 고지식한 녀인을 밀어던질 생각을 하다니...

《책임기사동무.》 하고 봉찬은 말했다.

《우리 공장에는 그의 남편의 녀이 숨배여있소. 그의 행복은 일생 남편이 돌리던 선반결을 떠나지 않는거요. 그리고 내 동무한테 하나 이야기하겠소. 앞으로는 공장사람들의 힘을 저울질하지 마오. 보오, 동무는 영태를 쓰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하고 다른 선반공을 데려올 생각을 하였지만 그는 새 출발을 하고 동무와 내가 못하는 일을 맡아하지 않소. 우린 공장사람들이 지니고있는 힘을 들여다봐

야 하오. 그리고 그 힘을 묵살할것이 아니라 더 분발시켜야 하오. 공장은 그 힘에 의해 앞으로 전진하고 높이 올라서기때문이요. 참, 동무 생각에는 오늘날패를 어떻게 보오?》

《글쎄... 제품재질이 정확한 순도를 보장하지 못했는지...》

봉찬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늘 실패는 제품재질에 있는것이 아니었다. 그 문제는 벌써 지난해에 퇴치하지 않았는가. 봉찬은 고도의 정신적앙양과 생활의 편속이 이 순간에는 벗어버린것 같은 생각에 의기소침해지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정철의 무심한 대답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역시 곱지 않게 말이 나왔다.

《좀 생각해보고 이따가 토론해보지요.》

《예.》

정철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다음날 봉찬은 새벽결음으로 이웃군으로 떠났다. 그 군에 흥제품을 연구하다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주소를 이제야 알았던것이다. 혹시나 흥제품의 다문 한 매듭이라도 풀어보려고 찾아가니 그 사람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지친 걸음으로 공장에 돌아오니 책임비서가 내려와있었다.

《지배인동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소? 맥빠진 사람처럼. 어제 흥제품을 놓고 심각하게 토론이 있었소. 동무를 협의회에 참가시키려다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올해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될가?》

《...》

《내 동무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우리 탄광기계공장에서 철관압연기가 성공했소. 이제부터 련합기업소자체로 철관을 팡팡 생산할수 있게 되었소. 련합기업소가 또 하나의 날개를 가진셈이요. ... 무슨 생각을 하오? 공장에 제기된 문제가 있소?》

책임비서는 그를 곧바로 쳐다보았다. 봉찬은 지긋한 책임비서의 시선을 피할수 없어 이웃군에 갔던 일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책임비서는 총이 센머리칼을 손으로 올리쫄며 빙그레 웃었다.

《지배인동문 자기옆에 있는 힘은 보지 않고 먼데 있는 신기루를 찾아갔됐구만.》

(먼데 있는 신기루?...)

책임비서는 넌지시 말을 던졌지만 봉찬이에게는 그 말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책임비서에게 궁색한 자기 모양을 보여준것만 같아 그와 마주서있기가 멧적었다.

《지배인동무, 흥제품이 성공되면 우리 련합기업소가 자체로 살아나갈 힘을 완벽하게 가질수 있소. 우리 힘을 합쳐 큰 산을 떠옮기지요. ... 그런데 동무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어디 몸이 말썬오?》

《아닙니다. 그저 좀...》

봉찬은 애써 얼굴색을 밝게 했다. 했으나 책임비서는 봉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더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지배인동무, 나까지 속일 생각이요? 옛날부터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고 했소. 병원에 한번 가보오. 동무얼굴을 보면 심상치 않소.》

《가보겠습니다. 책임비서동지!》

봉찬은 왜서인지 책임비서와 빨리 헤어지고 싶었다.

요즘 봉찬은 자주 몸에 동통이 왔다. 그때마다 약으로 아픔을 멈추며 일체 내색하지 않고 견디어 왔다. 그럴수록 증제품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쓰러질 것만 같아 더더욱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육체가 자기를 배반하지 않기를 속으로 빌고 빌었다.

×

갑자기 공장은 건드린 벌등지마냥 뒤숭숭해졌다. 봉찬이가 이를동안 자리를 뜬 사이 공장에서 ㄴ제품불량이 나온 것이었다. 연합기업소가 열흘나마 쓸량이었다.

봉찬은 온몸의 피가 머리에 모이는 것만 같았다. 어떻게 되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불량제품은 원료배합에서 기술적수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생긴 것이었다.

봉찬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냈다.

《책임기사동무가 원료배합을 확인해보지 않았소?》

《확인했습니다.》 하고 가공작업반장이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책임기사동문... 요즘 머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 공장에서 뜬 생각을 하는지...》

《뭐요?》

봉찬은 눈을 치떴다. 더 물어보나마나였다. 그가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자기 책임을 수행 못한 것이 불보듯 명백했다. 그런데 그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봉찬은 엄청난 고역을 앞둔 때처럼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불량제품에 들어간 원가는 둘째치고 그것으로 하여 연합기업소 석탄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후과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었다.

《이번 일은 지배인동무한테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한계는 명백하게 갈라야지요.》

사고원인을 말끔히 료해하고난 연합기업소 일군이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었다.

《?》

봉찬은 본능적인 모욕감을 느꼈다. 지금이 어디 책임한계를 먼저 생각할 때인가? 봉찬은 그와 더 마주서있고 싶지 않아 사무실을 나와버렸다. 가공작장까지 걸어온 그는 공장앞마당 한쪽에 있는 긴 나무의자에 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머리속의 생각을 다 잊고 싶었다. 이때 엄정철이 기척없이 다가와 그한테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

말없이 종이장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던 그는 대뜸 눈을 크게 떴다. 정철이가 사직서를 들고온 것이었다. 봉찬은 느닷없이 솟구치는 흥분에 사직서를 손안에 꾸겨쥐었다. 모든 피로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심장을 비틀었다.

《지배인동지, 그건...》

의외로 봉찬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정철의 손을 잡아끌었다.

《자, 앉소. 사직서는 뭐요? 동무가 공장에서 나갈 생각을 한다더니 뜬소문은 아니었구만. 공장에 정이 붙지 않소? 증제품은 어떻게 하고 가겠다는 거요?》

《지배인동지, 증제품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린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동무는 그 일에 무엇을 바라고 발벗고나섰소? 난 그걸 알고 싶구만.》

정철은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혼자소리만 낭 중일거렸다.

《전 지쳤습니다. 공장을 떠나도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변상을 하든 법앞에 나서든... 전 그게 두려워 나가자는 건 아닙니다.》

《?》

봉찬은 번쩍 눈길을 들어 그를 쏘아보았다. 고개를 수그린 정철의 어깨는 푹 꺼져있었다. 생활에 대한 실망으로 하여 의기소침해져 저항력마저 잃어버린 인간. 과연 그렇게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단 말인가?

《책임기사동무, 정말 공장을 나가겠소?》

정철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내가 속단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동무는 자기를 지탱하고 집단과 사회를 위해서 한몫 내뭉 힘이 없는 것 같소.》

정철은 얼굴에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지배인동지는 절 괴롭히는군요. 제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증명해줄 겁니다.》

봉찬은 쓰겁게 웃었다.

《동무의 힘은 어떤지요? 순수 자기한테만 필요한 힘ियो? 그런 힘이 어디에 필요하오? 무용지물이지, 무용지물.》

정철은 책 돌아섰다.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하늘은 영원한 평온속에 잠겨 가없이 펼쳐져있었다. 저녁은 머리위에 끝없는 장막을 펼치고있었다.

부지중 봉찬은 신음소리를 내며 두무릎을 짹 잡아쥐었다. 옆구리에 오는 심한 동통을 참는 그의 판자노리로 끈적끈적한 땀이 내뻘었다.

그는 몇지 않는 동통을 참으며 여전히 한자세로 굳어져있었다.

×

육체는 그를 배반하였다.

봉찬은 벌써 한달가까이 병원생활을 하고있었다. 전에 진단을 내렸던 준수한 외모의 내과과장은 그를 진찰해보고나서 단박 성을 냈다.

《내 뭐라고 했습니까? 지배인동무는 병을 길렀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겠습니까. 외과과장동무와 협의를 해야겠습니까.》

《약으로 치료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다 정말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내과과장도 물러설 잡도리가 아닌지 어조가 꾀꾀하였다....

간호원이 입원실에 들어오더니 고히며 물을 따라 약과 함께 내밀었다.

《지배인동지, 약을 드십시오.》

봉찬은 약을 받아들음을 하지 않고 물었다.

《간호원동무, 내가 언제 종합진단을 받는지 모르겠소?》

종합진단에서 이상이 없으면 래일이라도 당장 공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있는 봉찬이었다.

《다음주에 예견하는것 같습니다.》

봉찬은 영치를 들썩 움직이었다. 그는 애꿎은 간호원을 탓했다.

《다음주란건 또 뭐요? 이번주 금요일에 한다 하구선... 간호원동무가 그러지 않았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원은 생긱 웃으며 입원실을 나가버렸다. 그 후 시일도 어지간히 흘러 이제는 수술자리도 다 아물고 몸도 회복되었지만 병원에서는 퇴원시킬 생각을 하는것 같지 않았다. 언제까지 붙잡아두려는건지... 그동안 봉찬은 공장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다. 밤에도 공장생각을 하며 잠들지 못하고 궁식거리곤 했다. 더우기 그동안 증제품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그가 수술을 갖 받았을

때 엄정철이 한번 면회를 왔뻤었다.

《지배인동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증제품을 성공시킬테니 지배인동지는 병을 꼭 고치십시오.》

봉찬은 책임기사의 개심이 무척 놀랍고 기뻐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어떻게 증제품의 성공을 위해 다시 일떠섰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봉찬은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듯 머리를 끄덕이며 속으로 뇌였다.

(아무렴,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구!...) 그런데 그후 감감무소식이다.

봉찬은 전화로라도 공장소식을 알고싶어 접수실로 갔다.

량해를 구하고난 봉찬은 서둘러 전화기의 번호판을 눌렀다. 인차 귀익은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화아주머니가 아니요? 나 지배인이요.》

《지배인동지, 접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다들 걱정하고있습니다. 지배인동지, 언제 퇴원합니까?》

선화는 무등 기뻐던지 미처 대답할 사이가 없이 댕거퍼 물었다.

《인차 퇴원할것 같소. 그새 공장에 다른 일이 없소?... 그제 정말이요? 저 참 반가운 소식이구만, 허허.》

봉찬은 뜻밖의 소식에 고개를 젓히며 큰소리로 웃었다.

책임기사가 말하기를 증제품이 인차 성공할것 같다는것이 아닌가.

《지배인동지, 저도 기술혁신조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책임기사동지가 찾아와 힘을 보태달라고 할때 전 기뻐서 울었습니다. 지배인동지, 제힘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소? 정말 고맙구만.》

잠시후 선화는 푹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배인동지, 제 이 말은 안하자고 했었는데... 왜 병을 숨기고 혼자서 안간힘을 쓰며 일하셨습니까? 우리보고는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짐도 나누어지면 험하다고 했는데 지배인동지 너무합니다. 빨리 나아서 나오기만 하십시오. 책임기사동지랑 영태동무랑 지배인동지가 퇴원하시면 우릴 속인 값으로 벌을 세우겠다고 베풁니다.》

《허허허.》

봉찬은 오래간만에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전화는 끝났지만 선화와 주고받은 이야기는 봉찬의 머리속에 긴 여운으로 남아있었다.

(책임기사동무, 고맙소. 우린 증제품을 반드시

성공할거요. 동무와 선화아주머니와 또 공장사람들의 뭉친 힘이 있기때문이요.)

그때부터 열흘이 지나서 봉찬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서 나와 공장으로 가지 않았다.

지금 그는 밤이 펍 깊어서야 돌아오고있었다. 그가 퇴원하기 며칠전에 정철이가 찾아왔었다. 그동안 진행한 시험결과를 자초지종 이야기하고난 정철은 시료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료만 해결되면 성공은 먹어둔 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지 못해 몹시 안타까와하는것이였다. 정철이가 돌아간 후 봉찬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마침내 필요한 시료를 얻게 되였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 시료를 가지고오는 길이었다.

향방없이 휘익휘익 불어대는 바람은 왁살스럽게 천지를 물어뜯으며 콩알같은 비방울을 뿌리였다. 이따금 불채찍같은 번개불이 하늘을 쪼개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폭음이 터졌다. 어느새 옷은 물참봉이 되였다.

갑자기 불어오는 센 바람에 봉찬은 몸을 비칠했다.

(허— 내가 이렇게 약골이 됐나.)

봉찬은 허거픈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빨리 가자. 공장사람들이 기다리고있다.

봉찬은 등에 진 배낭을 추스르며 멀리서 반짝이는 공장불빛을 향해 걸음을 빨리했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있었다. 그러나 봉찬의 몸과 마음은 점점 후더워울랐다.

상 식

세계 각 대륙명칭

지구상에는 5대륙, 6대주가 있다.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말은 아씨리아어에 기원을 두고있다.

아시아란 동쪽의 해숫는 곳, 유럽이란 서쪽의 해지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두 지역을 합하여 유라시아대륙이라고 부른다. 아시아와 유럽은 두 지대의 각이한 자연조건에 근거하여 우랄산줄기, 우랄강, 카스피해, 흑해, 보스포러스해협, 다다넬스해협을 계선으로 하여 두주로 분할되였다.

아프리카란 그리스어로 해빛이 쏘인다는 뜻이다. 적도가 대륙의 중부로 통하기때문에 해빛이 이 대륙의 4분의 3의 땅을 수직으로 내리쬐인다.

기후상태에서 열대란 년평균기온이 20℃이상의 지대를 넘두에 둔다. 아프리카에서 약 95%의 지역이 열대에 속하는데 그중 절반이상은 한해동안 계속 덥고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은 장마철과 가물철이 엇바뀌고있다.

남아메리카주와 북아메리카주를 합하여 아메리카대륙이라고 한다. 아메리카란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코베스푸치의 이름에서 유래되였다. 그는 1499년부터 1504년사이에 남아메리카주의 북부에 이르렀다. 그는 자기가 쓴 글에서 콜롬부스가 1492년에 탐험할 때 아메리

카의 바하마제도에 도착하자 인디아에 온것으로 알고 그 섬을 서인디아제도라고 불렀고 그곳의 토착민들을 인디아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디안이라고 불렀다고 썼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탐험가가 아메리카는 신대륙이라는 개념을 제일먼저 내놓았기때문에 이 대륙을 아메리카대륙이라고 불렀다.

오스트랄리아는 에스빠냐어로 남방의 록지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남반구에서 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남극까지 뻗은 록지로 여기고 오스트랄리아라고 불렀다. 그후 오스트랄리아와 남극사이에 드넓은 바다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오늘 오스트랄리아대륙을 대주로 부를 때에는 오세안주라고 한다. 본래는 태평양상에 있는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3대군도를 가리켜 오세안주라고 하였다.

남극주(남극대륙)는 지구의 남단에 자리잡고 있기때문에 그와 같이 부르게 되였다. 남극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우고있다. 제일 마지막에 발견되었기때문에 일곱번째 대주(남극주는 사람이 살지 않기때문에 보통 주에 포함시키지 않고있다.)라고 하며 지구상에서 몹시 추운 지대이고 계속 빙설로 덮여있고 백설이 펼쳐져있어 백설의 대주, 빙설의 대주라고도 한다.

값높고 아름다운 삶은 고상한 미관을 지닌 인간의 생활이다

—장편소설 《행복의 권리》에 대하여—

박 춘 택

인간은 누구나 떳떳이, 보람있게 살아야 하며 자기의 존엄과 행복을 당당히 누려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수 없고 빼앗길수 없는 인간의 삶의 권리, 자주적권리이다.

세상에서 권리를 찾고 행복을 누리려는 인간의 지향과 요구보다 강렬하고 절대적이며 신성한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값높은 삶의 권리, 행복의 권리는 무엇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시대에 떳떳이 살 자격과 권리를 지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참된 인간의 가치와 영예를 마음껏 향유할수 있는가.

장편소설 《행복의 권리》(리준호 작)는 수도 평양에서 살다가 당의 부름을 받들고 탄광으로 진출한 제대군인을 따라 탄광마을에 시집온 주인공 박혜정과 각이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탄부의 안해들의 운명과 생활을 통하여 이것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밝히고있다.

우리는 소설의 페이지를 번지면서 어머니조국에 빛과 열을 주는 탄부의 안해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탄전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는 사랑스러운 녀성들의 모습을 보며 지하막장에서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고지식하고 순결한 량심의 인간들인 탄부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고결한 충정과 생의 희열을 읽게 된다.

우리 시대의 인간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앞에 지닌 사회적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에 우리 인민만이 지니고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가 있다.》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은 실지 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절실히 체험하고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령의 크나

큰 은덕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마음을 쓰며 수령께 충정다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찾고있다. 고결한 충정,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철학이 있고 주체적 미관이 있는것이다.

소설은 탄전의 주인들과 그 안해들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삶의 지향과 주체적미관을 깊이있게 밝히고 화려한 일터나 편안한 직업이 아니라 조국이 부르는 어려운 초소에서 누가 보든말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데서 생의 더없는 보람과 기쁨을 찾는 선군시대의 참된 인간의 성격미를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군인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식교양에서 대단히 엄격하고 세심한 어머니의 슬하에서 성장한 주인공 박혜정은 시대정신에 맞는 생활관을 지니고 시대의 격류에 자기를 세울줄 안다. 조용하고 안온한 일터를 싫어한 그는 경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피복연구소와 고급양복점에서 일할수 있었으나 그것을 마다하고 공장에 입직하였다. 하지만 천여명의 종업원을 헤아리는 들끓는 공장은 그의 들레이는 가슴을 녹zat혀주지 못한다.

불만족, 벽차고 격렬한것에 대한 갈망, 몸을 불살라 성스러운 일에 바치고싶은 욕망... 그런 속에서 그의 처녀시절이 흘러간다. 나이들면서 어쩔수없이 청혼도 받아보고 선보이기라는 공정도 거쳐보았으나 화산대의 돌물같이 이끌거리는 처녀의 가슴에 파렬구를 낼 그런 사나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동평양지구의 유원지건설장에 지원로동을 나갔던 혜정은 아름다운 삶의 지향을 안은 군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석탄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화력발전소가 자기 능력을 다 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대되어 탄전으로 진출하여 석탄으로 그이를 받드는 병사가 될것을 결심한 시대의 참인간에 매혹되어 그와 결혼하고 탄광마을로 내려온다.

평양에서 살던 처녀가 탄부와 일생을 같이할것을 다짐하고 산골의 탄광마을로 시집온다는것은 결코 간단한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주인공 혜정의 참된 생활관, 주체의 미관이 흐르고있다. 어떤 생활, 어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가.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의무감으로써도 할수 없고 그 어떤 강요나 리해타산으로도 할수 없다.

하다면 처녀는 그 제대군인탄부에게서 무엇을 아름답게 보았으며 무엇을 귀중히 여기었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심려를 한몫을 바쳐서 기어이 덜 어드리겠다는 그 고결한 충정,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해 자기의 한몫을 깡그리 불태우겠다는 그 아름다운 공민적정신.

처녀는 다름아닌 이것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고 귀중하게 여기었으며 사랑하였던것이다.

그 어떤 공명과 출세, 리해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랑관계를 맺는 인간미.

소설은 평양처녀 박혜정과 지방의 탄부청년의 사랑과 결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은 무엇에 의해 규정되며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무엇에 의해 평가되는가 하는 참으로 귀중한 대답을 찾게 하고있다.

참다운 사랑과 결혼은 서로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아름답게 보는데서 이루어진다.

작품은 지방의 탄부청년에게서 조국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한몫을 내대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보고 그 인간에 반하여 그와 참다운 사랑을 맺은 박혜정의 인간미를 자그마한 과장도 없이 생활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려보이고있다.

평양에서 탄광마을로 시집온 혜정이 어느날 남편에게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의 가슴속에서 끓고있는 삶의 지향과 그의 뜨거운 심장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고동치고있는가를 감동깊게 느끼게 된다.

《새삼스러운 말같지만 전 호강하자고 당신을 따라온것이 아니예요. 당신의 그늘밑에서 안온한 생활을 누리자고 온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당신이 탄부가 아닌 일반노동자나 사무원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을거예요. 저도 인젠 탄부와 그 일터를 어느정도 알아요. 탄부에게는 집안사람의 극진한 뒤받침이 필요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수 있어요. 전 그것을 다행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전 당신이 받들고있는 그 동발목밑에 내 어깨도 들이밀고싶어요. 당신의 땀속에 내 땀도 섞고싶어요. 당신의 타는 심장에 내 심장도 합치고싶어요. 그 뜨거운 열기속에서 행복을!... 진정한, 진정한...

나의 권리를 찾고싶단 말이예요!...

그리고 당신이 소문난 일군도 영웅도 되길 바랐어요. 어느때건 어버이장군님께서 막장에 찾아오시여 당신의 손을 잡으시고 〈영웅인 동무의 안해는 누구요?〉 하시면 당신은 그이께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테지요. 전 그 순간을 바랐어요. 꿈같은 그 순간을!... 아!...》

소설의 주인공 혜정의 이 진심의 말에서 우리는 제 몸이나 치장질하고 남편의 그늘밑에서 영달만을 누리고싶어하는 안락한 녀성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를 위해 한몫 바칠줄 아는 근면하고 성실한 녀성이며 참된 리상과 숭고한 지향을 안고사는 녀성이라는것을 알게 되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그는 고상한 미관과 생활관을 가진 녀성이기에 결혼하여 탄광마을에 내려오자마자 탄부인 남편이 어떤 곳에서 석탄을 캐는가를 직접 보기 위해 갱막장에 들어가며 막장에서 당을 석탄생산으로 받들려는 한마음을 안고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성실하게 일하는 탄부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안는다. 그는 남편과 같이 탄을 캐는 심정으로 석탄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평양에 올라와 지원물자를 지고 탄광으로 내려오며 성의껏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갱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의 생산투쟁을 고무하며 동발목이 떨어져 석탄생산에 지장을 받을 때에는 가족들을 불러일으켜 어려운 동발목운반에 서슴없이 나선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에 만족해하지 않는다. 그는 만족을 모르는 녀성이었다. 어느날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한다.

...나를 두고 만족해하지 말고 끝없이 불만족해했으면 해요. 숨이 차도록 요구성을 높여주었으면 해요. 그런데 당신은 참 이상해요. 내가 힘들어할가봐서요? 난 힘들지 않아요. 지쳐서 쓰러졌다가도 웃으며 일어날거예요. 당신의 사랑만 굳건하다면! 예, 알겠어요? 그렇게 살고파요! 그것이 나의 결혼 조건일수 있어요!...

우리는 혜정의 이 심중의 고백에서 참된 사랑관, 행복관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행복의 권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우리 시대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값높은 권리는 무엇이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향유할수 있는 근본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소설은 바로 그것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가장 몇몇이 빛내일수 있게 하는 자주적인 권리이며 이 권리의 근본요구, 최고기준은 바로 수령과 자신을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수령께 충정다하는데 있다는것을 생활적형상으로 밝히고있다.

소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충정을 안고 석탄문제로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 정든 평양을 떠나 탄광의 탄부에게 시집을 왔고 탄부의 안해로 살면서 석탄을 캐는 탄부의 마음으로 석탄생산을 위한 일에 온넛과 정력을 바치는 주인공 박혜정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몇몇이 살 자격과 가장 값높은 행복의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주체의 미관의 견지에서 전형화하였다.

작품에서는 한가정의 주부만이 아니라 석탄으로 나라를 받드는 탄부의 안해임을 깊이 자부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캐도록 남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가면서 행복을 찾는 최성심과 오쩌엄마, 탄부의 딸답게 탄전에 영원히 뿌리내리고 탄부의 안해로 긍지높이 살려는 권양기운전공처녀 용옥 그리고 탄전의 진실한 생활의 흐름속에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종합편의리발사 홍경화와 외래자합숙로동자 윤춘영의 성격도 생활론리에 맞게 현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개성적으로 그리고 있다.

편의책임자 최성심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바쁘게 사는 여자이다. 그는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육신을 놀리지 않고는 못 견딘다. 그는 남편이 석탄을 더 많이 캐수 있게 그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고 남편이 탄광지배인으로서 일을 더 잘하도록 힘껏 돕는다.

어느날 최성심은 혜정에게 우리 남편은 늘 날더러 좀 얹전히 살라고 권고해, 하지만 난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걸 알아, 남편은 표현은 안하지만 내가 어떤 안해가 되었으면 하는가 하는것을 난 감각적으로 알아, 내가 집에서 돼지나 기르고 다림질이나 잘해주고 손님대접이나 수직수직하는 평범한 아낙네가 되어봐, 그럼 남편은 인차 싫증을 느끼고 말아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우리 남편은 나를 수지가 맞지 않는 여자라고 시까슬러. 하지만 난 조금도 탓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은근히 좋아해. 기업관리에서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으면 파산이라는 그들이 드리우지만 난 우리부부의 생활에서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을수록 더 깊은 행복을 느껴. 난 끝없는 지출을 갈망해. 그로부터 오는 수입은 이따금, 그것도 잠깐 선사하는 미소, 그것뿐이야.》

난 그것이면 돼.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뛰지. 불만과 욕설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행복해질수 있는 권리를 앗기우지 않는 길이라는것을 알고 말이야. ...》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주부인 안해가 조국앞에 지닌 공민적의무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리고 안해가 사회생활에 충실할 때 부부간에 신뢰와

사랑이 깊어진다. 소설은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에 살면서 시대에 아무런 기여도 하는것이 없이 오직 저 하나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공허이고 수치라는것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소설은 오랜 탄부의 안해인 오쩌엄마도 이체롭게 그렸다. 소박하고 수수한 녀인인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갱막장과 잇달아있으며 석탄을 많이 캐는 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나선다. 보통녀성같으면 장난꾸러기 사내아이 다섯만 해도 그 중하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는 시름이나 고달픔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그리고 남편이 20년 가까이 채탄공으로 일해오는데도 그는 그 기나긴 나날을 줄창 웃으며 살아온다. 작품은 보통결음도 달리는 자세인 그가 어려움을 헤치며 많은 집집승을 길러 탄광을 지원하고 탄부들을 돕는 그 훌륭한 소행에는 조국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치려는 아름다운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음을 진실한 생활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에서 용옥은 우리 시대의 참된 사랑의 룰리의 체현자로 형상되고있다. 그는 영예군인이나 영예탄부에게 시집가는 여자를 최고의 인격자로 보는 처녀이다. 하여 그는 도문화회관 관리원을 하는 어떤 처녀가 당의 부름을 받들고 탄전에 온 한제대군인에게 탄부라는 직업을 버려야 결혼하겠다고 총각의 깨끗한 가슴에 두고두고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주위사람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었을 때 그릇된 사랑관을 지니고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는 그의 너절한 행위에 격분하여 그를 준절히 타매하는것이다.

소설에는 적게 그려졌지만 탄부의 직업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도문화회관 관리원처녀의 형상으로 작품은 향락에는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언정 인간의 진정한 존엄과 영예는 없으며 안락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권리를 가질수 없고 인생의 수치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새겨주고있다.

인간은 세상에 한번 태어나 존엄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의미하고 빛 없는 생이 아니라 멋진 삶을 지향한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보고 듣고 느끼고 체현하는 자기식의 생활방식이 있다.

옳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집단속에 자기를 세우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을 창조하지만 그릇된 인생관을 가지고 사회앞에 충실치 못한 사람은 행복의 권리를 누리는 길에서 곡절을 겪게 된다.

소설에서는 윤춘영이가 바로 그런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춘영은 평양내기 자기를 산골막바지에 끌어다놓은 남편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남편이 일하는 막장에 한번도 들어가보지 않았으며 남편이 탄광에 와서 3년을 채탄공으로 일했지만 그저 집에 앉아 밥박이나 꾸러주고 건강이나 돌봐준것이 고작이었다. 소설은 이런 그가 막장에 들어가 삼질을 하고있는 남편을 보며 탄부들에 대해 새롭게 느끼고 자신의 인생관을 돌이켜보면서 탄부의 안해다운 생활을 창조해가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혜정을 비롯한 탄부의 안해들의 이러한 특색있는 형상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는 자부심, 일신의 안락만을 추구하여 허무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았으며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떼뻗이 살았다는 긍지감, 이것은 성실하게 일하고 참되게 사는 사람들만이 얻을수 있고 체험할수 있는 생의 가장 값높은 존엄이며 영예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진실한 생활적형상으로 생활의 깊은 진실을!

장편소설 《행복의 권리》를 읽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것은 작가가 평범한 생활속에서 문학적이야기와 극을 찾고 생활에 대한 평범하고 소박한 묘사에 충실하면서 생활의 깊은 진실을 추구하였으며 그 생활속에 있는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그린것이다.

소설의 문학적이야기는 평양에서 탄광마을에 시집온 종합편의재단사 박혜정을 비롯하여 탄전의 여성들이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어머니조국에 빛과 열을 주기 위해 묵묵히 헌신분투하고있는 탄부들의 안해임을 깊이 자부하고 석탄을 더 많이 캐도록 남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이다.

작품에서는 소박하고 수수한 녀인들인 탄부의 안해들과 그들의 평범한 생활이 꾸밈과 과장도 없이 현실에 있는것과 같이 생동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펼쳐지고있고 이 평범한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의 본질이 밝혀지고있으며 이 시대에 살고있는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부각되고 작가가 주장하는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의 권리에 대한 사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있다.

혜정과 시집식구들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 자기는 남편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남편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가보고 전야근교대때마다 막장지원을 하는 생활, 종합편

의책임자 최성심과 지배인인 남편 김태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 아들 다섯을 키우면서도 탄광지원에 앞장서는 오재엄마의 생활, 종합편의 리발사인 홍경화와 그의 남편과 관련한 생활 등은 평범하면서도 탄전의 여성들의 인간미를 부각하고 탄부안해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특징짓는 생활들이다.

사고심의를 받고 집에 와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남편에게 《난 그때 당신이 아픈 마음 한귀퉁이라도 열어보였다면 그다지 야속하지 않았겠어요. 화술을 마시고 이 녀자에게 애매한 분풀이라도 했다면 탓하지 않았겠단 말이에요!... 왜 혼자서 묵새졌어요? 그걸 나누어주기가 그렇게 끔찍했어요? 아니면 나를 감정상 융합이 될수 없는 녀자로 치부해버렸어요? 시누이문제에 끼여들었을 때처럼 말이에요!》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섬세한 감정을 토로하는 혜정의 가정에서 벌어진 이 생활장면에서 우리는 남편과 같이 탄을 캐는 심정을 안고 일하며 생활하는 그의 남다른 지향을 감득하게 된다.

소설은 생활을 분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상하였으며 성격을 리상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대군인탄부를 모욕한 녀자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적인 립장을 취했고 그 녀자한테도 수궁할만한 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것,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아니라 희생과 보상의 관계였던 차명석과 윤춘영부부생활, 남편들의 일을 놓고 혜정을 멀리했던 홍경화의 그릇된 관점에 대한 묘사 등에서 실증되고있다.

소설에는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 그것은 인물관계를 깊이 파고들지 못한것이다. 물론 소설에는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인간관계가 설정되어있고 인물들의 관계가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맞물려져있으며 전개되고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더 깊이있게 파고들지 못하여 그들의 인생관이 더 확연히 드러날수 있게 인물들의 교감을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레하면 혜정과 홍경화, 윤춘영과의 관계를 인생관에 기초하여 더 깊숙이 맞물려놓았더라면 그들의 성격이 더 풍만하게 형상되었을것이고 행복의 권리와 삶의 가치에 관한 인간문제가 더 깊이있게 밝혀졌을것이다. 이런 부족점이 있으나 당이 중시하는 부문의 생활을 취급한 장편소설 《행복의 권리》는 꾸밈없는 진실한 생활적형상으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적견해와 아름다운 삶의 지향을 감동깊게 보여줌으로써 장편소설의 화원에 고유한 향기와 색깔을 가진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있을것이다.

가 사

조국은 탄부들을 사랑하네

홍 민 식

은하수 내린듯 황홀한 불빛
누구나 바라볼 때면
천길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탄부를 잊지 못하네
온몸을 짊그리 태우는 탄처럼
조국을 심장으로 받드는 탄부
조국은 그대들을 사랑하네

땅밑에 새기는 땀배인 자욱
그 누가 보지 못해도
부강한 이 땅의 눈부신 불빛
그 위훈 말하여주네

온몸을 짊그리 태우는 탄처럼
조국을 심장으로 받드는 탄부
조국은 그대들을 사랑하네

탄부의 사랑과 정이 뜨거운
막장이 깊어질수록
선군의 내 조국 우리 생활은
더 밝게 꽃피나네

온몸을 짊그리 태우는 탄처럼
조국을 심장으로 받드는 탄부
조국은 그대들을 사랑하네

가 사

청춘의 이름

류 명 호

청춘 그 이름은 총대와 함께 빛나고
어머니조국에 위훈의 별로 빛나네
선군의 내 조국 그 어디 가나
청춘의 그 이름 노래로 울리네

청춘 그 이름은 위성과 함께 날으고
최첨단돌파로 세계를 앞서 달리네

선군의 내 조국 그 어디 가나
청춘의 그 이름 기발로 날리네

청춘 그 이름은 애국의 불길이 되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가네
김정은원수님 따르는 길에
청춘의 그 이름 승리로 빛나네

상 식

최초의 비행사작가

프랑스의 앙드레 드 생-뽀주베리(1900-1944)는 세계 최초의 비행사작가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직업적작가가 아니다. 그는 비행사로 근무하면서 세계문학사에서 처음으로 비행사와 하늘을 소재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 소설영역에서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지방도시 리옹에서 귀족의 후예로 태어나 미술학교에서 건축미술을 전공한 후 1920년 프랑스군대에 입대하여 스트라스부르의 비행대에 복무하였다. 이것이 그가 비행사작가로 자라나게 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제대후 그는 자동차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에 다니면서 소설습작을 시작하였으며 1926년에 첫 단편소설 《비행사》를 잡지에 발표하였다. 그해 10월부터 민용항공비행사가 되어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된 생-뽀주베리는 줄곧 비행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항공회사의 정기항로비행사, 사하라사막의 비행장책임자, 아르헨티나항공우

편회사 개발부장, 장거리항공로의 시험비행사 등을 지내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공군에 입대하여 정찰비행기를 탔다. 프랑스가 파쑈도이쉴란드군에 항복한데 항의하여 군대복무를 그만둔 그는 미국에 망명했다가 연합군의 대도이쉴란드작전이 개시되자 알제리에 이동해있던 프랑스정찰비행대에 복대하였다. 그는 1944년 7월 교르쓰섬의 기지에서 출격하였다가 지중해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격추당하여 전사하였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가운데는 《남방우편비행기》(1927), 《야간비행》(1931), 《인간의 대지》(1939), 《싸우는 조종사》(1942), 《성새》(미완성, 사망후 1948년 출판) 등의 중편, 장편소설들과 동화 《별의 왕자님》(1943)이 있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은 거의다 비행사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리 명 호

드디어 전진갱 10편도막장에서 탄이 터졌다.

전진갱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론의가 탄광의 제일가는 관심사로 되고있던 때에 매장량이 수백만톤을 넘고 발열량이 대단한 탄줄기가 터진 소식은 갱은 물론 온 탄광을 기쁘게 했다.

누구라없이 최정길갱장의 첫 사업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으며 어떤 경쟁에서든 두번째 자리라면 수치로 아는 그가 이제부터는 생산에서 탄광적인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는것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1

갱참모일꾼들의 저녁총화모임이 끝난지 한시간쯤 지나서였다.

달빛이 환히 비쳐드는 사무실현관앞에서 처녀총각이 실랭이를 하고있었다.

《혁철동무, 어서요.》

북도안의 동정을 살피던 처녀가 총각의 등을 떠민다.

《?!》

청년은 얼떠름한 표정이다. 최정길갱장이 방에 혼자 있을 이때를 시간맞춰 둘이 함께 들어가자고 약속했던것이다. 그러나 청년은 이내 사내답게 싱긋 웃어버렸다. 온 전진갱이 둘의 관계를 아는터라 사람들앞에 나란히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처녀의 마음을 읽은것이다.

그는 기다려달라는듯 현관문밖을 손으로 가리켜 보이고는 처녀의 정찬 시선을 등에 느끼며 북도를

따라 걸어들어갔다. 힘있게 그리고 자신있게...

잠시후 갱장방을 두드리는 문기척소리가 현관문밖에까지 들려왔다.

순간 처녀는 짙은 꽃향기에 함뻑 취한듯 행복감에 도취된듯 한 자세로 스르르 두눈을 감으며 현관기둥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복도쪽에서 다시 인기척이 났다.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처녀는 기빠서 그에게로 한발짝 다가섰으나 그만에야 무춤하니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죽지부러진 새모양 두어깨를 늘어뜨리고 락심천만해있는 총각의 표정이 달빛에 너무도 력력히 드러나있었던것이다.

문이 여닫기는 소리와 함께 방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들었다.

갱을 위해, 탄부들을 위해 바친 하루동안의 크고작은 다망한 일들이 문이 닫기는것과 함께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그날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찾으며 다음날의 계획들을 차곡차곡 되새겨보곤 하는, 그래서 최정길갱장이 제일 좋아하고 기다려오는 시간이다.

그는 책상우의 사업수첩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눈에 안겨오는것은 글줄들이 아니라 방금 몹시 실망하여 이 방을 나가버린 주혁철의 모습이다. 수첩의 매 장을 넘길수록 그는 갱장을 올려다보며 원망을 숨기지 않고있었다.

정길은 자리에 더 앉아있지 못하고 창가로 다가갔다. 순간 그의 눈길이 굳어졌다. 창밖에서 맥없는

걸음을 러벅러벅 옮기는 혁철이와 함께 그의 뒤를 머뭇머뭇 따라서는 영옥이를 띄어보았던것이다.

(그러니 저 애들이 함께 왔었구나.)

그들에게 미안스러웠다. 10편도의 굴진공으로 배치해주기를 바라는 혁철의 제의를 밀막고 9편도에서 그대로 일하도록 한것이 자신으로서는 옳은 처사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내가 결심을 잘했을까? 하는 반문이 떠올랐다. 설비중대의 수리공으로 있던 그를 굴진공으로 일하도록 권고한 사람이 다름아닌 최정길자신이었던것이다.

《탄광에선 네 나이에 굴진공으로 일하는것이 더 합당한 위치다. 난 네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길 바란다.》

그는 갱에서 순직한 혁철이 아버지처럼 그 아들도 훌륭한 탄부가 되기를 바랐던것이다.

정길은 혁철에게 남다른 관심을 돌려왔다.

언제인가 혁철이와 영옥의 사이가 서름해진적이 있었다. 알아보니 혁철의 삼촌이 처녀를 그닥잡게 보고있었다. 아버지없는 집안의 가장노릇을 하는 사람의 견해이다보니 총각도 처녀도 어지간히 상심해있었다.

정길은 혁철의 삼촌인 주광훈지령장과 조카인 혁철이를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직방 물었다.

《동무가 혁철이와 영옥이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게 옳소?》

《...》

《리유는 뭐요?》

《온 동네가 웃습니다. 세상에 한추녀를 잇대고사는 이웃간이 사돈이 된다는건 아마 듣다 처음 일겁니다. 이제 두고보십시오. 사돈집이 가까울수록 량견 집 홍보파리만 불어나지 않나...》

《가만, 이제 보니 동무 사고가 고리타분하구만. 지금이 어느땐데 그리구 동무가 얼마나 늙었다고 따위 케케묵은 소리를 들으다니오? 날더러 영옥이 같은 처녀를 머느리감으로 골라달라는건 혁철이 아버지의 생전 부탁이요. 혁철이 너도 기억나겠구나, 그때 우리 집에 함께 왔을 때 아버지가 하던 말을...》

그러던 정길은 속으로 아차 하며 허끝을 깨물었다. 허나 이미 얼질러진 물이었다.

최정길과 주광훈지령장의 두눈길이 서로 짝 하나 부딪치는것과 함께 이어 지령장의 폭소가 온 방안을 흔들었다.

《사람 웃기지 마십시오. 갱장동지, 우리 형님이 돌아갔을 때가 혁철이 두살적입니다. 옆집 영옥이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구요.》

《그랬던가, 하지만 동무 형님이 내게 혁철이를 부탁한건 사실이란 말이요. 그러니 내가 이 동무들의 혼사에 나서는건 웅당하오.》

갱장의 우격다짐에 놀리웠는지 아니면 그의 말이 옳다고 리해를 했던지 주광훈지령장은 더 고집할념을 안했다. 지금에 와서는 영옥이를 조카머느리감이라고 내놓고 자랑하는 판이다.

9편도에 얼마 남지 않은 석탄을 캐내는것과 함께 10편도를 복구하는 전투를 벌리면서부터 정길은 기능높은 탄부를 시켜 혁철에게 착암기 다루는 법을 배워주기 시작했다.

갱의 석탄생산에서 척후병이라고 할수 있는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위치에 그를 세우려는 마음에서였다.

원래 10편도막장은 이태전에 착암기의 첫 동음을 울렸던 곳이었다. 그런데 탄빛같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만 침수되고말았다. 굴진도중 예견치 않았던 물주머니가 터지고 설상가상으로 폐년에 없던 장마까지 겹쳐들었던것이다.

갯 태어난 건강치 못한 아기의 생명처럼 간신히 갱의 명맥을 이어주던 9편도의 탄층이 차츰 줄어드는 조건에서 10편도를 복구하고 새 탄밭을 마련하는것은 갱의 생존과 관련되는 관건적인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때 정길은 전진갱 갱장으로 임명받게 되었다.

《생명이 꺼져가》는 갱의 실태를 손금보듯 알고 있는 친구들이며 지어 안해까지도 깊이 우려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당에서 나를 전진갱 갱장으로 보낸것은 바로 거기에 탄이 있기때문이요.》

전진갱을 살리기 위한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석달간의 간고한 전투끝에 어제 아침 끝끝내 넓은 폭을 가지고 길게 늘어진 탄맥을 잡게 되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정길은 기쁨으로 흥떡이는 마음을 잠재울 길없어 마을을 한바퀴 돌았었다.

깊은 명상에 잠겨 어디라없이 발길닿는대로 걸던 그는 마을 한가운데로 나있는 개울가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돌돌돌 개울물소리를 타고 말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앞을 살펴보니 혁철이와 영옥이가 서로 어깨를 가지런히 붙인채 이야기에 열중하고있었다.

《영옥동무, 난 갱장동지와 약속했소. 10편도가 터지는 그날부터 굴진공이 되겠다고 말이요. 그렇소. 내 이제부터 본때를 보일테요. 이 주혁철이가 여기 있다 하고 큰소리쳐보겠단 말이요. 날 믿지?》

《믿어요, 나자신처럼.》

되알진 별들이 숨막꼭질하며 노닐고 푸른 달빛아래 은구슬들이 부서지는 개울물에 실린 그들의 푸른 꿈이 저 멀리 강으로, 바다로 용용 흘러가는것만 같은 정경에 정길은 속이 흐뭇했다.

얼마나 아름다운것이나, 너희들의 꿈과 희망은!

얼마나 부러운것이라, 너희들의 청춘은!

그래, 마음껏 날으거라. 푸른 창공이 너희들을 기다린다. ...

그런데 오늘 아침 최정길은 결심을 달리하지 않을수 없었다. 9편도막장에서 탄이 남아있을수 있는 징후를 발견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탄이 아예 거덜났다고 여겼던 9편도에 굴진중대의 일부 력량을 남겨두기로 결심하고 좁전에 찾아온 혁철이를 거기서 일하도록 하였던것이다. 그러자 예견했던대로 혁철은 10편도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떼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굴진중대의 력량을 둘로 나눈다면 하필이면 왜 제가 9편도에서 일해야 합니까? 전 싫습니다. 전 오밀조밀이 아니라 폭폭 일자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만하오. 일감타발하는 사람 구실하는거 내 못 봤소.》

혁철은 묵묵부답이었으나 정길은 그의 속이 맑은 물속처럼 들여다보였다.

10편도에서 탄이 터져나온것과 때를 같이하여 탄광사람들, 지어 전진갱 탄부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난 9편도막장이다. 혁철은 굴진공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야가 덜 미치는 곳에서는 일하기를 꺼리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최정길갱장으로 하여금 일종의 실망감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좁전까지의 인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실무적인 어조로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일구이언을 모르오. 동무는 래일부터 9편도에서 착암작업을 해야겠소.》

...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러 혁철이와 영옥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진지도 오래다. 그러나 정길은 그들이 마치도 눈앞에 있기라도 한듯 마음속으로 말했다.

(머지않아 너희들이 나를 리해할 날이 있을게다.)

2

아침 첫시간에 엄인석당비서는 생산부기사와 자리를 마주하였다. 탄광의 분기간 석탄생산 중간총화모임이 래일 진행되는것만큼 갱들의 현재 실적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갱들마다 기세들이 여간 아닙니다. 제 생각엔 래일 중간총화에서의 순위가 곧 분기간 생산총화순위로 이어지리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전진갱만은 아직... 어쩔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걱정입니다.》

잠자코 그의 말을 듣고만 있던 인석은 까닭모를 반발심에 머리를 들었다.

《그러니 동문 최정길갱장 역시 전진갱에서만은 용빼는 수가 없다는 소리겠소?》

전진갱은 탄광적으로 생산조건이 제일 불리한 곳이다. 갱의 심도가 너무하다보니 다른 갱들에 비해 양수설비나 배관, 탄차레루 같은 탄광자재와 부속들이 끊이나 든다. 장마철에는 또 어떤가. 그때마다 이웃갱들에서 터져나온 지하수가 몽땅 그곳막장으로 쏠려 갱을 위험에 빠뜨리곤 했다. 오죽했으면 전 갱장이 거기서 일한지 3년만에 손을 털고 나갔았으랴.

《젊고 능력있는 동무로 바꾸어주십시오. 전진갱에서 저는 재목이 못되는가 봅니다.》

해마다 낮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근원을 자신의 능력부족에서 찾는 그의 해임제외에 인석은 심중하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그를 대신하여 1월19일갱 책임부원으로 있던 최정길이를 그곳 갱장으로 보내게 되었다.

엄인석은 불만스러웠다, 그 누가 갱장으로 일하든 전진갱의 생산형편은 나아질수가 없다는 인식이 굳어져있는 나이많은 생산부기사장도 그리고 그의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현재의 생산실적으로 증명해주고있는 최정길이기도.

그곳 10편도에서 탄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지도 벌써 한주일째다. 그렇다면 생산실적은 그전보다 크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혹시 그곳에 걸린 문제가 따로 있지 않는가.

사람을 알려면 약속을 해보고 그의 능력을 알려면 일감을 맡겨보라는 말이 있듯이 것처럼 믿었던 최정길갱장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것일까?

《전진갱에서 주혁철이라고 수리공으로 일하던 청년 말입니다, 그가 갱장과 크게 다투고 7갱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

생산부기사장의 말에 인석은 다시 놀랐다.

최정길갱장에게 결합이 있다면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언행이 무뎌뚱하고 삼삼하지 못한것이다. 집단을 이끄는 일군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여서 인석은 그에게 따끔히 말해준적이 있었다.

《일군의 인상이 밝지 못하면 아래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워하고 속을 잘 주려고 하지 않는 법이요. 늘썩 성나있는 어머니를 자식들이 좋아하는걸 봤소?》

엄인석은 생각했다. 그러니 그의 버릇이 여적 고쳐지지 않고있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이제 전진갱으로 나가겠소. 지금이 어떤 때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하자고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때가 아니요. 래일 회의에서 이 정신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갱장들에게 자만을 경계하도록 해야겠소. 동무도 회의준비를 잘하요.»

엄인석을 태운 승용차는 힘겹게 전진행으로 달리고있었다. 아침부터 내리고있는 진눈까비가 길을 아예 엉망진창으로 만든것이었다.

내려쫄인 젖은 눈의 무게에 눌리워 가지를 잔뜩 늘어뜨리고 선 상록수들을 바라보며 인석은 저도 모르게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저래 담고생을 하고있을 최정길갱장의 초췌해진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그려졌던것이다.

그 모습은 다시 젊고 쾌기있던 청년시절의 모습으로 뒤바뀌었다. 엄인석이 그를 처음 알게 되던 때의 모습이였다.

...

그해 서부갱 청년들이 새 운반갱도를 늘이는데 모자라는 탄차레루와 배관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굴속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 주동적인 발기자가 바로 서부갱에서 청년동맹비서(당시)사업을 하던 최정길이였다.

무서움을 모르고 두려움을 맞받아 무작정 혈기왕성한 육체부터 내대는 그들의 소행은 갯 탄광조급당비서사업을 시작한 인석을 무척 놀래웠었다. 알아보니 최정길은 채탄소대장을 겸하면서 많은 일을 제끼 혁신자였다. 그는 탄광에서 말썽을 일으키던 청년들로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서부갱의 새 막장탄발들을 열어제겼고 현재까지도 석탄생산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었다.

얼마 안 있어 청년동맹조직으로부터 최정길을 중앙에서 열리는 모범적인 청년일군들의 대회에 탄광대표로 보내려 한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인석은 꽤히 동의했다.

그런데 며칠후 서부갱의 한 로탄부가 그를 찾아왔다.

《당비서동무, 최정길이 그녀석 우리 탄광에서 콕 쫓아내주시우. 그럴수 없다면 서부갱에서라도 그녀석 꼴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시우.》

그는 방에 들어서자바람으로 푸념을 쏟기 시작했다. 인석은 내심 무척 놀랐으나 잠자코 로인의 다 음말을 기다렸다.

그 로탄부에게는 탄광병원에서 준의로 일하는 정순이라는 막내딸이 있다고 했다. 그우의 아들딸들을 시집장가 보내놓고 늘그막에 옆에 끼고있으려는 막내딸이 요즘 전에없이 경대앞에 마주앉는 회수가 잦아졌는데 부모다운 경계심은 그들부부를 부쩍 정신들게 했다.

그는 주위의 총각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최정길이를 딸의 대상으로 점찍었다. 몸매 다부지고 사내싸게 잘생긴데다 성격이 강직

한 총각, 일하면서 대학공부까지 하고있다니 이런 맞춤형 대상을 어디 가서 구할손가. 그래 딸을 얹혀놓고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딸에는 매 본 까투리마냥 금방 숨이라도 넘어갈듯 한 소리를 질렀다.

《어마! 그 미옥쟁이 청년비서? 갱에서 함께 일하는 아버지가 몰라서 그 동무 소리예요? 갱에 예방주사 놔주려 갈적마다 그 큰눈을 똑 부릅뜨구선 <주사를 좀 아프지 않게 놓도록 하요. 우리 동무들이 일에 지장없도록 말이요.> 이러는데 글썽... 음— 똑바우예요. (딸은 살래살래 도리머리까지 한다.) 그러구 그 동무에겐 이미 따르는 처녀가 있대요.》

정순의 아버지가 품안에 들었던 새를 놓아버린듯한 아쉬움속에 이리뒤척, 저리뒤척 궁냥의 숲을 헤치기만 하던 어느날 늦은저녁이었다.

교대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던 그는 집근처에서 달빛에 비치는 서로 마주선 그림자들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오가는 둘의 말내용이 참 혀가 내들릴 일이었다.

《그러니 동무 아버지가 나에 대해 묻더란 말이지. 뭐라고 대답했소?》

《알고싶으세요?》

《그럼.》

《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갱에 예방주사 놓아주려 갈적마다 나를 대하는 그 동무의 눈치가 좀 다르긴 한데 별로 달갑진 않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이 막내딸 수준이 고작 갱청년동맹비서 급이에요?> 하고 말하긴 했는데... 아이참, 왜 웃어요? 이진 죄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들을세라 소리를 죽여가며 킁킁— 터치는 둘의 웃음에 그가 어찌 흐뭇하지 않았으랴. 녀석들, 엉큼하기란!

그런데 날이 따라우면 비가 올 징조라더니 시일이 지나면서 딸의 얼굴에 수심이 비끼기 시작했다. 어떤 때엔 남몰래 눈가로 손을 가져가기도 하는 딸의 모습은 부모들의 가슴속에 근심과 걱정의 재무지를 산처럼 쌓아올렸다.

생각다못해 그는 최정길을 만났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행정하고 짧았다.

《우린 서로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애기를 듣고난 인석은 심중해졌다. 한창 피여나던 남녀간의 사랑에 비낀 실망의 그림자는 대체 무엇일까. 더우기 정길은 당장 탄광의 대표로 중앙에서 열리는 대회에까지 참가하게 되는 혁신자청년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사랑의 고민과 좌절감을 겪어서야 안되지, 안되구말구.

인석은 처녀의 아버지를 바래우고나서 당장에 정

길을 찾으려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마침 행정청사에서 청년동맹일군들의 협의회가 조직되어있은것이다.

탄광의 청년동맹일군이 전화를 받았다.

《당비서동지에게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최정길 동무가 대회에 참가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

인석은 정말 놀랐다. 인생에 한두번 있을가한 그런 영광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다니?...

《리유는 뭐요?》

《자격이 없다는겁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소리를 피합니다.》

《알겠소. 그가 회의장에 나타나면 나에게 보내 주시오.》

인석은 얼마 안 있어 방에 들어서는 정길이를 무뚝뚝한 태도로 맞았다.

그러나 그의 수곳했던 머리가 이쪽을 향해 들리울 때 인석의 마음은 대번에 흐뭇해졌다. 쇠몽둥이처럼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지는 두어깨며 짝 버그러진 가슴에서 확확 풍겨오는 청춘의 기운에 속이 썩 열리고 부리부리한 두눈에서 뿜어져나오는 빛으로 하여 온 방안이 환해지는것 같았다.

《동물 왜 불렀는지 알겠소?》

《짐작하고있습니다.》

《그럼 말해보오. 대회에는 왜 못 가겠다는거요? 그리구 처녀는 왜 울려?》

정길은 흠칫 놀라는듯싶더니 고개를 외로 틀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오래 끌지 않았다. 조용히 방안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어쩐지 죄책감에 젖어있는듯싶었다.

...허리까지 지하수가 차오르는 속에서 탄차레루와 배관들을 회수하고 무사히 굴을 나섰을 때 술한 사람들이 저희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갱장동지를 비롯한 갱일군들이 우리 결사대원들 한사람, 한사람을 잔등에 업고서 종업원들이 둘러서있는 갱앞마당을 빙글빙글 돌 때 정말이지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런 멋에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속에서 미처 회수해내오지 못한 10메터가량의 탄차레루가 가시마냥 마음에 걸렸던것입니다.

사실 그때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고굴속 운반갱도의 맨끝 봉락된 암반들속에 묻혀있었는데 굴천정을 살펴보니 언제 봉락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다른 동무들은 멀찌감치 물러나게 하고 이런 일에 경험있는 두 동무와 함께 물속에서 암반들을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긴장속에서 하는 일

이다보니 손이 제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안전등빛이 저도 모르게 자꾸 굴천정으로 향해지더군요. 레루장 밑에 지레대를 들어밀고 힘을 쓸 때마다 입이 항 벌려있는 굴천정에서 금시라도 돌들이 떨어져내릴것만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견디여내자.

나는 애써 굴천정에 눈길을 돌리려 하지 않고서 동무들과 함께 맞잡은 지레대에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자, 힘을 내지요. 하나, 둘!—》

순간 굴벽이 갑자기 잡에서 깨여난듯 움썩거리더니 굴천정에서 끝내 짐채같은 암반덩이들이 와르르 무너져내렸습니다. 짐승의 포효성같은 그 무시무시한 굉음속에서도 나는 동무들을 찾았습니다.

《리동무! 김동무!—》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위는 좀전처럼 조용했고 동무들은 물속에서 지레대를 잡고선채 내 얼굴만 쳐다보고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한각속에 빠져있었던것입니다.

《우리가 건져낸 저 량이면 갯에서 쓰고도 남겠는데...》

결에서 김동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도 내가 아까부터 기다려온 소리인듯싶었습니다.

(웁다, 우리는 이곳에 스스로 들어왔고 체면은 이미 세웠다.)

이렇게 되어 저는 그 레루장들을 그대로 고굴속에 놓아둔채 철수하고말았던것입니다.

방금 비서동지는 정순동무를 올려놓았다고 저를 질책하셨지요?

사실 제가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성한 몸으로 갯을 나섰을 때 제일 기뻐한 동무가 그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없이 명랑했습니다.

《정길동무,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던가요. 탄광에 짜— 하니 퍼질 소문? 요란한 칭찬? 아니면 나?》

《동무가 나였다면 그 굴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소?》

《사실 난 동무가 나의 동의도 없이 굴속에 들어갔다는걸 알았을 땐 절대로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만일 내가 그 위훈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의 명예속에 동무의 이름도 함께 빛날 우리의 래일을 그려보았을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영광이 차례졌습니다. 선군시대 총진군길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세운 모범적인 청년일군들의 대회에 제가 참가하게 되었다는것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영광에 저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몇몇치 못한 자신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녕 나라앞에 자랑할만

한 큰일을 해놓았는가?

자문할수록 굴속에 그냥 남아있는 레루장들이 그대로 대못이 되어 이 가슴을 쿡쿡 찔러했습니다.

그런 때에 정순동무가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동무들 말이에요, 동무가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부러워들 하는지 몰라요. 대회에 가는 당사자가 동무가 아니라 마치고 나인것처럼 말이에요. 어쩌나 창피하던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정말 기뻐요.》

《…》

《글쎄 었저녁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애 정순아, 너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너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느니라. 너자는 일단 정해진 배필이 자기보다 수양이 낮으면 이끌어올리려구 애쓰지만 남자는 반대로 랭대하기가 십상이야.〉 호호, 이리시지 않겠어요.》

나는 더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밀막았습니다.

《정순동무, 난 대회에 가는것을 그만두기로 했소. 이견 사실이요.》

그의 두눈이 커지더군요. 비명이라도 터져나올듯 손으로 입을 막고있던 그가 갑자기 내게로 한발작바투 다가들었습니다.

《날 똑똑히 봐요. 그건 거짓말이지요? 날 놀리려고 한 소리지요?》

나는 그에게 모든것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결심을 지지해주리라 믿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는 더없이 아쉬워했고 내가 마음을 돌려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그렇다 한들… 어떻게 차려했던 영광의 자리인데… 일생에 한번 있을가말가한 기회가 아니예요.…》

순간 나는 아연함과 실망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놀랍구만?! 그러니 동문 내가 위선자가 되면서라도 평양에 가야 한다는거요? 자그마한 사심도 없는 애국의 심장들만이 설수 있는 그 대회장에 그때 동문 내가 들어설 자리가 정녕 있다는거요? 실망하게 되누만.》

《예?!》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커다란 눈에 금방 눈물이 가득차올랐습니다. 그다음 그는 돌아서갔습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멀어져가는 그를 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제스스로가 몹시도 혐오스러웠기때문입니다.

나를 품어 키워준 이 땅을 뺄, 천가닥의 뿌리로 떠받드는 한그루 아름다리거목은 되지 못할망정 리기를 싹틔우고 한몸의 명예만을 자래운 저였습니다. 이런 짝만목파위가 자라는 작은 트랙이 성스러

운 이 땅에 백개가 있은들, 만개가 있은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석은 한손을 들어 그를 제지시키기는 하였으나 인츰 입을 열념을 못했다.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그저 눈앞의 청년이 더없이 훌륭하고 미더웁고 그래서 더욱 내세워주고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정길이를 설복해내지 못했다. 정길이를 대신하여 다른 청년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제의에 따른것이였다.

그후 1년이 지나 최정길은 탄광적으로 손꼽히는 혁신자가 되어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인석이 생각에서 깨어나 차창밖을 내다보니 차는 어느덧 전진궤를 가까이하고있었다.

3

따르륵, 따르륵.

기관총의 런발사격과도 같은 착암기소리가 9편도 막장안을 울리었다.

이제 한구멍만 더 뚫으면… 그럼 발파다. 전기 점화시켜 파당파당 암반벽을 깨뜨리면 굴진공들은 앞을 다투어 막장으로 뛰어들리라. 오직 탄부들만이 맛볼수 있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삶을 창조해가는 불굴의 사나이들에게만 주는 자연의 혜택이랄가. 키넴게 우줄우줄 늘어선 탄벽을 남먼저 마주할 때의 쾌감이란!…

막장 한쪽에서 버럭들을 빈차에 실으며 갱장의 착암기 다루는 솜씨에 탄복을 금치 못해하던 굴진공들은 벌써부터 어깨를 흥떡인다.

그러나 착암기를 두손에 틀어쥐고 파렬구가 점점 깊어지는 암반벽에 시선을 박은 최정길의 안색은 밝지 못했다.

그의 귀전에서 착암기소리가 차츰 멀어지는가싶더니 원모양의 안전등빛이 어룡대는 암반벽에 환영마냥 갱구내의 전경이 펼쳐졌다.

아담하게 꾸러진 목욕탕들의 공기창마다엔 방금 막장일을 끝내고 나온 탄부들이 교대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내며 날리는 웃음소리가 뽕뽕 김발과 어울려나오고 그곁에 나란히 선 영양제식당의 주방칸에서는 그들을 위해 푸짐한 식사를 준비하는듯 쪼릿쪼릿등기발이 연기처럼 뭉게뭉게 피어나온다. 그 뒤 산언덕의 절벽을 깎아내어 지은 버섯재배장이며 그로부터 초간히 떨어져있는 집집승우리들, 앞에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는 지하수를 리용하여 건설한 양어장 그리고 갱사무실앞의 양지바른 곳에 일떠선 수십평방짜리 온실들에서는 갖가지 남새들과 고기, 버섯들이 짹짹 생산되어 탄부들의 식생활을 윤택

하게 하리라.

이전같았으면 반년남짓한 동안 갯의 탄부들을 위해 밤낮없이 뛰여다닌 헌신의 자욱들을 되밟아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정길에게 있어서 삶의 희열속에 래일을 설계해가는 기쁨의 순간, 사색의 순간으로 되었으리라. 하건만 그의 낮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자기가 주혁철이를 대신해서 착암기를 잡고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그가 7갱으로 옮겨간지가 벌써 닷새전의 일이다.

그날 그는 갯장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었다.

《전 갯장동지가 우리 갯에 와서 이날껏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시원치 못한 탄발때문에 별로 인정받지 못할줄로 압니다. 그런데 10편도에 탄이 터진 지금에는 왜 그냥 저 9편도에 미련을 두는겁니까. 갯장동지는 거기에 탄이 묻혀있기때문이라는 데 물론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0편도에 비해 보면 그건 아마 새발의 피만 한 량일겁니다.》

정길은 그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전진갱에 와서 지금껏 생산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새발의 피만 한 량의 석탄이 묻혀있는것때문에 9편도를 버리지 못하고있는것도 사실이었던 것이다.

10편도에서 탄이 터지자 정길은 9편도를 폐쇄하고 모든 력량을 거기에 총집중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밑바닥을 드러낸 그릇인양 텅 빈 9편도막장의 한쪽에서 상반하반구조가 분암과 중립질사암으로 되어있는 암반벽을 발견했을 때 그는 결심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의 오랜 탄부생활경험으로 보아 이런 구조상태의 암반뒤에는 반드시 탄이 있기때문이었다. 그의 요구로 갯에 나온 탄광기술과에서 조사해본 결과 800~900톤가량의 탄이 묻혀있다는 것을 담보했다.

그때 정길은 애들처럼 환성을 터치며 얼마나 기뻐했던가, 마치 잃었던 보물을 다시 찾은듯...

그런데 혁철이는 그것을 더없이 보잘나위없는것으로 치부하고있다. 물론 월마다 수천톤의 탄을 캐내야 하는 갯의 능력으로 볼 때 그 량은 새발의 피이다. 그러나 이 새발의 피도 나라의 재부가 아니라.

이때 혁철이가 다시 침묵을 깨쳤다.

《갯장동지는 제가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살기를 바라시지요.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생을 마친 후에가 아니라 피끓는 이 시절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싶단 말입니다.》

《뭐라구?》

정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주먹은 어느새 짝 틀어쥐여있었다.

한참후 자신을 자제하고난 정길은 입을 열었다.

《땀흘려 일하는 네 모습이 남의 눈에 띄우길 바랐단 말이지. 바친 땀의 대가가 약속되어있는 곳만이 네가 설 자리라는거지? 나라를 위해 바치는 헌신에도 사심이 있다는걸 내 몰랐구나. 인간의 훌륭함은 결멋이 든 너처럼 화려한 갯춤새에 있는게 아니야. 훌륭하다는 말과 화려하다는 말을 혼돈하지 말아.》

가슴속 피로움을 가파스로 참아내는듯 잠시 침묵했던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탄광규률은 명령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에 없는 일은 명령 하나만으로 수행될수 없고 성과는 더욱 기대할수 없기에 너를 억지로 9편도에 잡아두지는 않겠다.》

결국 정길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혁철이를 전진갱에서 떠나게 한 장본인이 된셈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정길에게 전화를 걸어온 생산부 기사장은 혁철의 문제를 거들며 질책하는 투로 얘기했었다.

《그런 청년들을 다 내보내고 동무 혼자 갯에서 일할텐가. 9편도문제도 그렇지. 물론 나도 그곳의 탄을 그냥 물어두라는건 아니요. 하지만 생산을 어느 정도 추켜세운 다음 그곳을 다시 뚫어도 되지 않소. 있는 탄이 달아나지야 않겠지. 일군이라면 웅당 임명받은 후의 자기의 첫 모습을 중히 여길줄도 알아야지. 오죽 속이 상했으면 당비서동무가 아침에 동무네 갯으로 떠났겠소. 난 래일 중간총화에서 동무의 얼굴을 대하기가 참 딱해질것 같구만.》

그는 정길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있었다. 물론 갯의 굴진력량과 탄차들을 9편도와 10편도에 분산배치하다보니 현재 생산이 높아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정길은 그의 의견을 부정하고싶었다.

일군이라면 누구나 생산실적을 중요시한다. 그것은 그의 가치가 실적에 따라 규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조차 총화마당에서 깎이울 체면부터 생각하며 생산수자를 허위보고하거나 량심에 가책되는줄 알면서도 그것이 생산에 지장되는 일이라고 눈감아버린다면 그렇게 얻어진 높은 실적이 과연 나라에 진정한 보탬이 되랴싶었다. 낮내기에 불과한 그런 실적은 국가에 도움보다도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것이다.

정길은 서둘러 그와의 전화를 끝냈다, 오늘래일로 9편도에서 탄맥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밀진 봉창은 넘려없다며...

이윽고 작업을 끝낸 정길은 마주한 암반벽에 평하니 뚫은 20개의 발파구멍들을 재삼 확인해보며 그안에 들어있는 돌가루를 손으로 쑤서냈다.

(기술과동무들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이번 발파에 탄이 나와야 한다.)

그는 발아래 놓인 착암기를 두손에 잡았다. 발과 하기 전에 대피구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였다.

공 하고 힘을 쓰는데 착암기가 한결 가볍게 들리운다. 그는 앞에서 착암기 한끝을 맞들고 선 영옥이를 알아보았다.

《여긴 왜 들어왔냐?》

그의 엄한 꾸중에도 처녀는 고집스레 착암기를 붙든 손을 놓을념 않는다. 혁철이가 갯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강다짐으로라도 그를 9편도에 눌러앉혔더라면 처녀와 착암기를 맞든 상대는 갯장이 아니었을것이고 지금 이곳에는 파분하고 미안스런 감정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의 미소가 흘렀을것이었다. 정길은 처녀앞에 죄송스러웠다. 대피구역에 착암기를 내려놓고난 그는 영옥의 곁에 앉았다.

《혁철이한테 자주 가군 하느냐?》

처녀는 대담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안돼.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합숙생활하는 그에게 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겠냐. 혹시 너희들 사이가 뜨뜨미지근해진진 아니냐?》

《그런진 아니지만 난 그가 막 미워나요, 갯장동지의 진정도 모르고 뺄질하는거. 그래서 만나보고는싶지만 그가 잘못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한데 갯장동진 그 동무가 다시 우리 갯에 오리라 믿습니까?》

《그럼 그가 어디 간단 말이나, 처녀도 집도 다 여기에 있는데. 그녀석 괜히 엇드레질이지. 오래지 않아 다시 오게 될게다. 아무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일테지.》

갑자기 처녀에게서 흑- 하고 흐느낌소리가 터졌다.

《고마워요, 그를 믿어주어서...》

한참만에야 처녀는 마음을 진정한듯싶었다. 그는 언제 울었던가싶게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갯장을 바라보았다. 맑은 이슬에 씻기운듯 한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있었다.

《갯장동지, 한가지 물어두 좋아요?》

《?!》

《음- 엄인석당비서동지가 언제인가 갯에 오셨을 때 해준 이야기인데... 총각시절에 갯장동진 정순과장선생님과 크게 다툰적이 있었다지요? 그때 어떻게 다시 화해했나요?》

정길의 입가에 스스런 미소가 지어졌다. 혁철이와의 상봉을 기대하는 처녀의 마음이 느껴졌던것이다.

그는 그때의 일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고 온 그날 정길은 곧장 탄광병원으로 찾아갔었다.

그를 반겨 축하해주며 제일처럼 기뻐하던 접수실 처녀는 함께 밤근무를 서게 된 정순이를 찾아준다

면서 바빠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난 그는 몹시 난처해하며 정순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정길은 되돌아설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저녁 그는 처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처녀대신 아버지가 대문밖에 나타났다.

《자네에게 안된 말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딸과 만나는걸 삼가해주게. 자네와 만나는걸 바라지 않누만.》

정길은 놀랐다. 처녀와의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결별을 선언하는것과 같은 그의 태도에 속을 썩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부터 정길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정길의 주위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서부갱에서 일하는 한 채탄공네 집에 급한 환자가 생겼다. 영문모를 배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는 다른 의사가 아니라 꼭 정순선생만을 찾아달라는것이였다. 준의로 일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하여 의사자격을 받은 정순이였다.

처녀의사는 잠시후 사색이 되어 환자의 앞에 당도하였다. 이때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환자가 가슴노리에 갖다대인 청진기를 밀어치우며 일어나앉는것이였다.

《선생은 언제까지 우리 소대장동물 괴롭힐 작정입니까? 선생때문에 우리 소대장동무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래 모른단 말입니까? 오늘은 우리앞에서 대답을 해주시요. 그래 우리 소대장동무와 결혼하겠소, 말겠소?》

처녀는 아연하여 앉은자리에서 까딱 움직일념을 못했다.

웅기중기 둘러선 소대원들은 정순의 입이 열리기만 지켜보고있었다.

갑자기 처녀에게서 허거픈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더니 한참후에 처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동무들, 이 하찮은 처녀를 관심해주어서... 하지만 내가 동지들의 이런 호의마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의 말끝이 흐려지더니 눈가에서 구슬같은것이 반짝이며 방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울고있었다.

처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환자》와 옆의 청년들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이때였다. 대문이 활 열리더니 탄가루물은 작업복차림 그대로인 정길이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있었다.

《정순동무가 미리 와있었구만. 고맙소.》

그러나 처녀는 그를 외면하며 대문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로부터 두달후 어느날 아침이였다. 갯에 온 신

문을 들여다보던 정길은 깜짝 놀랐다. 탄광의 특류 영예군인을 위해 온갖 지성을 바쳐온 처녀의사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기사가 실렸던 것이다.

그는 다름아닌 정순이었다.

놀라움!...

경탄!

마음속 흥분을 건잡지 못하고 괜히 갱마당을 오락가락하는데 정문쪽에서 귀익은 차경적소리가 울렸다. 엄인석당비서가 탄 승용차였다.

인석당비서는 내리자마자 대바람 소리부터 쳤다.

《정길동무, 담이 있으면 본인앞에서 다시 말해 보오. 우리 정순선생이 뭐 어쨌다구? 온 탄광이 자랑하는 이런 훌륭한 처녀를 동무가 울릴수 있소? 동문 뭐가 잘나서. 자 정순동무, 어서 내리오. 내 이제 이 정길동물 혼내우는걸 좀 보오.》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미쳐 정신차릴 새없이 정길을 다블러대던 인석은 차문을 열어제꼈다.

당기우듯 끌리우듯 정길은 차결로 다가갔다.

순간 괴로울 때나 힘겨울 때나 언제한번 곁을 떠난적 없고 그래서 늘 고맙고 그리웠던 처녀의 체취와 함께 아름다운 두눈빛이 가슴속까지 환히 안겨 드는듯싶었다. 정다웁게, 뜨거웁게.

말없는 시선속에 정길은 처녀의 속삭임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절 용서해주시겠어요?)

(용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함께 하면 못쓴다오? 아니, 나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준다면 안된다고오? 아니, 난 용서 못해.)

그러나 처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사랑으로 불붙는듯 하였다. 눈앞에서는 애국의 프락에 심어진 한그루 나무가 설레이고있었다. 자기가 나서자란 탄광의 이 작은 프락에,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도 또 한그루의 애국의 나무가 심어져 푸르름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야, 정말 어쩌면... 갱장동지, 나도 혁철동무도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영옥은 탄성에 가까운 목소리를 터쳤다.

《난 믿는다. 너희들도 이 나라 공민이 아니겠느냐.》

정길의 말에 화답하듯 둔중한 발파소리가 지심을 흔들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발파가 끝나자 최정길갱장은 조바심속에 막장에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웬 불빛들이 그를 향해 마주오는 바람에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갱장동무, 그간 고생이 많았겠소. 오늘쯤엔 9편도에 탄이 터질것 같대지요?》

그는 엄인석당비서였다. 뒤에 분초급당비서며 책

임기사가 뒤따라선것을 보아 그들에게서 사연을 다들은 모양이었다.

이때 막장쪽에서 누군가의 탄성이 터지는가싶더니 여럿의 함성으로 합쳐졌다.

《탄이다. 탄이 터졌다! 갱장동지!—》

순간 정길은 몸에 찌릿하니 전물같은것이 흐르는것을 의식했다. 그의 마음은 벌써 탄벽이 드러난 막장으로 달리고있었다.

(어디 보자, 어디? 귀중한 나의 탄아, 너의 한 줍한줌이 내는 빛과 열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나는 너를 버릴수가 없었다. 내 나라의 귀중한 재부여!...)

그의 속을 들여다본듯 엄인석당비서가 그를 재촉했다.

《왜 이려고만 있는거요? 갱장동물 찾고있지 않소.》

×

다음날 탄광행정청사의 3층회의실에서는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현재까지의 석탄생산에서 모범적인 갱장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뒤떨어진 갱장들이 뒤좌석에 앉아있었다. 최정길갱장도 뒤쪽 한켠구석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그러나 엄인석은 그의 모습이 훨씬 돋우보였다. 실적이자 그의 실력의 높이인 동시에 당의 신임에 따른 보답의 높이, 충실성의 척도인것이다.

어떤 일군들은 이룩해놓은 생산실적을 놓고 당에 얼마만한 기쁨을 드렸는가를 론하기에 앞서 객관의 평가에 따른 자신의 조직적수완과 능력, 그로 인한 명예의 높고낮음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공명을 추구하며 일신의 명예만을 바라서 높은 사업성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우리 일군들속엔 없는가.

오늘 모임에서 인석은 이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싶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락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제 주혁철에게 해주었던 말이 다시금 울려나오고있었다.

《진정으로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아픈 배를 드는 법이요. 동무도 갱장동무의 심장에 아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에 박동을 잇고사는 이 나라 애국자들의 심장에 박동을 맞추어야 하오.

조국이라는 이 넓은 대지에 비해볼 때 갯은 자그마한 프락에 불과하지. 그러나 애국의 마음들이 살며 가꾸고 살지워가는 그 작은 프락들이 있기에 나라의 재부는 늘어나는거구 조국은 그만큼 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 줄달음치는게 아니겠소.》

시 조

사랑과 작별에 대한 시

최 남 순

1. 나의 후회

졸업반강의를 끝내는
종소리는 이미 울렸는데
나의 제자들이여
내 마음에선 지금
아픈 후회가 시작되리라

그대들을 처음 가르치던 날이
엿그제만 같은데
나는 벌써 20대를 지나
30대에 들어섰으니
오, 이제 다시 배워줄수만 있다면...

후회되누나
새파란 나이탓이었던가
밤새워 수행해온 과제들을
너무도 맹정히 평가했던 그 일들이
그때 해주지 못했던 격려의 말들이
이렇게 마음에 맺힐줄 몰랐어라

후회되누나
또 언제인가
그 누군가의 시험지에 매겼던
만족치 못한 점수조차도
그 모자라는 점수는
채 바치지 못한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듯

더 따뜻하게
더 열렬하게
그대들을 가르쳤다면
내 오늘 이 교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내릴수 있으면만

들어다오
나의 제자들이여
마치 당부처럼 터놓는 나의 이 후회
높은 요구성을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지 못한 이 후회

그대들이 이제
교단에 서거들랑
부디 나의 이 후회에서부터

교육자의 첫걸음 떼여다오
따뜻하게...
열렬하게...

그렇다
제자들이여
보다 큰 사랑은
후회에서부터 시작되는것 아닌가

2. 첫사랑처럼

묻지 마시라 나에게
그대들이 나의 몇번째 제자인가고
알게 되리라 그대들도
맞고보내는 제자들 많아도
마음속엔 그들모두가
언제나 첫번째 제자임을
교단에 처음으로 서던 순간
그 마음속 울렁임과 숨가쁜 책임감이
한생토록 식지도 줄지도 않거늘
오, 그것은 정녕
조국에 바친 나의 첫사랑 아니던가
이제 그대들을 떠나보내고
래일이면 또다시 마주할 새로운 학생들
세번째랴 네번째랴
마음 또다시 울렁이고
가슴은 책임감으로 부풀고
아, 백발이 된대도 첫사랑처럼 사랑할
조국의 미래 아니던가

3. 졸업식날 교원들의 귀속말

×

박선생
난 이런 날이면
막 가슴이 뻘근해요
두렵기도 해요

왜 두려운가구요
아이참 생각해봐요
철혁이 진희...
다 쟁쟁한 수재들인데
이제부턴 경쟁대상이예요

언제까지나
 앞선 스승이 되고픈군요
 더 바쁘게 살아야겠지요?
 호호 우리도 참
 정신없이 쏘아부어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을 키워내니...

×

박선생 오늘 보니
 교정에
 꽃이 많이도 폈군요
 지는 꽃도 많아요

이제 저 동무들이
 박사도 되고 영웅도 되어
 모교를 다시 찾아올 땐
 우린 늙을겁니다

열매위해 자리 내주고
 가벼이 떨어지는
 봄꽃이 오늘따라 사무치군요

오늘 보니
 교정에
 꽃이 많이도 폈어요
 지는 꽃도 많군요
 봄이 참 아름다워요

4. 별이 되라

나에게도 있었다 그런 때가
 대학을 졸업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것 같던

허나 그 별은
 하늘 멀리에 있는것이 아니었어라
 별은
 스스로 불타는 자신의 심장이더라
 스스로 밝히는 자신의 마음이더라

그 별은
 래일의 강의를 위해
 밤새워 쓰고 지우고 덧쓰는 글줄에서 태어나고
 제자들을 타이르며
 남몰래 흘리는 순결한 눈물속에 비쳐들고
 그들을 위해
 용감히 걸어보는 밤길에서 더 빛나더라

별을 따오려니 생각마시라

그대들 자신이 별이 되라
 피를 태우며 쌓은 지성으로
 제자들의 지식의 길 비쳐주라
 밝은 도덕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대들의 주위가 언제나 밝아지게 하라

오, 별이라도
 수많은 못별들에게 빛을 보태주고도 남을
 헌신의 별 지혜의 별이 되라
 하여 그대들이 선 교단이
 이 세상 어느곳보다도 더 환해지게 하라
 그 교단을 높이 쌓아준 우리 조국이 더 눈부시게
 하라

5. 작별의 환희

수년세월
 자식처럼
 동생들처럼
 너무도 정 들었던 제자들이
 졸업의 교문을 나서는 이 순간

눈가에 자꾸만
 뚫어오르는 뜨거운것이어
 마음속에 파고드는
 작별의 아릿함이어

내 어찌 잊으랴
 해마다 첫 학기 첫 시간이면
 교탁우에 정히 놓이곤 하던
 소박하나 진정어린 꽃다발들을
 나에게 사는 보람
 베풀어 안겨주던
 그대들의 최우등성적증이며
 대학생발명가증서들을

때로 지치고 힘들 때조차
 날 믿어 바라보는
 제자들의 불타는 눈동자 있어
 내 웃으며 일어설수 있었거니
 그대들은 조국이 나에게 안겨준
 아름다운 삶의 지탱점들 아니었던가

그 모든 소중한 추억을 안고
 떠나누나 떠나가고있구나
 나의 제자들이
 내 인생의 한구간을
 고스란히 바쳐온 귀중한이들이
 또 다른 나의 삶들이
 조국에 바치는 나의 사랑들이

나는 민노라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느 교단들에서나
그대들이
분명 나의 사랑도 함께 쏟아주리라는것을

민노라
따스한 햇빛 넘치는
12년제의무교육의 창가들마다에서
그대들이
이 나라 후대들에게 나누어주는
빛나는 지혜와 티없는 웃음속에
나의 땀도 조용히 깃들리라라는것을

아, 밝은 래일을 믿듯이
나는 민노라
인재강국 교육강국의 도도한 흐름 떠밀어가는
그대들의 열정속에

나의 힘도 언제나 백배로 더해지리라라는것을

잘 가시라 나의 제자들이여
지금 나의 가슴 한복판으로
아쉬움과 아릿함을 세차게 밀어버리며
너무도 큰 긍지의 파도가 질풍쳐온다

이런 작별은 행복쿠나
수년세월 쌓아온
정과 사랑이
조국의 래일을 향하여 밀물쳐가는
이런 순간은

오, 바치는 사랑으로 달아오른 심장은
작별의 환희를 안노라
조국과 더 큰 사랑을 나누려
헤어져가는 마음들엔
작별의 환희가 퍼덕이노라

수 필

변하지 않는것

배 경 휘

세상에 변하지 않는것이 있는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것이란 없다. 세상만물은 변화하며 발전한다. 발전자체가 변화를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변하지 않는것에 대해 말하려 한다.

지난해말 나는 도인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적이 있었다. 밝은 지독히도 추웠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나는 추운줄을 몰랐다. 훈훈하고 조용하고 정갈한 호실, 친절한 의사선생의 적극적인 치료...

그때 나는 침대에 누워 밖을 내다보면서 간호원이 하던 말을 생각하였다.

담당호실에 언젠가 어느 무역일군이 입원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다른 나라에서는 침대에 한번 누워 주사를 맞아도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는것이였다. 그런데 나는 무료로 병원에 입원하여 편안히 침대에 누워 의사선생들과 간호원의 지극한 관심과 치료속에 있다. 나와 나란히 옆침대에는 어느 한 농장의 농장원이 누워있다. 어쩌다 병원에 입원해보니 우리 현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놀랍게 느껴졌다. 놀라운것은 그뿐이 아니였다.

담당의사가 자랑하기를 이 병동이며 입원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이렇게 모두 훌륭히 꾸렸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 따라 고려치료부문이 확장되면서 방들이 결정적으로 모자랐다. 그때 고려부원장은 병원에 체기하여 거의 폐기상태에 있던 건물을 받아 새롭게 꾸릴것을 결심했다.

자재와 로력 등 제기되는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부원장이 솔선 앞장서서 제일 어려운 자재를 맡아 해결하니 모두가 힘을 얻고 따라나섰다.

그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바로 우리가 꽃피워야 한다는걸 잊지 말자요. 우리가 맥을 놓고 주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의 보건시책도 빛을 내지 못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 부원장이야말로 우리 인민보건정책의 옹위자, 사회주의보건시책을 한몸 바쳐 실현해가고있는 관철자라고 생각하였다. 정말 10여명밖에 안되는 고려치료부문의 의사, 간호원들의 힘으로 이렇게 전국보여주기사업까지 할 정도

로 병동을 훌륭히 개진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을 모르게 해주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오늘처럼 모든것이 긴장한 시기에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지 않으려는 당의 은덕이 부원장과 같은 의료일군들을 통해 이렇게 구현되고있구나싶었다.

나의 상념을 깨뜨리며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손자애의 창창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할아버지!—》

안해와 아들, 며느리가 손자애를 데리고 면회를 온것이다. 불이 빠져져나올데가 없어 더 나오지 못하는것 같은 손자애는 부모들이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라고 시켜도 들은척 않고 까만 눈을 반짝이며 방안을 두리번거리기만 하더니 뒤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장난이 얼마나 세찬지 하루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손에 닿는것은 다 못쓰게 만들고있는 애다. 안해는 손자애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였다. 순간이나마 눈을 뗀다간 일을 친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다. 말을 안 듣는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이는 장난이 세찬것이 정상이기에...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이젠 애가 아파하지 않니?》

《예, 일없습니다.》

나는 흐뭇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달전에 손자애는 선천성심장병으로 심장수술을 받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5만달러이상 있어야 수술을 할수 있다는 심장병!

헌데 우리 손자애는 옥류아동병원에 40일이상 입원하여 돈 한푼 내지 않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 돌아왔다. 병원이라기보다 아이들의 궁전과도 같은 옥류아동병원!

방마다 커다란 액정텔레비존과 록화기, 고급침대에 뽕뽕풍기와 뽕뽕기까지 있고 편리하고도 화려하게 꾸러진 위생실도 있어 고급호텔처럼 느껴지는 입원실, 입원환자들에게 간식까지 공급해주고 입원해있는 기간 공부할수 있게 학습실과 교원들까지 있는 병원, 그런 곳에 입원하여 수십일이나 치료받은 어린이들은 퇴원할 때엔 떠나기 싫어 눈물까지 흘린다고 한다.

우리 며느리가 말하기를 간호원, 의사들이 얼마나 애를 고와하고 치료를 성심성의로 해주는지 마치 친혈육들속에 있는것 같았고 모든것이 무상인 최고급의 치료조건속에 흘러간 나날은 마치 행복의 무아경같았다고 한다.

공기속에서 산소의 귀함을 느끼지 못하는것처럼 지금껏 병원신세를 적지 않게 지면서도 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헌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여있으면서, 더우기 면회온 손자애를 보면서 우리 나

라 보건정책의 우월성에 대해 새삼스레 가슴뿌듯이 느꼈다.

깨달음이란 언제나 큰것에서 오는것이 아니다. 량적변화가 질적변화로 넘어가는 계기는 아주 미세한것이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을 알게 된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 나라의 혜택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우리 당과 국가가 인민을 위해 얼마나 큰 힘을 돌려왔는가를 뼈저리게 알게 된것처럼 오늘 미제와의 대결전에 모든 력량을 집중해야 할 시각, 적들의 봉쇄와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 한키로와트의 전력, 한키로그람의 세멘트도 귀중한 지금에 와서 나는 환자들에게 불편없는 치료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일군들을 보면서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수만금이 드는 심장수술도 무상으로 해주는 우리 나라 보건정책에 대해서 새로이 가슴뜨겁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때 나의 가슴을 친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은 어려울 때나, 풍족할 때나 그 언제나 변함이 없구나 하는것이였다.

그렇다,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복종시키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은 변함이 없는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명처럼 받아안고 그에 보답하려는 마음 또한 날로 강해지는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것, 여기에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무궁번영하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미제와 박근혜패당이 우리를 어찌보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부닥치는 난관이 아무리 커도 우리 인민은 앞날을 낙관하며 변함없이 우리 당을 따를것이다. 원수들은 이것을 모르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변할수 없는 녀이 있다는것을.

놈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를 바라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망상이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허나 그들이 과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심어주시고 계승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활짝 꽃피워주시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리해나 할수 있을까?

아직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설한풍이 앞을 막아서고있지만 우리는 용기백배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통일된 조국, 강성국가로 더욱 찬란히 빛날 우리의 래일을 향해 걸어간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불변하듯이, 어머니를 따르는 자식의 마음이 변할수 없듯이 우리의 일심단결은 영원불멸할것이며 영원한 사랑과 보답, 단결의 기치아래 우리 조국의 앞날에는 승리와 번영만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나의 가슴을 후덥게 달구고 있다.



리 명 선

△때: 현대

△곳: 북변의 어느 한 산간도시

△나오는 사람들

동천: 영예군인(30살)

선옥: 시인민병원 담당의사(26살)

명길: 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선옥의 아버지)

분희: 도로관리원(선옥의 어머니)

덕필: 원림사업소 노동자

동길: 원림사업소 부지배인(동천의 형)

△무대: 시내의 어느 한 공원. 가운데에 정원등이 있고 그 양옆에 병든 들메나무와 푸르싱싱한 들메나무가 있고 여기저기에 의자와 놀이판들이 있다. 배경에 나무를 절반 심은 야산들이 보인다.

아침체조를 하며 동천과 동길 나온다.

동길: 동천아, 내 하나 좀 묻자. 너 요새 밤마다 어딜 다니니?

동천: 저... 별게 아니예요.

동길: 혹시 처녀가 생기게 아니냐?

동천: 아... 아니예요. 나같이 몸도 성성치 못한 사람한테 어느 처녀가...

동길: 네가 어드래서. 제대군인, 당원이며 영예군인인데 누가 감히... 그런데 너 가라는 료양소에는 안 가구 어쩌자는거냐?

동천: 야, 지금 한창 식수철인데 가긴 어쩔 건 다구 그래요?

동길: 야, 바쁘긴 계속 바빠. 한가한 때가 따로

있는줄 아니? 그건 그렇구, 내가 소개하는 처녀는 왜 보지도 않겠다는거냐?

동천: 내 몇번이나 말했어요. 금방 제대돼서 사회물정도 잘 모르는데...

동길: 아니 야, 네 나이 올해 서른이면 인생 절반 살았다고도 할수 있는데 무얼 몰라? 그 처녀의 아버지로 말하면 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런 좋은 배경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니?

동천: 그런 집에서 나같은걸 사위로 맞겠대요?

동길: 그건 걱정말아, 바로 이런 때 한몫 하자고 원림사업소 부지배인을 하는 이 형이 있는게 아니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구실을 해야 할게 아니냐?

동천: 형님, 고마와요. 하지만 전 아직...

동길: 야, 너 어디가 좀 모자라지 않니? 늙은 총각이 너자생각 없다니 내 원참, 그러니 총각몸에서 향수내가 아니라 퀴퀴한 냄새만 나지.

동천: (냄새를 맡아보며) 난 모르겠는데요.

동길: 으음— 야, 동천아! 내가 이제 몸이 추신 다음 직업도 잡고 생활도 꾸리자면 너자덕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 다 내다보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만나라도 보려무나.

동천: 야, 됐어요.

동길: 너 정 이러겠니? 처녀집에 말까지 다 해왔는데 이 형의 체면도 봐줘야 할게 아니냐? 영?

동천: 좋아요. 정 그렇다면 한번 만나는 보자요.

동길: (반가와하며) 그래? 글썄 그러면 그럴겠지. 가만, 어디서 만나다? (두리번거리다가) 그렇지. (병든 나무를 가리키며) 저 누런 들메나무앞에서 저녁 7시에. 어찌냐?

동천: 아니, 하필이면 만날데가 없어서 저렇게 병든... 가만, 이 나무가 왜 병들었을까요? 죽어가는데 아니예요?

동길: 아니, 처녀애기를 하는데 똥단지같이 무슨 나무소리냐?

동천: 아니, 형님이야 원림사업소 사람이 아니예요?

동길: 됐다됐어. 처녀의 집에서 기다리겠으니 마음에 들면 같이 오너라. 들었니?

동천: 예.

동길: (손전화기를 꺼내며) 자, 이걸 받아라.

동천: (받으며) 아니, 이런건 뭘 다...

동길: 시부위원장이면 간단할줄 아니? 사람이 어느 면에서나 짝져서는 안된다. 알겠니?

동천: 알겠어요. (주머니에 넣는다.)

동길: 동천아, 난 어쩐지 네가 저 병든 나무처럼 연약해보이는게 마음이 놓이지 않구나.

동천: 너무 걱정마세요.

동길: 아무튼 저 들메나무가 영원한 사랑의 추억이 되길 바란다.

동천: 알겠어요. (동길 나간다.) 음, 사랑의 추억이라...

△효파음악과 함께 무대 어두워지면서 제목이 명시된다.

단막극 들메나무

△무대 밝아지면서 배경에 푸른 산이 보이고 방송선전차에서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전후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에 떨쳐나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우리 도시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해 떨쳐나선 시안의 전체 노동자, 사무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노래소리 울리며 멀어져가는데 명길 나온다.

명길: (나오다 돌아보며) 자, 오늘 모두 수고했는데 돌아들 가보오. 원림사업소는 좀 남소. (동길 나온다.) 부지배인동무, 내 수고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동무네는 일하는 본세가 왜 이 모양이요?

동길: 예? 무슨 뜻인지?...

명길: 이 들메나무를 좀 보오. 그만큼 관리를 잘 하라고 강조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소?

동길: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표까지 찢어붙이고 심을 때부터 부식토를 충분히 갈아주라, 관리를 잘하라 하는데 어디 말을 들습니까?

명길: 그럼 동무네는 뭘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동무네라도 잘해야 될게 아니요?

동길: 오늘 보시다싶이 그 인원을 가지구야 어떻게 온 시내 가로수를 다... 게다가 동원두 많지...

명길: 그게 다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겠소. 우리 장군님처럼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다 자기의 가슴에 부여안고 심장의 더운 피로 가꾼다면 왜 저렇게 병들겠소? 저 나무야말로 동무의 정신상태를 보여주고있지 않는가?

동길: 부위원장동지, 모든게 애국의 마음으로 일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제 머리가 열두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밤중으로 살려놓겠습니다.

명길: 그렇게 하오. 그리고 이 주위에 나무가 적은데 손댄김에 마저 심도록 하오.

동길: 예.

명길: 나무모는 동무네 양묘장에 있겠지?

동길: 예?... 예. 있습니다.

명길: 보란 말이요. 자체양묘장을 꾸리길 잘했지 양묘사업소만 믿다가는 어쩔번 했소?

동길: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명길: 가만, 저 나무를 어느 단위가 심었다구?

동길: 예. (가서 보다가) 영? 아니, 이럴수가?

명길: 그래 어디요?

동길: 저... 편직... 공장입니다.

명길: 음, 편직공장...

△분회 도로관리원복을 입고 비자루를 든채 나온다.

분회: 여보!

명길: (눈을 부릅뜨며) 당신은 뭐요? 여기가 뭐 집인줄 아오?

분회: 예그, 이제 오래지 않아 사돈이 되겠는데 허물할건 또 뭐예요?

명길: 사돈?

분회: 아, 오늘이 이 부지배인 동생하구 우리 선옥이하구 선보는 날이라는걸 잊었어요?

명길: 그렇던가?

분회: 남자들은 다 이렇다니까. 자, 어서 가거나 하자요. 시간도 됐는데...

명길: 이걸 어쩐다... (시계를 보며) 일이 바쁜데...

분회: 아이구, 혁명을 혼자서 다 하는것 같수다. 당신은 선옥이 아버지가 아니세요?

명길: 음, 어쨌든 시간을 내보지요.

동길: 야,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명길: 자, 어서 가지요.

동길, 분회: 예. (함께 나가다가 동길 떨어진 다.)

동길: 차, 이거 한가지는 풀렸는데 저 나무가 문제군. 예라, 모르겠다. (나간다.)

△무대 어두워지면서 가로등이 켜지고 둥근달이 비친다.

△거름마대를 진 동천 나오다가 나무앞에 내려놓고 허리를 문지른다.

△선옥 나오다가 본다.

선옥: (달려오며) 아니, 왜 그러세요?

동천: 아, 의사선생님이시군요.

선옥: 아니, 동지가? 아직도 료양소에 안 갔는가요?

동천: 저... 그렇게 됐습니다.

선옥: 동진 자기가 하반신마비가 겨우 풀린 환자라는걸 잊었어요? 어디 좀 보자요. (허리를 살펴본다.)

동천: 아, 일없습니다.

선옥: (다리를 툭 치며) 자, 어때요?

동천: (인상을 찌프리며) 아...아프지 않습니다.

선옥: 동진 아마 바늘로 콕콕 찌르는것 같아 걸어다니기도 힘들거예요. 그래 다시 앓은병이가 되고싶어 몸살이 났어요? 예?

동천: 저, 선생님!

선옥: 너무하군요, 너무해요. 가라는 료양소에는 안 가구 어쩌자는거예요? 좋아요. 병원에 제기해서 제가 직접 데려다주겠어요.

동천: 아... 아니,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제 하던 일이나 끝내고 꼭 가겠습니다.

선옥: 정말이에요?

동천: 예.

선옥: 그런데 이진 뭐예요?

동천: 거름입니다. 이 나무에 주려구요.

선옥: 예? (효과음)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왜 혼자서 하세요?

동천: 아, 이게 무슨 큰일이라구 소문을 내면서 하겠습니까? (호미로 흙을 판다.)

선옥: (시계를 보다가) 주세요. 제가 하지요.

동천: 아, 그만두십시오. 웃이 났겠습니다. 제가 하겠으니 어서 가보십시오. 어서요. (시계를 본다.)

선옥: 아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세요? 영예군인을 두고 혼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세요. (호미를 빼앗는다.)

동천: (호미를 그냥 쥐고) 야, 제발 이러지 말라는데두요.

선옥: 왜요? 나도 속보에 나보고싶어 그러는데. 《별들만이 아는 일!》 어때요? 호호호.

동천: 이게 무슨 큰거라구 속보에까지...

선옥: 왜 큰일이 아니겠어요. 비록 하는 일은 작아도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큰거지요 뭐. (시계를 보며 초조해한다.)

동천: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크게 사주어서... (역시 시계를 보며 초조해한다.)

선옥: 고맙기야 뭘, 저, 이렇게 하면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동천: 예. 나무도 생명체여서 초기영양이 약하면 엽진병, 녹병, 잎마름병과 같은 여러가지 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 들메나무는 특히 잎마름병에 잘 걸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거름을... (손으로 거름을 꺼내 뿌린다.)

선옥: 그렇군요.

동천: 이 나무를 꼭 살려야 합니다. 사실 이 들메나무는 산림의 《진료소》나 갈답니다.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항생제》역할을 한다고 할지...

선옥: 어마나, 동진 혹시 나무박사가 아니예요?

동천: 박사까지야 뭘, 나무를 연구하던 아버지덕분에 좀 알게 됐지요.

선옥: 예? 아버지덕분예요?

동천: 예. 산림과학자였으니까요. 우리 집앞에는 아름드리 들메나무가 있었는데 초소의 한밤 잠복근무를 서다가도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그 들메나무였습니다.

선옥: 예—

동천: 그 들메나무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들메나무에 깃들어있는 가지가지 소중한 추억들이 떠올라 줄음도 추위도 다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선옥: 예— 그러니 동진 이 들메나무와 남다른 인연이 있었구만요.

동천: 글썄, 어쩐지 제 살불이같은게 그냥 두고 지나치지 못하겠습니다.

선옥: 저, 그런데 농약이랑은 구했는가요?

동천: 예. 분무기가 없는게 유감이긴 하지만...

선옥: 분무기요? (생각에 잠기다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한다.)

동천: 저, 선생님 혹시 바쁘지 않습니까?

선옥: 아니요, 퇴근길인데요 뭐.

동천: 저, 그래두 집에서 기다리겠는데...

선옥: 일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직장에 다니시니 기다릴 사람도 없지요 뭐. 이젠 다 했으니 가지 않아요?

동천: 저두 뭐, 기다릴 사람두 없지 해서...

선옥: (혼자소리로) 무슨 남자가 이렇게 눈치가 곱발바닥일가?

동천: 예? 곱발바닥이 약인가구요? 약이구말구요. 나같은 어혈병환자에게는 제일이지요. (작은 목소리로) 야, 무슨 녀자가 이렇게 뜨니?

선옥: 예? 달이 뜬다구요? 뜨구말구요.

동천: 하, 이거 정말, 저... 선생님, 사실은 누가 여기서 만나자고 해서... 미안합니다.

선옥: 예? 어마나, 이걸 어쩌니? 저두 이 들메나무앞에서 누굴 만나기로...

동천: 하, 이거 오늘은 모두 들메나무앞에서...
선옥, 동천: 그럼 혹시... (둘이 마주보다가 입을 막는다.)

동천: 그럼 선생님이 시부위원장동지의...
선옥: 예. 그럼 동지가 원림사업소 부지배인동지의...

동천: (릴씩 주저앉으며) 아휴.
선옥: 어마나... 그럼 동지였군요.
동천: (일어서며) 선생님, 저에 대해선 알고도 남을테니 이젠 헤어집시다.
선옥: 예? (음악이 흐르는 속에 선옥 굳어지고 동천 마대를 들고 나간다.)

△선옥 무거운 걸음으로 나간다.
△덕필 툇을 들고 들어와 나무를 툇툇 치는데 동천 물통을 들고 들어온다.

동천: 영? 누구요?
덕필: 아, 부지배인 동생인가? 날세.
동천: 아니, 아바이가 어떻게?...
덕필: 오, 이 나무를 베버리라고 해서...
동천: 예? 베버린다구요? 아니, 왜요?
덕필: 죽은 나무니까 베고 새로 심으라는거지.
동천: 죽긴 왜 죽었다는겁니까? 정성을 들이면 얼마든지 살릴수 있는데...

덕필: 뭐라구? 그럼 아직 살았던 말인가?
동천: 예, 보십시오.
덕필: (다시 살펴보고) 글썄, 그러면 그렇겠지... 부지배인두 참...

동천: 예? (효과음) 누구라구요? 아니아니, 그릴수 없습니다.

덕필: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 그것두 남 안볼 때 하라던데...

동천: 뭐라구요? 형님이 어찌면 그럴수가...
덕필: 아마 오늘 낮에 욕을 먹은 모양이야. 그래서 이 나무를 베버리고 다른 나무를 떠다가 여기에 심는다는걸세.

동천: 아니, 산에 나무를 심지는 못할망정 떠온단 말입니까?

덕필: 그러게 말일세. 그만큼 나무를 떠다 심었다가 술한걸 죽이고도 정신이 덜 들었어. 말 못하는 나무라 해서 정성을 들일 생각은 하지 않구말이네.

동천: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야 안되지요.

덕필: 그렇구말구. 우리가 어떻게 나무를 심는걸로만 만족할수 있겠나? 전쟁로병세대는 포화속에서도 뿌리가 상한 나무가 있으면 정성껏 심어주고 입술을 추기던 물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었네. 왜 그랬겠나? 그 애 어린 나무가 바로 우리에게 고향이었구 부모처자였구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조국이였기때문이지.

동천: 아바이, 읍습니다. 그래서 애국중의 애국은 나무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덕필: 읍거니, 자네 아버지도 이 들메나무때문에 돌아간게 아닌가?

동천: 예? 아니, 우리 아버지야 병으로...
덕필: 물론 병때문에 돌아간건 사실이지. 하지만 집에 앉아 병치로나 하고 몸보신이나 하였던라면 지금까지 살수도 있었지. 하지만 아버진 보기도 좋고 주변나무들의 《의사》역할도 하는 이 들메나무를 이 땅에 퍼치려고 그 먼 강계에까지 수십번을 오갔고 양묘장에 여러번 읍기면서 그야말로 온넛을 쏟아부었지. 그러다가 병이 악화되어 그만...

동천: 아바이...
덕필: 자네 아버진 내 무릎에서 숨을 거두면서 저 들메나무를 부탁하고 갔네. 자네들이 꼭 성공시키라고 말이네. 그래서 자네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원림사업소로 왔고 부지배인까지 됐지. 그런데... 그런데...

동천: 아바이, 이젠 알겠습니다. 제가 물을 주고 땅을 파는 동안 양묘장에 가서 나무모를 좀 가져오십시오.

덕필: 아니, 이 밤중에?
동천: 예. 달도 환한데 오늘중으로 심어놔야 사업소체면도 세울게 아닙니까?

덕필: 알겠네. (나간다.)
△동천 물통을 들고 물을 주는데 동길 나온다.
동길: 야, 동천아! 넌 선을 보자는거야, 말자는거야? 영? 그래 처녀는 봤니?

동천: 봤어요.
동길: 그래, 어떻더냐?
동천: 그만두기로 했어요.
동길: 뭐라구? 야, 이게 뭐 좋으면 하구 싫으면 그만두는 아이들 장난인줄 아니? 처녀는 어디 갔니?

동천: 갔어요.
동길: 가다니? 집에도 오지 않았던데...

동천: 모르지요.
동길: 뭐? 아니 야, 네가 모르면 누가 안다는거냐? 기가 막혀서. 좋다, 너라도 가자. 부위원장동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어.

동천: 야, 보면 몰라요? 이 나무가 죽어가서 속상해죽겠다는데 어떡 간다는거예요?

동길: 뭘? 처녀 만나보는데 똥판지같이 나무는 또 뭐야? 너 지금 돌지 않았니?

동천: 머리가 돈건 형님이예요. 한그루의 나무라도 살리지는 못할망정 이 나무를 베버리라고 했다면서요?

동길: 영? 이 나무가? (주위를 살펴본다.) 으... 응. 그래, 어쨌다는거냐?

동천: 형님,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이 어떤 때라구... 그렇게 쉽게 베어버릴바에야 원림사업소가 무엇때문에 필요해요? 차라리 인민반 아주머니들이 다 하는게 낫지.

동길: 흥, 천진하군. 그렇게 말처럼 모든 일이 척척 됐으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은 지시를 준대로 움직이기만 해도 대단한거야. 한걸음을 움직이자고 해도 품이 드는데 네까짓게 기업소관리운영을 알면 얼마나 안다구 혼시질이야? (머리를 쥐어박는다.)

동천: 예예, 모르지요. 하지만 일군이 되는건 일 하지만 사람이 되는건 일생이라는것. 요건 똑똑히 압니다.

동길: 됐다됐어, 내 지고말아야지. 그래 가겠니, 안 가겠니?

동천: 형님, 선을 보는거야 오늘 못 보면 래일 봐도 되지만 나무는 죽으면 다란 말이에요, 다.

동길: 야, 시부위원장이 너때문에 시간을 또 낼 것 같니? 동천아, 나무라는거야 죽으면 또 심으면 되지만 오늘같은 운명의 기회는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놓치면 다야, 다.

동천: 운명이요? 형님, 애국이라는 토양에 뿌리 박지 못한 운명에 과연 행운이 차례질가요? 행복이 꽃필수 있는가 말이에요.

동길: 야, 너 혼자 애국자연하지 말아. 내가 원림사업소에 와서 이 손으로 심은 나무만 해도 몇 백그루는 잘될게다. 그래두 나보고 애국자라는 사람은 없더라.

동천: 나무를 얼마나 심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심었는가가 문제지요. 상급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심은 나무가, 남들에게 애국자인체 하기 위해 심은 나무가 살면 얼마나 살고 이 땅에 뿌리를 내렸으면 얼마나 내렸겠어요. 그 나무들이 다 살았다면 아마 저 산을 덮고도 남았을거예요.

동길: 뭐뭐, 뭐라구? (발을 구르며) 아휴, 죽었구나. 사회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풋내기인 주제에... 그래, 정 여기서 말싸움만 하자니? 응? 예익. (발로 차서 물통을 넘어뜨린다.) (효과음약)

동천: 아니?! (물통을 세우며) 형님도 인간이요? 인간인가 말이에요?

동길: 인간? 그래, 인간이기에 이렇게 밤잠도 못하고 널 위해 뛰어다니겠지?

동천: 형님, 이 동생을 위해주는 형님의 그 마음은 눈에 흠이 들어가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정도 사랑도 조국과 결부되고 혁명에 이바지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되는게 아니겠어요. 예? 형님!

동길: 그래그래, 이 형이 두손을 들었다. 앞으로 일이 안되면 날 원망말아. 그런데 이렇게 물이나 주어가지구 나무를 살릴것 같니?

동천: 예, 그래서 농장에 가서 농약이랑 많이

구했어요. 아무래도 시내가로수들에 다 쳐야겠기에...

동길: 그렇게 많이 주더냐?

동천: 예. 사정을 얘기하니까 도와주더군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희 나온다.

분희: 아니, 사람을 기다리게 해놓고는 여기서 뭘해요?

동길: 아, 선옥이 어머니, 인차 간다는것이 그만... 미안합니다.

분희: 미안하다면 다예요? 이게 어디 아이들 장난인가 말이에요.

동길: 아... 아니, 그렇게 아니라 모든게 체 탓입니다. (동천에게) 야, 뭘하니?

동천: (나서며) 저... 안녕하십니까?

분희: (이리저리 보며) 자넌가? 그런데 우리 선옥이는?...

동천: 아니, 아직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분희: 안 왔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겠지?

동천: 저, 우린 그만두기로 하고 헤어졌는데요.

분희: 뭐뭐? 그만두었다구? 아이구, 기차라. 그때 누가 누구를 찾다는거요?

동천: 저... 제가 먼저...

분희: 뭐라구? 그러니 이 애가 너무도 원통해서 강물에 뛰어들게 아니요? (나가려다.)

동길: 아니, 선옥이 어머니, 어디루?...

분희: 여기 가까이에야 춘동천밖에 더 있어요? (나가려다.)

동천: 아, 선옥이 어머니, 거기야 발목밖에 안 잠기는데...

분희: 그렇던가? 그럼 도대체 어디루 갔노? 아, 뭇들 하고있어요? 빨리 찾지 않구.

동길, 동천: 예. (이쪽저쪽 나가려는데 분무기를 든 선옥 들어온다.)

모두: 영?

분희: 아이구, 선옥아, (끌어안으며)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선옥: 아니, 왜 그래요? 내가 죽기라도 한것처럼...

분희: 네가 첫사랑의 열매를 맛보기도 전에 쓰디쓴 실련을 당했으니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느냐?

선옥: 어머니, 무슨 소릴 해요? 전 영예군인동지의 발뒤축에도 못 가요. 그래서 한가지라도 도와주자고 이렇게...

분희: 야, 채운 주제에 돕긴 뭘 돕는다는거냐? 영?

선옥: 그래요. 채웠어요. 영예군인동지하구는 너무나도 짝이 기울기에 채웠단 말이에요.

분희: 뭐라구? 아니,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란단

말이나? 영? 대학을 졸업 못했니? 인물이 못났니?

선옥: 어머니, 인간의 가치는 결코 인물이나 직위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애국에 있단 말이에요, 애국에.

분희: 아니, 그건...

선옥: 그건 바로 저 나무가 대답해줄거예요.

분희, 동길: (나무를 보다가 마주보며) 영?

선옥: 사람들이 얼마나 나무를 대충 심었으면 저렇게 병에 걸려 시들어가고있겠어요? 영예군인동진 바로 저 나무를 살리자고 선보는 날까지 거름을 주고 농약을 구하러 다니는데 저같은게 그결에 설 자격이나 있어요?

분희: 아니, 뭐라구?

선옥: (분무기를 벗어 동천에게 주며) 저, 우리 병원에서 쓰던건데 이걸루...

동천: (받으며) 아니, 그럼 이 밤중에 병원까지 갔다왔단 말ियो?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분희: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심었기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복새탕을 놓는담.

동길: 아, 아, 됐습니다. (분희를 만류한다.)

선옥: 부지배인동지, 이런건 제때에 까뵈혀야 해요.

동천: 흠소. 그건 제깍 알수 있소. (나무에 다가간다.)

동길: 동천아!

동천: (돌아보며) 왜 그래요? 이런건 제때에 경종을 울려야...

동길: 너 그만하지 못하겠니?

동천: 아니, 형님... (동길 동천에게 눈짓하며 못가게 한다.)

선옥: (이상하게 생각하며 나무에 가서 이름표를 붙는다.) 영?

동천: 어디 좀 보지요. (이름표를 보며) 도로관리원 리분희.

분희: 영? (입을 막는다.)

동천: 하, 이거 이름은 고운데 어떤 녀잔지 일은 정말 너절사하게 하는군. 선옥이 어머니, 놀랍지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게...

동길: (팔을 잡아당기며) 아니, 야.

동천: 왜 그래요? 아까부터... 선옥이 어머니, 도대체 이 녀자의 머리통이 어떻게 돼먹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원림사업소만 잘해서 될 일입니까?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으로 펼쳐나서야... (동길 동천의 허리를 꼬집는다.) 아야야.

선옥: (발을 동동 구르며) 야, 정말...

동천: 아니, 왜 그러오?

분희: 부지배인동무, 참 훌륭한 동생을 두었구만요, 흥. 애 선옥아, 가자.

선옥: 어머니!

분희: 가자는데. (끌고나간다.)

동길: 아니, 저, 선옥이 어... (동천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야, 그 도로관리원이 누군줄 아니? 바로 저 선옥이 어머니야.

동천: 짐작했어요.

동길: 뭐라구? 그럼 너 알면서도 그따위 소릴 해?

동천: 어찌겠어요? 할말은 해야겠길래 우둔한척했지요 뭐.

동길: 야, 야, 내 살다살다 너같은 바보는 보다 처음이다. 나두 모르겠다, 되겠으면 되구 말겠으면 말구. 으음— (나간다.)

선옥: (들어오며) 어때요? 이젠 시원해요?

동천: 미안하게 됐습니다. 원래 성미가 이렇다나니...

선옥: 물론 잘못 말한거야 없지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그토록 애쓰신 어머니를 노엽혔으니 이젠 어쩌면 좋아요?

동천: 그건 미안하오. 하지만 동무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난들 어찌란 말ियो?

선옥: 예? 나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구요?

동천: 그렇소.

선옥: 알겠어요. 그런것도 모르고 난... 제가 어리석었군요. 부디 행복하세요. 후—(뛰어나간다.)

동천: 선옥동무, 선옥... 동무까지 그러면 난 어찌라는거요? 영? (효과음악)

△덕필 들어온다.

덕필: 이 사람 동천이, 이 일을 어쩌면 좋나? 웅?

동천: 왜 그러십니까?

덕필: 글썄 양묘장에 가보니 나무모가 하나도 없네, 없어.

동천: 예? 그건 무슨 소립니까? 아바이!

덕필: 하, 글썄 얼마나 꾸리지 않았는지 양묘장인지 풀판인지 가려보기조차 힘들더구만. 게다가 나무모라는게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꺾꺾 박아놓은 것 같으니...

동천: 뭐라구요? 그러니 우리 형님이... 어쩌면, 어쩌면 형님이 이럴수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앞상을 내리친다.)

덕필: 이 사람아, 어서 일어나라구.

동천: 아바이, 난 이젠 어쩌면 좋습니까? 예? 병든 나무는 정성을 들여 살리면 되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던 형님이 저렇게 됐으니 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예? 아바이.

△효과음악이 울리는 속에 주제가가 울린다.

애국은 애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던가
길가의 한그루 나무로부터 시작되여라
이 땅에 심어놓은 한그루 나무도 없이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조국을 사랑한다고

△동천, 덕필 나가면서 무대 밝아지고 가로등이 꺼진다.

△명길, 분희, 선옥 나온다.

분희: (두리번거리며) 여보, 아침부터 여기는 왜 오자고 했어요?

명길: 어제 저녁 그 총각이 오지 못하게 무엇때문이라구?

분희: 아, 이제야 다 깨진 사발인데 그거나 알 아선 뭘해요?

명길: 아니, 제 자식이 채웠다면 그런 소릴 해? 선옥아, 네가 말해봐라.

선옥: 아버지, 바로 (들메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를 살리느라고...

명길: 음. 그러니 이 나무때문에 못 왔단 말이지. 그러니 팬찮은 청년이구나.

분희: 팬찮긴 뭐가 팬찮단 말이에요? 어제 일을 생각하면 그저...

명길: 여보, 그런 말 하기 부끄럽지도 않소? 사실 저 나무야 당신이 심은게 아니요? 내 어제 너무 낮이 뜨거워 모르는척 했는데 그래 내가 정말 모르는것 같소?

분희: 저, 사실은...

명길: 사실이구 오실이구 듣고싶지도 않소. 어제 그 총각이 오지 못하게 병든 들메나무때문이라기에 깨름직해서 와봤더니 틀림없구만.

분희: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명길: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부터가 저렇게 일하니 내가 어떻게 사람들앞에서 요구성을 높일수가 있겠는가 말이요. 물론 당신이나 내 나이에 당장 그 무슨 덕을 보기는 힘드오. 하지만 우리 대에는 덕을 보지 못해도 우리 선옥이 세대 또 그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전 무결하게 하는데서 기쁨을 찾는것이 애국이 아니겠소? 그래야 나무 한그루 심어도 거기에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담게 되고 흙 한삽을 떠도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게 되는거요.

분희: 여보, 제가 그만... 근본을 잊고 살았어요.

명길: 음-

선옥: 아버지! (한쪽을 가리키며) 저기서 두사람이 나무를 심고있어요.

명길, 분희: 뭐? (그쪽을 본다.)

선옥: 아버지, 그 동무 같애요.

명길: 그 동무라니?

선옥: 야, 어제 저녁에 온다던 그 동무.

명길: 뭐라구?

선옥: 아니, 저러다가 허리병이 도지면 어쩔려구...

분희: 아니, 그건 무슨 소리냐?

선옥: 어머니, 저 동문 이제 다시 허리병이 도지면 하반신마비가 온단 말이에요. (뛰어나간다.)

명길, 분희: 아니, 뭐라구?

△동길 삼을 메고 나온다.

동길: 아니, 부위원장동지가 어떻게?

명길: 아침부터 삼을 메고 어디로 가오?

동길: 저, 나무뜨러 산에...

명길: 정신있소? 산에 나무를 심지는 못할망정 나무를 뜯다구? 눈이 있으면 저기를 좀 보오. (선옥이 나간 곳을 가리킨다.)

동길: 예? 아니, 이럴수가... (눈을 비비고 본다.) 그럼 동천이가?

명길: 동생은 저렇게 남의 일까지 밤을 패며 도와주는데 형이라는 사람은 고작 생각했다는게 그제다요? 그래 양묘장은 어떻게 꾸렸다구?

동길: 저, 사실은...

명길: (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주며) 자, 보오. 양묘사업소에서 올라온 편지요.

동길: 예? 그러니 신소편지? (떨리는 손으로 받아본다.)

명길: 부지배인동무, 부원으로 있을 땐 그렇게도 일 잘하던 동무가 어찌면 이럴수가 있소? 이제는 한자리 하더니 모든게 눈아래로 보이오? 엉? 향수가 변질되면 더 역하다더니... 으음.

동길: 저... 부위원장동지, 제가 일을 쓰게 하지 못했습니다.

명길: 동무 아버지가 저 들메나무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자고 얼마나 애를 썼소? 그런데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뿌리내린 저 나무를 동무는 아무 꺼리낌도 없이 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과연 이 땅에 살 자격이나 있는가?

동길: 부위원장동지!

명길: 동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건 바로 일이 어렵고 힘들다는데로부터 패배주의에 빠져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린거요.

동길: 예? 제가요?

명길: 그렇소.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에 기초해서만 참답고 열렬한 사랑이 나올수 있으며 자기를 기꺼이 바치는 헌신도 나올수 있는거요. 그런데 동무는 어떻게 했소?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자기의 빠심을 묻은적이 있는가 말이요?

동길: 저... 부위원장동지, 전 정말이지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명길: 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믿듯이 우리 인민을 믿고 승리할 조국의 앞날을 굳게 믿으시였기에 언제나 마음속에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뜨겁게 품어안으시고 애국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신거요. 그런데 장군님의 전사, 제자라는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동길: 부위원장동지...

△선옥, 동천, 덕필 나온다.

선옥: 아버지, 이 동무예요.

동천: 부위원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인사한다.)

명길: 아, 동무였구만. 반갑소.

동천: 부위원장동지, 어제 저녁에는 정말 안됐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셨는데...

명길: 아니요. 난 오늘 동무같은 훌륭한 청년을 알게 된것이 더 기쁘오. 그러니 이 주변에 심은 나무들도 다 동무네가 심은거겠소?

동천: 예.

명길: 그래, 나무모는 어디서 샀소?

동천: 저...

덕필: 운송양묘장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명길: 뭐요? 그럼 왕복 60리길을 그 몸으로... 그래, 몸은 일없소?

동천: 일없습니다.

명길: 그래, 이름이 뭐요?

동천: 리동천입니다.

명길: 리동천? 영예군인이라고 했지?

동천: 예.

명길: 동천동무! 이제야 찾았구만, 찾았어.

모두: 예?!

명길: 동무가 복무하던 부대정치부에서 시당으로 편지가 왔댔소.

동천: 예? 편지가요?

명길: 그렇소. 부대에서 하반신마비가 겨우 풀린 영예군인 한명이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료양소에도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는데 꼭 찾아서 료양소에 보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소.

동천: 예?

명길: 그러면서 그 동무는 양묘장을 쫓아져내리는 돌사태속에서 지켜내려다가 상해서 하반신마비가 왔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도와달라고 하였소.

모두: 부위원장동지!

명길: 동천동무, 그런데 료양소엔 왜 안 갔소?

동천: 부위원장동지, 사실은 저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다음부터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명길: 아버지의 편지?!

동천: 예. (효파음악)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우리 고향 광산을 찾으시였던 그 잊지 못할 이야기를 말합니다. 굵이굵이 멀고 험한 마산령을 넘으시어 소들도 다니기 힘들어하는 돌탕길로 장군님께서 오실 때 일꾼들은 너무도 송구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답니다.

명길: 옳소. 바로 그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소. 그때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 번번한 야산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땅속의 보물을 캐줄만 알았지 땅우의 보물은 왜 가꿀줄 모르는가, 저 번번한 야산들을 보니 여기에는 애국자가 있는것 같지 않다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었소.

모두: 장군님...

동천: 부위원장동지, 이 땅에도 분명 애국자가 있고 주인들이 있을진대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도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단 말입니까? 예? 전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료양소에는 후에라도 갈수 있지만 다시야 우리 원수님께 그런 심려를 끼쳐드릴수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동지.

명길: 동천동무.

동길: 동천아, 날 옥해다오. 나야말로 말로만 애국을 부르짖은 우국지사였다.

동천: 형님, 조국에 대한 큰 사랑속에 우리들의 참된 우정도 사랑도 있는게 아니겠어요? 애국을 떠난 그 어떤 사랑이란 무의미하다고 봐요. 부위원장동지, 저는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나무 한그루라도 이 땅에 심는 사람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고 봅니다.

명길: 옳소. 모든 공민들이 다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진짜주인 구실을 할 때 우리 조국은 존엄높고 부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솟아오르게 될것ियो.

모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동지!

분희: 이 사람, 내 하나 묻자구.

동천: 예.

분희: 자네에게 봐둔 처녀가 있다는게 사실인가?

동천: 예? 그건 또 무슨...

분희: 아, 우리 선옥이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던데...

동천: 예. 있습니다.

모두: 영?!

동천: 그건 바로 저 나무들입니다. 저 나무들이야말로 제가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해도 다 못할 귀중한 애인이라는겁니다.

명길: 옳거니, 말 잘했소. 이런 애인이 많을수록 내 나라는 더욱더 푸른 산천으로 젊어질거란 말이요. 여보, 이런 청년이 우리 사위감이 아니면 누가 된단 말이요?

선옥: 어마나, 아버지!

분희: 내 언제 안된다구 했수? 두고보자고 했지. 안 그렇냐? 선옥아!

선옥: 난 몰라요.

모두: 하하하.

분희: 그러니 결국 자네가 어제 저녁에 오지 못한건 저 나무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때문이었구만.

동길: 아닙니다. 저 나무처럼 머리속이 병든 나 때문이었지요. 동천아, 결국 저 푸르싱싱한 나무는 너구 누렇게 병든 저 들메나무는 바로 나였구나.

선옥: 아버지, 그런데 전 동천동무 가슴에 아픈 못만 박았으니 이제 어쩌면 좋아요?

명길: 어쩔게 있니? 너도 심장을 다 바쳐 이 땅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바라는 모든것을 다 얻게 될게다.

선옥: 알겠어요, 아버지! (푸른 들메나무로 가며) 야, 들메나무!

△효과음악이 고조되면서 막이 내린다.

.....

상 식

교통규정

륜전기재들의 운행방향을 규제하는 법은 자동차나 기차가 발명되기 수백년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16세기 50년대에 영국에서는 자기 집앞에 있는 도로는 자체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법이 나왔는데 이러한 법때문에 사람들은 도로를 매우 좁게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건설, 수리비용은 극력 줄이게 되었으나 말과 마차 등이 다니는데 불편하여 말썽을 자주 일으키게 되었다. 영국인들속에서는 고대로마의 우측운행방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사들의 좌측운행방식이 좋다고 떠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1756년에 런던다리를 통과하는 모든 차들과 말들이 왼쪽으로 다녀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수도 빠리의 거리들이 마차 2대가 한꺼번에 통과하기에는 너무 좁기때문에 평민이 탄 마차는 귀족가문의 성원이 탄 마차가 통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령이 내렸다.

북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되는 교통규정은 1787년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는 북쪽으로 가는 마차나 썰매는 남쪽으로 가는 마차나 썰매가 길의 오른쪽으로 갈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각기 교통규정을 제정하여 사람들과 륜전기재들의 운행을 통제하고있다.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5호 (루계 제811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4(2015)년 5월 1 일

발 행 주 체 104(2015)년 5월 5 일

7-5611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